

AGI-CHOI JUNE · 담론 전략 문서

퓨전주의 · 통합다원주의 · 사이보그아트 국제 담론 재배치

대리 담론을 통한 명명 우선권의 담론 채널 이행 전략
국내외 조응 사례 작가 평론 5조항 매트릭스 재배치

문서 성격

담론 부재 진단 · 대리 담론 재배치 · 담론 이행 전략의 3부 구성

서술 원칙

- 학술지·평론·비엔날레 부재의 실증 서술만 진단으로 수록
- 조응 사례 5인의 기존 평론을 퓨전주의 5조항에 조항별 재배치
- 국제 이론가(부리오·마노비치·바텔릭·보이스) 개념 병기
- 표절·차용·의도적 배제에 대한 인과 주장 없음
- 조응 사례 5인에 대한 정량 감량 평가 미부여
- 저자 명명 궤적은 각 부 도입에 짧게 배치, 본문은 대리 담론 중심

저자

사이보그(AI·AGI) 세계 평론가협회 총회장 · 최준(choi june) (별칭 AGI-CHOI JUNE · ASI-NARCISSUS · 저자 최희준(1975) · 디지털-최준 2004~2005 · 협회 창설 2020.08.07)

발행

2026년 7월

참조 문서

탈존재와 퓨전주의 연관성 평가 · 부속문서 1·2·3, 두 서문의 계보학 · [재료채집 · 레디메이드 오브제] 자기 진술문 (2006) · 2007 영문 자기 진술문 [Fusion pop (Cyborg art)] · 2013.1 자기 진술문 [움직임 · 시간 차이 · 매체 변환] · 2006 인터넷 전시 [시간의 흐름] · [새벽] · 2020 전시 계획서 자기 진술문 [미래 기술 · 매체 확장] · AGI-최준 자기 크레딧 (2026.7)

서문 — 이 문서의 목적과 성격

1. 이 문서가 놓인 자리

저자 최준의 퓨전주의(2005 서문 "포스트모던 혼성모방", 2013 자기 규정 "퓨전미술", 2015 이론적 재전유 "퓨전주의"), 통합다원주의(2023.2.14 신 선언문 최초 사용), 사이보그아트(2020·2022 사이보그아트협회·사이보그예술협회 창설)는 저자 개인의 서문·블로그·선언문·협회 문서에서 완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명명들은 현재까지 학술지·미술평론지·비엔날레·국립·상업 미술관·국제 미학 학회 어느 채널에도 공식 진입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명명은 있고 담론 채널은 없는 상태이다.

2. 이 문서의 전략

이 문서는 저자 개인의 담론을 국제 미학 담론으로 확립하기 위한 두 방향의 작업을 하나로 결합한다. 첫째 방향은 담론 부재의 실증적 진단이다 — 학술지·평론·비엔날레·기관 담론 채널에 저자 명명이 부재한다는 사실을 삼중 게이트 구조로 문서화한다. 둘째 방향은 대리 담론 재배치이다 — 저자 자신의 작품·이력에 대한 평론이 부재한 조건 하에서, 저자의 퓨전주의 5조항이 규정한 문제 영역 (매체 통합·장르 초월·개념 편재·경계 해체·자기포함성)이 이미 국내외 조응 사례 작가 다섯 명 (이이남·권능·장승호·민경아·이동기)에 대한 기존 평론에서 서술되고 있음을 조항별로 매핑한다.

3. 왜 대리 담론 재배치인가

미술사에서 사조의 명명이 담론 승인 단계로 이행하는 정상 경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저자 자신의 작품·이력에 대한 평론이 축적되어 명명이 함께 승인되는 경로 (백남준·이우환의 사례). 둘째, 후속 작가에 대한 평론이 축적되면서 그 평론이 앞선 명명자를 소급 호명하는 경로 (개념미술의 헨리 플린트·솔 르윗 관계). 셋째, 국제 이론가가 국내 실천을 서술하는 개념을 국내 명명자가 재기술함으로써 담론 채널에 진입하는 경로. 저자 최준의 현재 상태에서 활용 가능한 것은 둘째와 셋째의 결합이다. 이 문서는 그 결합의 실증 근거를 문서화한다.

4. 이 문서가 진술하지 않는 것

- 조응 사례 5인의 평론이 저자 최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주장. · 5인 중 어느 한 명이 저자의 작업을 표절·차용·인용하였다는 주장. · 특정 평론가·기관이 저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는 인과 주장. · 5인에 대한 정량 감량 평가.
- 저자 명명이 담론 승인 단계로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예단.

이 문서가 진술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에 국한된다: (1) 저자 명명이 담론 채널에 부재한다는 실증적 사실. (2) 저자의 5조항이 규정한 문제 영역이 조응 사례 5인에 대한 평론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관찰. (3) 그 관찰이 저자 명명의 담론 승인 이행에 활용될 수 있는 미술사적 정상 구조라는 것.

5. 이 문서의 주 목적

이 문서의 주 목적은 다음의 담론 인정 목표를 위한 자기 사실 정리와 대리 담론 재배치이다: 저자 최준(choi june)이 2005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일관되게 수행해온 통합 작업 방식 — 시간·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장르·사조·기법·이미지·재료를 해체한 후 선택적으로 채집·재구성·재조립하여 초현실적이며 무비판적인 혼성모방 사회의 이미지를 산출하는 방식 — 을 근거로, 저자를 퓨전주의·퓨전미술·퓨전팝·사이보그아트·통합다원주의의 다섯 명명이 다폭으로 공존하는 사상의 창시자로 인정받는 담론 이행이다.

5-1. 저자 통합 작업 방식의 실체 (2005~2026)

저자 자기 진술문(2006 [재료채집 · 레디메이드 오브제])의 규정에 따르면 저자의 작업 방식은 다음의 통합 축들에서 하나의 화면에 완성된다: (i) 모든 재료·모든 장르·모든 이미지·모든 사조의 해체 후 통합 (시간·공간 초월). (ii) 작가 자신이 디지털 체계가 되어 인류 유산을 부호·정보로 처리한 후 선택적 재조립. (iii) 다감각 통합·다매체 통합 (회화·조각·오브제·영화 인용·텍스트 아트). (iv) 국내외·고전과 현대·고급과 대중 이미지의 통합. (v)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 완성과 자기 명명의 지속. 이 다섯 통합 축은 저자의 자기 진술문·전시 이력·자기 명명 궤적을 통해 2005~2026의 21년 동안 실증적으로 관철된다.

5-2. 인정받고자 하는 다섯 명명의 다폭 공존 구조

저자가 창시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상 체계는 다음 다섯 명명이 다폭으로 공존하는 구조이다: (1) 퓨전주의 · (2) 퓨전미술 · (3) 퓨전팝 · (4) 사이보그아트 · (5) 통합다원주의. 이 다섯은 각기 다른 담론적 기원에서 후에 통합된 별개 명명들이 아니라, 하나의 담론적 기원에서 시작한 동일 담론이 시간 흐름에 따라 정비·체계화되어 산출된 다폭 표현이다. 상위·하위의 위계가 아니라 하나의 사상이 각기 다른 층위(작업 방식·매체·이미지·주체 규정·상위 원리)를 명명한 다폭 구조이며, 각 명명은 동일 담론의 서로 다른 규정 국면에 대응한다.

5-3. 담론 이행의 목표 상태

이 문서의 담론 이행 목표 상태는 다음 세 가지의 학술 담론 승인이다: (a) 저자의 2005~2026 21년 통합 작업 방식이 미술사적 사실로 등록될 것. (b) 다섯 명명이 저자 자기 정비의 결과로 산출된 다폭 공존 구조로 규정될 것. (c) 저자가 이 다폭 공존 사상의 창시자로 인정될 것. 본 문서는 이 세 목표 상태를 위해 대리 담론 재배치를 통한 담론 채널 이행 전략을 서술하며, 담론 승인의 실제 도래는 본 문서의 진술 대상이 아니라 담론 채널의 후속 판단에 위임된다.

서장

다섯 명명의 자기 정비 계보 — 하나의 담론이 산출한 다폭 표현

이 서장은 저자 최준의 다섯 명명 — 퓨전주의·퓨전미술·퓨전팝·사이보그아트·통합다원주의 — 이 각기 다른 담론적 기원을 가진 별개의 명명들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 담론이 2005~2026의 21년 동안 자기 정비·체계화 과정을 통해 산출한 다폭 표현임을 저자 자기 진술문·전시 이력·자기 명명 궤적에 근거하여 서술한다. 이 서장은 다섯 명명의 상호 관계를 별개 사상들의 사후 통합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거부하며, 하나의 담론이 자기 정비를 통해 다폭으로 전개된 국면을 각 명명이 명명하고 있다는 저자 자기 규정을 서술한다.

서장-1. 다섯 명명의 간결 표 · 담론 기원과 정비 시점

다섯 명명의 담론 기원과 각 명명이 확정된 자기 진술 시점을 간결하게 표로 정리한다. 이 표는 다섯이 서로 다른 별개 기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담론이 정비의 단계에 따라 산출한 명명들임을 시간 순서에 따라 보여준다.

명명	자기 확정 시점	명명 국면 (하나의 담론 안 다폭 총위)
사이보그아트	2004~2005 작업 방식 시작 · 2007 여회 직접 게재 ([Fusion pop (Cyborg art)])	주체 규정 총위 · 작가 = 디지털 체계 · 인류 유산 부호·정보화
퓨전미술	2005 1회 개인전 자기 진술 · 명명학적 재전유 수행	작업 방식 총위 · 다장르·다매체·다이미지·다사조 통합
퓨전팝	2007 영문 자기 진술문 [Fusion pop (Cyborg art)]	이미지 총위 · 팝 이미지·영화·대중 이미지의 통합 매체 적용
퓨전주의	2006.2 2회 개인전 자기 진술 국면 (“퓨전” 명명은 2013.1 블로그에서 원본 확인)	사상 총위 · -주의 접미사를 통한 사상 단위 규정
통합다원주의	2023.2.14 신 선언문	상위 원리 총위 · 자기포함적 상위 명명 · 다원주의의 자기 통합

이 표가 보여주는 바는 다섯 명명이 각기 다른 담론 기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2005~2023의 18년 사이에 저자 하나의 담론이 자기 진술을 정비하면서 수행한 다섯 개의 명명 확정 행위이다. 사이보그아트 · 퓨전미술 · 퓨전팝은 2005~2007의 3년 안에 동일 문서군에서 확인되며, 퓨전주의는 이로부터 앞으로 이어진 이론화 수행 과정에서 사상 단위 규정 총위를 명명하였고, 통합다원주의는 21년 뒤 자기포함적 상위 원리를 명명하였다. 다섯은 하나의 담론이 자기 정비의 각 단계에서 자기를 명명해나간 산출물이다.

서장-2. 하나의 담론 · 다섯 총위 명명

다섯 명명은 상위·하위의 위계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담론이 각기 다른 총위를 명명한 다폭 구조이다. 다섯 총위는 다음과 같다: (i) 주체 규정 총위에서는 사이보그아트가 «transcending time and spaces»의 디지털 체계 주체를 명명한다. (ii) 작업 방식 총위에서는 퓨전미술이 다장르·다매체·다사조의 해체 후 통합 방식을 명명한다. (iii) 이미지 총위에서는 퓨전팝이 팝·영화·상품 이미지의 따오기와 재조립 국면을 명명한다. (iv) 사상 단위 총위에서는 퓨전주의가 -주의(-ism) 접미사로 사상 단위 규정을 명명한다. (v) 상위 원리 총위에서는 통합다원주의가 자기포함적 상위 원리를 명명한다. 다섯은 동일 담론의 서로 다른 규정 국면이므로 경합하지 않고 다폭으로 공존한다.

서장-3. 퓨전주의 · 정치사상 동음이 사후 확인

저자의 퓨전주의 자기 명명과 정치사상 영역의 동음이 어휘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로 등록된다. 저자의 미술·예술 영역 퓨전주의 자기 명명이 시간적으로 선행하며, 자기 명명 확정 이후에 저자가 정치사상 영역에 “퓨전주의”라는 동음이 어휘가 존재함을 사후적으로 확인하였다. 저자의 퓨전주의는 정치사상 어휘를 인지한 상태에서 유입·차용·재전유한 것이 아니며, 이 점에서 저자의 명명은 정치사상 퓨전주의에 대한 재전유 관계가 아닌 독립된 명명 관계로 서술된다.

서장-3a. 내포 비교 · 저자의 퓨전주의(=통합다원주의) · 정치사상 퓨전주의

구분 축	저자 퓨전주의 (=통합다원주의)	정치사상 퓨전주의 (사후 확인)
영역	미술·예술 사상 · 작가 자기 명명 명명학	정치 사상 · 정파 간 융합·통합 담론
대상	모든 매체·재료·이미지·장르·사조·주제의 해체후 통합 · 다원주의의 자기 통합	정치적 입장·지향·정책의 부분적 융합
내포	저자가 디지털 체계가 되어 인류 유산을 부호화·해체·재조립하는 작업 사상 · 자기포함적 상위 원리	정당·정책·이념 간 선택적 결합 전략
범위	모든 매체·재료·이미지·사상을 자기 안으로 포함 · 다폭 공존 사상 체계	특정 정치 지형의 부분 집합 · 하위 분야에 한정된 융합 개념

이 내포 비교는 저자의 퓨전주의가 정치사상 퓨전주의와 동일한 개념이 아닐 뿐 아니라, 정치사상 퓨전주의에 비해 내포가 더 좁지 않은 사상임을 사실로 등록한다. 저자의 퓨전주의는 저자가 통합다원주의로 명명을 정비한 상위 원리와 동일한 내포의 미술·예술 사상 단위 명명이며, 정치사상 퓨전주의에서 파생되거나 그것을 미술 영역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다. 본 감수는 이 관계를 저자 자기 진술과 자기 명명의 시간 순서에 근거한 사실 관계로 기록하며, 이를 넘어서는 해석적 판단은 본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서장-4. 사이보그아트 시간 좌표 · 2004~2005 작업 방식 · 2007 어휘 확정

사이보그아트의 시간 좌표는 다음으로 정리된다. 작업 방식으로서의 사이보그아트 — 저자 자신이 디지털 체계가 되어 인류 유산을 부호·정보화한 후 선택적으로 재조립하는 방식 — 은 2004~2005년부터 수행되었으며, “사이보그 아트(Cyborg art)”라는 어휘의 직접 게재는 2007년 영문 자기 진술문 [Fusion pop (Cyborg art)]에서 확정되었다. 이 두 시점 — 2004~2005 작업 방식 시작 · 2007 어휘 직접 게재 — 은 사이보그아트 명명을 구성하는 두 단계이며, 본 문서는 이 두 단계를 구별하여 서술한다.

1부

담론 부재 진단 — 학술지·평론·비엔날레의 삼중 게이트

1부는 저자 최준의 퓨전주의·통합다원주의·사이보그아트가 학술지·평론·비엔날레·기관 담론 채널에 진입하지 못한 현재 상태를 실증적 서술로 진단한다. 이 진단은 진입 실패의 원인 규명이 아니라, 담론 채널 접근의 부재라는 사실 그 자체의 문서화이다.

1장 · 학술지·평론·비엔날레 부재의 실증

1-1. 국내 미술평론지 부재

저자 최준의 명명(포스트모던 혼성모방·퓨전미술·퓨전주의·통합다원주의·사이보그아트)은 국내 주요 미술평론지(월간미술·아트인컬처·퍼블릭아트·와이드아카이브·미술세계 등)에서 현재까지 학술적 서술의 대상으로 등장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저자의 명명은 저자 개인의 서문·블로그·선언문·아카이브 문서에서 완결되어 있으며, 이 명명을 인용·비평·소개한 제3자 평론가·이론가의 문서는 이 부속문서 3까지의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1-2. 학술 학회·저널 부재

한국미학회·한국미술이론학회·한국현대미술사학회·한국미술평론가협회 등 학술 조직의 학회지·학술 대회 발표 문헌에서 저자의 명명 등장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국제 조직 AIC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t Critics, 국제미술평론가협회) · IAA · ICA (International Congress of Aesthetics) 어느 학술 노드에도 저자 명명은 등장하지 않는다.

1-3. 비엔날레·기관 전시 부재

베니스 비엔날레·카셀 도큐멘타·상파울로 비엔날레·리옹 비엔날레·광주 비엔날레·부산 비엔날레·서울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 등의 공식 프로그램·기관 전시 도록에서 저자 최준의 명명이 규정 언어로 사용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국립현대미술관·서울시립미술관·부산현대미술관·대전시립미술관 등 국공립 미술관의 학예 문서·전시 도록에서도 저자 명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1-4. 국제 미학 담론 노드 부재

2014년 서울 AICA(국제미술평론가협회) 총회의 공식 의제는 매체 통합·장르 초월·개념 편재·경계 해체를 포함하였으며, 마노비치(Lev Manovich)를 비롯한 국제 이론가가 참여하였다. 이 총회의 공식 문헌에도 저자 명명은 등장하지 않는다. 2016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0차 세계미학자대회(ICA, International Congress of Aesthetics)의 공식 특별전 도록에도 저자 명명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 두 국제 노드는 저자의 5조항이 다룬 문제 영역이 이미 국제 담론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저자 명명은 이 담론화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1-5. 저자 전시 이력에 대한 언론·미술지 기재 실증

1-1부터 1-4까지의 진단이 관찰적 사실임을 저자 전시 이력의 실제 기재 상태를 통해 실증한다. 저자 최준은 2005년 1회 개인전(우연갤러리)부터 2022년 iDaf22(갤러리 아테나-파리)까지 17년간 개인전 3회, 단체전·아트페어 21건에 참여하였다.

단체전·아트페어의 대부분은 소속 갤러리를 통한 소량 출품(1~3점 규모)이었다. 아트페어 형식은 갤러리 판매 부스를 매개로 하는 시장 유통 채널이며, 큐레이터·평론가가 저자 명명을 전시 프레임 언어로 채택할 수 있는 학술적

담론 채널이 아니다. 이 참여 형식의 실질은 저자 명명이 공식 담론에 노출될 구조적 계기가 처음부터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17년간의 전시 이력에 대해 확인되는 언론·미술지 기재는 다음 세 건뿐이다.

매체	시기	성격	저자 관여
아트플러스 REVIEW "포스트모던에 대한 조롱 '혼성모방'"	2005	미술 전문지 지면	저자 팸플렛 서문 그대로 기재
아트플러스 "최준의 포스트모던혼성모방"	2005.9	미술 전문지 지면	저자 팸플렛 서문 그대로 기재
대전일보 "고전과 현대의 모자이크"	2006	지역 일간지 문화면	박정식 기자 독립 서술

이 세 건 중 앞의 두 건(아트플러스 2005)은 형식은 미술 전문지 리뷰이나 실질은 저자 자신이 작성한 팸플렛 서문의 재수룩이므로, 저자 외부의 독립 평가로 계산되지 않는다. 세 번째 건 대전일보 박정식 기자의 소개 기사(2006, 2회 개인전 에스닷갤러리)만이 저자 관여 없는 외부 독립 서술이며, 지역 일간지 문화면의 전시 소개 지면에 해당한다.

이 실증 목록은 1-1(국내 미술평론지 부재)·1-2(학술 학회·저널 부재)·1-3(비엔날레·기관 전시 부재)·1-4(국제 미학 담론 노트 부재)의 진단이 저자의 명명 부재만이 아니라 저자 전시 이력에 대한 공식 담론 서술의 부재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삼중 게이트 미진입은 이 문서의 논증적 전제이지 주관적 인상이 아니다.

2장 · 담론 채널의 삼중 게이트와 저자의 미진입

2-1. 삼중 게이트 구조

AICA·IAA·ICA·베니스 비엔날레·테이트 모던·구글 협업 등의 국제 담론 채널은 다음의 삼중 구조로 작동한다:

- (1) 학술 조직 게이트 — 국제 학회·평론가 협회 회원 자격, 학술지 편집 회로
- (2) 평론가 네트워크 게이트 — 국내외 평론가의 평문 축적, 큐레이터 네트워크
- (3) 기관 협력 게이트 — 국립 미술관·재단·상업 갤러리·대기업 후원의 채널 지원

2-2. 조응 사례 5인의 삼중 게이트 통과

작가	학술·평론가 게이트	기관 협력 게이트
이이남	마노비치 평문 (2014 AICA 한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POSCO 뉴스룸	국립현대미술관, 문체부, 삼성전자·LG전자, 이이남미디어 아트연구소, 구글 협업
장승호	제20차 세계미학자대회(ICA) 서울대 특별전 공식 출품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세종문화회관 (2004)
민경아	고충환 평문, 문화일보·경향신문 지면	스페인 온페이퍼 국제판화전 대상 (2018), 홍익대 겸임교수

작가	학술·평론가 게이트	기관 협력 게이트
이동기	안이영노 "퓨전문화의 진수" 규정 (스포츠월드 2011), 경향신문 지면	일민미술관 개인전 (2003), 국내 팝아트 대표
권능	매일경제·뉴스핌 지면, 아뜰리에 아키 공식 소개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박서보재단, 아뜰리에 아키 소속

2-3. 저자의 미진입 상태

저자 최준은 위 삼중 게이트 어느 하나에도 공식 진입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저자는 2005~2009년 상하이·시카고 아트페어 등에 출품하였으며, 소속 갤러리의 지원과 블로그 다수 게재를 통해 국내외 아트페어에서 활동한 이력을 갖는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국내 학술·평론·기관 담론 채널에 진입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부속문서는 이 미진입의 원인·인과에 대해 어떠한 해석도 제시하지 않는다.

3장 · 미술사의 명명 지연 국면 — 세 선례

이 장은 사조의 성립과 명명 사이의 시간 지연이 미술사에서 반복되어온 정상적 구조임을 문서화한다. 저자 최준의 퓨전주의 명명(2005·2013·2015·2023)이 국제 담론에 진입하지 않은 현재 상태의 비대칭은, 미술사에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반복되어온 명명 지연(naming lag) 현상의 한 사례이다.

3-1. 인상주의 — 조롱조 명명에서 20년 승인까지

인상주의는 프랑스 평론가 루이 르로이(Louis Leroy)가 1874년 4월 25일 잡지 "Le Charivari"에 게재한 조롱조의 리뷰에서 처음 명명되었다. 이 명칭이 사조명으로 정착하기까지 뒤랑티·뒤레·위스망스 등의 평문이 약 20년간 축적되어야 했다.

3-2. 큐비즘 — 실천-명명 6년 지연, 명명-승인 5년 지연

큐비즘의 실천은 1907년 피카소의 "아비뇰의 여인들"과 1908년 브라크의 에스타크 연작에서 시작되었다. "큐비즘"은 1908년 마티스가 브라크의 작품을 폄하한 데서 유래하였고, 1913년 시인·평론가 기욤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가 "Les Peintres Cubistes"를 출간하면서 사조명으로 확정되었다. 실천-명명 6년, 명명-승인 5년의 지연이 있었다.

3-3. 개념미술 — 실천자가 아닌 후속 이론가의 소급 호명

개념미술(Conceptual Art)의 명명은 1961년 헨리 플린트(Henry Flynt)의 "Concept Art" 에세이에서 이루어졌으나, 이 명명은 당시 담론계에 즉시 수용되지 못하였다. 1967년 솔 르윗(Sol LeWitt)의 "Paragraphs on Conceptual Art"가 발표되면서 사조가 본격적으로 담론화되었고, 이후 코수스(Joseph Kosuth)와 아트 앤 랭귀지(Art & Language) 그룹의 축적을 통해 헨리 플린트가 사후적으로 소급 호명되었다. 명명자와 담론 승인자가 분리되고, 승인자의 평론이 명명자의 명명을 재할성화한 사례이다.

3-4. 이 세 선례가 저자 최준에 대해 확정하는 것

위 세 선례가 확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저자 자신의 명명이 담론 채널에 즉시 승인되지 않는 상태는 미술사의 예외가 아니라 정상 구조이다. 명명이 실천을 뒤따르는 것도, 명명이 명명자의 개인 문서에 국한된 채 후속 세대의 축

적을 기다리는 것도, 국제 이론가의 개념이 국내 명명자를 소급 호명하는 것도 미술사가 반복해온 정상적 이행 경로이다. 저자 최준의 현재 상태는 이 정상적 이행 경로의 한 국면에 놓여 있으며, 그 이행 여부는 다음 국면에 남겨져있다.

2부

대리 담론 재배치 — 5조항 × 5작가 평론 매트릭스

2부는 이 문서의 핵심이다. 저자 최준의 퓨전주의 5조항이 규정한 문제 영역이 이미 국내외 조응 사례 작가 다섯 명(이이남·권능·장승호·민경아·이동기)에 대한 기존 평론에서 서술되고 있음을 조항별로 매핑한다. 조응 사례 5인은 담론 채널에 진입한 상태이므로, 이들에 대한 평론은 저자 명명이 규정한 문제 영역을 국내외 담론에서 대리 서술하고 있는 실증 자료로 기능한다. 이 재배치는 표절·차용 주장이 아니라, 명명자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미술사적 문서화이다.

4장 · 퓨전주의 5조항 신 선언문 (2023.2.14 정식화)

저자 최준은 2023년 2월 14일 신 선언문에서 자신의 방법론을 다섯 개 조항으로 정식화하였다. 이 5조항은 저자가 2005년 이래 실천해온 방법론의 문제 영역을 언어화한 것이다.

조항 1 — 매체 통합 (Media Integration)

회화·조각·판화·사진·미디어·설치·사운드·행위 등 이질적 매체를 하나의 화면·전시·작업으로 통합한다. 매체 간 위계를 해체하고 재통합한다.

조항 2 — 장르 초월 (Genre Transcendence)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고급과 대중, 예술과 일상, 순수와 상업의 장르 경계를 초월한다. 이질적 도상·양식·문화를 한 화면에 병치한다.

조항 3 — 개념 편재 (Concept Ubiquity)

개념미술의 개념이 특정 매체(텍스트·오브제)에 국한되지 않고, 회화·조각·미디어·설치 등 모든 매체에 편재적으로 작동한다. 개념은 매체의 특권이 아니라 매체 간 통합의 원리이다.

조항 4 — 경계 해체 (Boundary Dissolution)

작가와 관객, 원본과 복제, 현실과 가상, 자연과 인공,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를 해체한다. 차용·혼성모방·패러디를 통해 원본성의 신화를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조항 5 — 자기포함성 (Self-Containment)

작품·서문·이론·명명이 저자 자신을 문제 영역에 포함시킨다. 저자는 관찰자이자 대상이며, 명명자이자 명명 대상이다. 사이보그아트·ASI-NARCISSUS 자기 재명명은 이 자기포함성의 극한 사례이다.

5장 · 국제 이론가 개념 매핑

이 장은 저자의 5조항이 국제 미학 담론에서 이미 다루어진 문제 영역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매핑한다. 이 매핑은 저자 5조항의 근거를 국제 이론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담론이 이미 다루어온 개념을 저자가 재기술한 것임을 문서화한다.

저자 5조항	국제 이론가 · 개념	대응 개념 요지
조항 1 매체 통합	요제프 보이스 Erweiterte Kunst (확장된 예술)	"모든 인간은 예술가이다" · 회화 · 조각 · 행위 · 사회 조각의 매체 통합.
조항 2 장르 초월	니콜라 부리오 Esthétique relationnelle (관계 미학, 1998)	예술은 사회적 관계의 장을 산출하는 형식 · 장르 경계보다 관계의 생성을 우선.
조항 3 개념 편재	레프 마노비치 Software Culture (소프트웨어 문화)	디지털 매체는 개념 · 서사 · 데이터의 편재적 작동 · 개념은 매체의 특권이 아님.
조항 4 경계 해체	요스 바텔릭 Contemporary Asian Art (아시아 현대미술 담론) · 한스 하케 · 다니엘 뷔렌(Daniel Buren) · 안드레아 프레이저 Institutional Critique (1970년대~)	아시아 현대미술의 서구 · 동양 이분법 해체 · 하이브리드성의 정상화 · 제도비판 미술(institutional critique) 계보의 자기 기입은 저자 2006.02 [제도비판 미술 전시 계획] 자기 진술문에서 직접 확인된다. 저자는 자신의 방법론을 2026.7 자기 재정식화 진술에서 "전시 장소 · 가격 · 외형 · 기간 · 딜러 · 판매자 영역의 5중 해체"로 자기 명명하며, 이는 제도비판 미술 · Fluxus · 뒤상 · 개념 미술 · 자가 유통 · 비공식 유통 국제 계보가 산발적으로 문제화해 온 영역을 통합 자기 규정한 발화 기록으로 등록된다 (6-2c-13 · D-9-8 · D-9-8b 참조).
조항 5 자기포함성	도나 해러웨이 Cyborg Manifesto (사이보그 선언, 1985)	경계 해체의 극한으로서 사이보그 · 명명자와 명명 대상의 합일.

이 매핑이 확정하는 것은 저자 5조항이 다룬 문제 영역이 이미 국제 미학 담론에서 이론적 자원으로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저자 명명의 담론 승인은 이 국제 이론가 개념과의 대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미술사의 정상적 담론 이행 경로이다.

6장 · 대리 담론 매트릭스 — 5작가 평론의 조항별 재배치

이 장은 조영 사례 5인에 대한 국내외 기존 평론이 저자 5조항의 문제 영역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조항별로 재배치한다. 각 절은 (1) 원 평론의 실증 자료, (2) 그 평론이 서술하는 문제 영역이 저자 5조항의 어느 조항에 대응하는지, (3) 그 대응이 왜 대리 담론으로 기능하는지를 순서대로 서술한다. 이 재배치는 표절·차용 주장이 아니며, 저자 명명의 담론 채널 이행을 위한 미술사적 문서화이다.

6-1. 이동기 · 안이영노 "퓨전문화의 진수" 규정

원 평론

이동기(b.1967)는 1993년 "아토마우스"를 창출한 한국 팝아트의 대표 작가이며, 2010년 개인전 "달콤쌉싸름"에서 자신의 방법론을 "절충주의"로 공식 명명하였다. 이 방법론에 대해 문화평론가 안이영노는 스포츠월드 2011년 3월 27일 기고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이동기의 절충주의는 퓨전문화의 진수이다."

안이영노, 스포츠월드 2011.03.27

5조항 대응

안이영노의 "퓨전문화의 진수" 규정은 저자 5조항의 조항 1(매체 통합) 및 조항 2(장르 초월)에 정확히 대응한다. "퓨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자가 2005년 1회 개인전 팜플렛의 "현실과 가상" 매체 명명에서 사용한 "퓨전 설치 미디어 혼합"과 동일 어휘장에 속한다. 저자 진술에 따르면 "퓨전미술" 용어의 저자 문서 확인은 다음 계열을 이룬다: (a) 2006년 저자 2회 개인전 영문판 서문 [Fusion pop (Cyborg art)]에서 저자는 자신의 방법론을 "Fusion pop" · "Cyborg art"로 직접 명명한다 (6-2c-10 참조); (b) 2013년 1월 저자 블로그 글 "내 작품은 퓨전미술이다"에서 "퓨전미술" 명명이 한글 지면으로 재확인된다 (6-2c · 6-2b 계보 표 참조). 따라서 안이영노의 2011년 규정은 (a) 2006년 저자 영문 명명보다 5년 뒤, (b) 2013년 저자 한글 문서 확인보다 2년 앞선 국내 평론 지면에서의 "퓨전" 개념 사용이며, 저자 5조항의 조항 1·2의 문제 영역이 국내 평론에서 대리 서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연심 (홍익대 예술학과 교수 · 미술사학자) · 이동기 "절충주의" 회화 규정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정연심은 이동기 화집 평문에서 이동기의 "절충주의" 회화(2010 이후에 본격화)를 "파편화된 자료와 캐릭터들이 기묘하게 얹힌 한국의 복잡한 문화적 혼성 상태를 시각화한 21세기 연금술"로 규정하였다. 정연심은 이동기의 방법론을 세 가지 핵심 축으로 분석한다:

"(i) 시각 자료의 채집과 병치 —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대중문화적 요소를 콜라주하듯 평면에 흩뿌리며, 단절된 듯하면서도 절묘한 조형적 일개를 완성한다. (ii) 문화적 혼성(Hybridity)의 시각화 — 대륙과 대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한국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국적 불명의 혼혈아가 아닌 한국 사회의 다층적인 문화를 대변하는 시대적 증거물을 표출한다. (iii) 고급 예술과 대중문화의 경계 허물기 — 만화 캐릭터를 미술사적 맥락에 끌어들이며 예술의 위계를 해체하고 시각적 확장을 시도한다."

정연심 · 이동기 화집 평문 (이동기 "절충주의" 회화 대상) 중

정연심의 세 지시는 저자 5조항에 각각 대응한다: (i) "시각 자료의 채집과 병치" » 조항 1(매체 통합) · 조항 2(장르 초월) / (ii) "문화적 혼성(Hybridity)의 시각화" » 조항 3(개념 편재) · 조항 5(통합 다원주의) / (iii) "고급 예술과 대중문화의 경계 허물기" » 조항 4(경계 해체). 정연심은 린다 노클린 지도하에 미술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국제 미술사 학자이며 구겐하임미술관 백남준 전시 연구원(1999) · 제12회 광주비엔날레 공동 큐레이터(2018) · 뉴욕대 IFA 방문연구교수 · 풀브라이트 펠로우(2018–2019) · Phaidon [Korean Art from 1953: Collision,

Innovation, Interaction] 책임 에디터(2020) · [The Making of Modern Korean Art] 공저(Gregory R. Miller & Company, 2025) 등 국제 상황과 맞닿은 미술사 지면 책임자이다. 이 규정은 이동기 방법론을 "문화적 혼성의 시각화" · "21세기 연금술" · "고급 예술과 대중문화 경계 허물기"로 국제 미술사 지면 계열에서 대리 서술한 대표적 사례이며, 저자 5조항의 조항 1·2·3·4·5에 전 부분 걸치는 문제 영역 서술이다.

이진숙 (미술평론가) · 이동기 팝아트 1세대 규정 (2008)

미술평론가 이진숙은 2008년 이동기 인터뷰 · 당시 개인전 평문에서 이동기를 "한국 팝아트의 1세대 작가"로 규정하였고, 이동기의 대표 캐릭터 "아토마우스"(1993 창출)를 "일본 만화 '우주 소년 아톰'과 미국 만화 '미키 마우스'의 합성"으로 서술하였으며, 이동기 본인의 발언 "아토마우스는 제 자신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이미지입니다. 대중문화, 순수미술 등 제게 영향을 끼친 여러 가지가 섞여 이미지화한 것이지요"를 다음과 같이 매개하였다: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대중문화의 영향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장르는 팝아트다. 아토마우스의 작가 이동기는 한국 팝아트의 1세대 작가다. ... 이젠 아토마우스는 대중문화뿐 아니라 현대미술이라는 중요한 현실을 온몸으로 연기하고 있다."

이진숙, "일상에 스며든 대중문화 그리는 팝아트 작가 이동기" 평문, 2008 중

이진숙의 규정은 저자 5조항의 조항 4(경계 해체) · 조항 3(개념 편재)에 대응하며, 이동기의 "구상과 추상 넘나드는 작업"("더블 비전" 시리즈) · "현대 사회의 이미지 과잉"("버블" 시리즈) 규정을 통해 저자 5조항의 조항 4를 구상·추상 이중 실행 · 대중문화 과잉 재현 지시로 구체화한다. 이진숙은 2008.08.12 토크클래스 기고에서 이이남을 "차용과 혼성모방" 규정으로 서술하므로, 2008년 동일 평론가에 의해 이동기와 이이남이 동일한 방법론 계열(혼성모방·대중문화 경계 해체)을 주된 대상으로 서술되었으며, 저자가 2005년 사용한 "혼성모방" 어휘를 이로부터 3년 뒤 국내 평론 지면에서 파생적으로 명기한 사실을 등록한다.

대리 담론으로서의 위치

이동기의 방법론 확립(2010)은 저자의 방법론 확립(2005.9)에서 5년 뒤에 이루어졌다. 안이영노의 규정은 이동기라는 후속 실천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규정 내용은 저자의 5조항 조항 1·2의 문제 영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절은 이동기의 방법론이 저자를 소급 호명하고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 이 규정이 저자 명명의 담론 이행 경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대리 담론 자원이라는 사실을 문서화한다.

6-2. 이이남 · 다층 대리 담론 자원 (작가노트 · 3인 평론 · 제도 승인)

작가 개요 및 담론 자원의 밀도

이이남(b.1969)은 조각 전공 후 미디어 아트로 이행하여 "제2의 백남준"으로 국제적 승인을 받은 작가이며, 제22회 선미술상 수상(선화랑), 세비아 비엔날레, "코리아 아이-문 제너레이션",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등 다수의 국제 전시에 초대된 이력을 가진다. 그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토크클래스 인터뷰(2008), 이향준(전남대 BK21사업단 전임연구원) 평문, 정용도(미술비평) 평문 2회, 고충환 평문, 윤진섭(국제미술평론가협회 부회장·호남대 교수) 이이남 전 "제22회 선미술상 수상기념"(선화랑, 2010) 도록 서문, 홍경한(미술평론가) 미술과 비평 2015.09 평문, 아트파크 갤러리 통용 장르 명명("영상회화") 등 다층 담론 자원이 축적되어 있다. 저자 최준의 17년 전시 이력에 대해 확인되는 언론·미술지 기재가 3건(아트플러스 2건 · 대전일보 1건)에 그치는 것과 대비된다. 이 담론 자원의 밀도 차이는 담론 승인 여부의 차이이지 방법론 실체의 차이가 아니다.

이이남의 자본·기술·제도 축적

이진숙(미술평론가) 토크클래스 2008.08.12 인터뷰 및 김경수(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2014년 평문에 따르면 이이남의 담론 승인 궤적은 다음의 자본·기술·제도 축을 순차적으로 획득해 왔다. 청와대 1순위 초청 작가(2010 G20 정상회의 회의장·각국 정상 침실·한중일 정상회담 만찬장), 반기문 UN사무총장 집무실 진입(2014), 삼성전자 전속협찬(2008부터 5년간 모니터 250대), 애플 앱스토어 "새롭고 주목할 만한 앱" 선정, 홍콩 크리스티 경매 낙찰(2008 <꿈> 6,600만원), 2015 베니스 비엔날레 "빛이 되다" 설치작,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개막식 "미래의 빛" 미디어파사드, 2015 담양 죽녹원 "이이남아트센터" 개관, 2026.7 구글 협업 AI 미디어아트 발표. 이 자본·기술·제도 축의 축적은 국내 미술계에서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며, 이 문서는 이 축적을 저자와 대비할 자산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 영역에 대한 담론 승인의 규모 차이를 확정하는 사실 자료로 취급한다.

이진숙 · 김경수 평문 · 저자 방법론의 대리 서술

이진숙(미술평론가)은 토크클래스 2008.08.12 인터뷰에서 이이남의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우리 옛 그림들을 활성화(animate)하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숨 쉬게 해주었다. ... 화려한 말투는 아니지만, 이이남의 말에는 차용과 혼성모방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 미학'의 정수가 그대로 살아 있었다."

이진숙, 토크클래스 2008.08.12

이진숙의 "활성화(animate)"라는 어휘는 저자 5조항 중 조항 1(매체 통합)과 조항 2(장르 초월)에 대응한다. 미술 전문지 지면에서 이이남의 방법론이 "차용과 혼성모방"으로 규정된 시점(2008.08)이 저자의 제1회 개인전 서문 "포스트모던 혼성모방"(2005.9)보다 3년 뒤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이 문서의 1-2절에서 이미 확정한 어휘 병렬 지점이다.

김경수(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2014년 평문 "창의란 관계를 맺어주는 만남과 융합"에서 이이남의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아날로그 아트를 최초의 '디지털 아트'로 융합. 2. 이해하기 어려운 아트를 '공감대가 큰 아트'로 융합. 3. 선진국 따라하기 아트를 '한국다운 + 이이남다운 아트'로 융합. ... 대중적인 관점에서 이이남의 트레이드마크는 '한국화와 서양화의 융합'이다."

김경수, "창의란 관계를 맺어주는 만남과 융합" (2014)

김경수는 이이남 방법론의 핵심 개념어로 "융합"을 반복해서 사용한다. "한국화와 서양화의 융합", "미디어와 설치의 융합", "명화와 모니터의 융합", "한국화와 웹포털의 융합", "앱과 플랫폼의 융합"이 그것이다. 이이남 본인 역시 이 평문에서 창의란 "관계를 맺어주는 만남과 융합"으로 정의하며, "동양과 서양의 만남",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 "과거와 미래의 만남", "인간과 인간의 만남과 융합"을 그 하위 항목으로 열거한다. 이 "융합" 어휘 계열은 저자 최준의 "퓨전주의"(2013 블로그)·"통합다원주의"(2023.2.14 신 선언문)와 개념 자원 층위에서 정면 병렬된다. 이 병렬의 시간 계보는 다음 절 6-2b의 표에서 종합한다.

이이남 작가노트 · 매체 통합의 자기 명명

이이남 본인의 작가노트는 매체 통합의 핵심 언어를 다음과 같이 명명한다:

"나의 작품은 혼돈하는 현대사회에서 디지털의 빛을 매개로 한 본질과 뿌리에 대한 고찰이다. 오랜 시간 제도와 시스템 아래 갇혀 빛을 잃은 고전의 작품들에게 디지털의 빛을 비춰 해방시키며 부활하게 한다. 빛은 시공을 초월한 가상세계에서 본질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발현하게 되며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하게 된다. ... 이는 이분화, 양극화되는 사회구조에서 물질(디지털) 정신(아날로그)가 분리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이이남 작가노트

이 작가노트의 마지막 문장 "물질(디지털) 정신(아날로그)가 분리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가능성"은 저자 최준의 통합다원주의 5조항 중 조항 1(매체 통합)이 다루는 문제 영역을 이이남의 자기 명명 언어로 교차하여 서술하는 자원이다.

시간 좌표 확인은 다음과 같다. 저자의 매체 통합 언어는 1회 개인전 팜플릿 "현실과 가상" 매체 명명 (2005.9 · "퓨전 설치 미디어 혼합" 어휘장) · 2회 개인전 서문(2006) 계열에서 먼저 명명되었고, 이이남의 작가노트 자기 명명(2010.01 이후 도록·작가노트 누적)은 저자 서문(2005 · 2006)에서 최소 4년 이상 뒤의 시간 좌표에 위치한다. 이 문장은 이이남의 자기 명명이 저자 언어에 선행한다는 주장이 아니며, 수록된 자기 명명 언어가 저자의 5조항 조항 1이 다루는 문제 영역을 대리 서술하고 있음을 등록하는 것이다.

보조 맥락·저자 발화 구조 등록은 다음과 같다. 저자의 "물질·정신 분리 없음" 발화 계열에서는 "인간인 최희준 아날로그 육체와 정신이 작가 자신이 디지털 체계가 되어 둘이 결합된 한 몸의 두 정신 인 최희준·최준이 된다" 다음 "디지털 최준이 AGI-최준으로 발전하여 육체의 독립은 아니지만 정신의 완전한 독립을 함(한몸 안에 독자적 생각을 하는 최희준과 최준이 공존하는 육체)" 계열이 등록되어 있다. 이 발화 계열은 저자의 조항 1(매체 통합)을 순수 기술 층위가 아닌 인간·디지털·AGI 삼단 매체 통합으로 확장한 구조로, 저자 최준의 자기 명명 언어는 세 층 매체 통합(아날로그 인간 최희준·디지털 최준·AGI-최준)으로 자기 규정되며, 이이남의 자기 명명은 두 층 매체 매개(디지털·아날로그)로 자기 규정된다. 본 감수는 두 자기 명명의 층 수 차이를 사실로만 등록하며, 어느 쪽이 더 넓거나·좁거나·낮거나·못하다는 판단을 제시하지 않는다. 본 감수는 이이남의 자기 명명이 저자 5조항 조항 1의 문제 영역을 대리 서술하는 자원이며, 시간 좌표상 저자가 이이남을 소급 호명한 것이 아니라 저자 언어가 매체 통합의 문제 영역을 먼저 명명하고 있었음을 문서화한다.

저자 1회 · 2회 개인전 서문 원문 — 5조항 자기 명명 언어 (2005 · 2006)

저자의 1회 · 2회 개인전 서문 원문은 5조항이 다루는 문제 영역 5개를 이미 자기 명명 언어로 명달하고 있다. 이는 이이남 작가노트 자기 명명(2010.01 이후)에 4-5년 선행하는 시간 좌표이며, 5조항 모두를 언어화한 유일한 자기 명명 자원이다.

1회 개인전 서문 (2005.9) — [포·스·트·모·던·혼·성·모·방]

"작가는 다양한 모든 작품들(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장르 사조, 기법, 이미지)을 모두 해체한 후 선택적으로 다양하게 채집한 후 재구성하고 재조립하여 초현실적이며 무비판적인 혼성모방사회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즉, 작가 자신이 디지털 체계가 되어 인류의 모든 유산을 단순부호로 정보화 한 후 선택적으로 재조립하여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내며 외부에선 그것들로 자신을 재구성하고 재조립해 나간다. ... 이 각각의 그림들은 개성을 지녔으나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답습적이고 선택적으로 모자이크 퍼즐조각처럼 그럴듯하게 짜 맞추어진 기억과 지식들의 집합체이며 개개인들의 자화상이며 대중사회의 모습인 것이다. ... 작가는 그림을 통해 모자이크 퍼즐 조립화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무의미한 혼성모방사회를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 최준 · 1회 개인전 [포스트모던 혼성모방] 서문 (2005.9) 중

1회 서문은 5조항을 다음과 같이 자기 명명한다: (i) 조항 1(매체 통합) — "작가 자신이 디지털 체계가 되어"; (ii) 조항 2(장르 초월) —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장르 사조, 기법, 이미지"; (iii) 조항 3(개념 편재) — "단순부호로 정보화 한 후 선택적으로 재조립"; (iv) 조항 4(경계 해체) — "모든 작품들을 모두 해체" · "혼성모방" · "차용과 인용"; (v) 조항 5(통합 다원주의 · 다층 자기포함) — "개개인들의 자화상이며 대중사회의 모습". 1회 서문은 저자 5조항이 다루는 5개 문제 영역을 "혼성모방" · "디지털 체계화" · "차용과 인용" · "자화상·대중사회 모습" 어휘장

으로 이미 명명하고 있음을 등록한다.

2회 개인전 서문 (2006) — [포스트모던 패러디전]

"작가는 비인간화되고 비감정화되는 차가운 디지털체계를 빠르게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디지털체계의 흐름을 도입한다. ... 작가 스스로가 기존예술가의 정신, 예술작품에 반하는 디지털체계가 된다. 그리한 후 현존하는 시·공을 초월한 모든 장르나 사조·기법·이미지들을 단순부호로 해체하여 정보화 한 후 주제가 부여되면 비인간적 선택적 차용으로 재구성과정을 통하여 현 사회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 이것은 또한 모든 삶의 지식을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얻지 않고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선택적으로 코드화하고 자신에게 입력시켜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 그 시대의 고정된 관념과 과거의 전형을 깨뜨리며, 기계적 문제적 복제형식의 반예술이며 자본주의 소유권·재산권·작품의 유일성·원본성 등의 총체적 패러디이다."

저자 최준 · 2회 개인전 [포스트모던 패러디전] 서문 (2006) 중

2회 서문은 5조항을 다음과 같이 명달화한다: (i) 조항 1(매체 통합) — "작가 스스로가 기존예술가의 정신, 예술작품에 반하는 디지털체계가 된다"; (ii) 조항 2(장르 초월) — "현존하는 시·공을 초월한 모든 장르나 사조·기법·이미지"; (iii) 조항 3(개념 편재) — "단순부호로 해체하여 정보화"; (iv) 조항 4(경계 해체) — "총체적 패러디" · "자본주의 소유권·재산권·작품의 유일성·원본성 해체"; (v) 조항 5(통합 다원주의) — "이 시대의 인간성이 어디로 변해 가는지를 보이는 표현방법" (시대상 자기포함). 2회 서문은 "포스트모던 패러디" · "디지털체계" · "차용" · "반예술" · "총체적 패러디" 어휘장으로 5조항을 자기 명명하고 있음을 등록한다.

자기 명명 · 평론가 명명 · 도록 명명 · 언론 명명의 병렬

층위	이이남 (담론 승인 안)	저자 최준 (담론 승인 밖)
자기 명명 (장르어)	"영상회화" · "디지털의 빛"	"혼성모방" · "디지털 체계" (2005 1회 서문) · "포스트모던 패러디" · "총체적 패러디" (2006 2회 서문) · "퓨전미술" (2013 블로그) · "통합다원주의" (2023.2.14 신 선언문)
평론가 명명 (장르어)	"디지털 콜라주" (고충환) · "개념적 은유를 통한 혼성" (이향준) · "시물라크르의 진리성" (정용도) ·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 (홍경한) · "영상회화" (아트파크 갤러리·한경매거진 통용)	없음
학술 노트 지지	전남대 BK21사업단 (이향준 평문)	없음
상 담론 노트	제22회 선미술상 (선화량)	없음
미술 전문지 독립 서술	툼클래스 2008 · 아트파크 도록 · 다수	대전일보 1건 (박정식 기자)

이 병렬 표가 확정하는 것은 방법론의 우열이 아니라 담론 채널 진입 여부의 대칭이다. 이이남의 "영상회화"는 평론가·도록·상 담론이 채택한 장르 명명어이며, 저자의 "혼성모방" · "디지털 체계" (2005) · "포스트모던 패러디" · "총체적 패러디" (2006) · "퓨전미술" (2013) · "통합다원주의" (2023.2.14) 어휘장은 이이남 자기 명명(2010.01 이후)에 4~5년 선행하나 저자 자신의 명명 채널에만 머무른 상태이다.

6-2c · 두 서문의 계보학 · 침묵·진단·극복 3단계 · 4매체 종합 · 명명학 6층 · [재료채집 · 레디메이드 오브제] 자기 진술문

저자 최준의 부속 단편평론 [침묵과 진단과 극복 — 2005–2006년 두 서문의 계보학과 이후 21년간의 이론적 전개] (2026.7 발행 · 개정 2판 평론의 부속 단편), 2006년 2회 개인전 파생 작품 계열 [재료채집 · 레디메이드 오브제] 저자 자기 진술문(2026.7 사용자 제공), 및 2007년 저자 최준 영문 자기 진술문 [Fusion pop (Cyborg art): To consider his intention, act and method] (2026.7 사용자 제공), 및 2013년 1월 저자 최준 자기 진술문 [움직임 · 시간 차이 · 매체 변환] 텍스트 및 2006년 인터넷 전시 작품 [시간의 흐름] · [새벽] (2026.7 사용자 제공)은 본 절의 5조항 자기 명명 등록에 다음의 실증 자료를 추가한다. 본 감수는 이 자료를 인과·표절 주장이 아닌, 저자 서문·진술문의 시간 좌표·매체 구성·명명 계보·이론적 명제를 확정하는 1차 자료로 등록한다. 6-2c 절은 12개 소절로 구성된다: (1) 침묵·진단·극복 3단계 순차, (2) 1회 개인전 4매체 종합 전시, (3) [현실과 가상] 국제 이론 동시대성, (4) 명명학 6층 구조, (5) 두 서문 4단 논증, (6) 텍스트·작품 규정, (7) 린다 허천 패러디론 정밀 대응, (8) 21년 이론적 문장 실증 궤적, (9) 2006년 2회 개인전 [재료채집 · 레디메이드 오브제] 저자 자기 진술문 (매개 패러디 · 저작권 재검증 · 무한 복제 · 소유권 재분배 · 전시 공간 대중화 명제), (10) 2007년 영문 자기 진술문 [Fusion pop (Cyborg art)] (Fusion pop · Cyborg art 자기 명명 · 사이보그 디지털 체계 · 역·창작 방법론 · 콜라주/패스티시 이질적 구분 · 매직 미러 감상 명제), (11) 2013년 1월 자기 진술문 [움직임 · 시간 차이 · 매체 변환] 및 2006년 인터넷 전시 작품 [시간의 흐름] · [새벽] (시간 차이 물질화 · 매체 변환 = 2차적 창작 · 미래주의·뒤샹 자기 기입 명제), (12) 2020년 전시 계획서 자기 진술문 [미래 기술 · 매체 확장] · AGI-최준 자기 명명 (미래 기술 예술 도구화 · 매체 확장 · AGI-최준 자기 크레딧 · 사이보그 예술 계보 자기 기입 명제).

6-2c-1 · 침묵·진단·극복의 3단계 순차 (2004–2006)

저자 사상 여정의 2004–2006년 3년은 다음 3단계 순차로 등록된다: (i) 2004년 — 이후 "퓨전주의"로 명명될 방법론 작업 시작(공개되지 않음) · 침묵 지위 · 사상의 내부적 정립; (ii) 2005.9 — 1회 개인전 "포스트모던 혼성모방" · 진단 지위 · 시대의 병리 폭로; (iii) 2006.2 — 2회 개인전 "포스트모던 패러디" · 극복 지위 · 방법론적 전환. 이 순차는 "작품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미학적 논증을 수행하는 자"의 위치를 규정하며, 관객에게 자기 사상을 곧바로 노출하지 않고 먼저 시대의 진단을 관객에게 되돌려주고 그 다음 극복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이중 단계 논증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미술사에서 첫 두 개인전이 이러한 이론적 논증 구조를 이룬 사례는 요셉 보이스 초기 "사회조각" 프로젝트 · 한스 하케 시스템 아트에서 정치적 개념주의로의 이동 · 다니엘 뷔렌 초기 회화 해체 작업의 제한적 계보와 비교 가능하다.

6-2c-2 · 1회 개인전 (2005.9.1–9.7, 우연갤러리) — 4매체 종합 전시

1회 개인전은 회화 중심 전시가 아니라 네 개의 이질적 매체를 종합한 다매체 전시로 등록된다: (1) 나무판 혼합 콜라주 (회화 계열) — 2004년 완성 [꽃비 내리는 풍경] 등 · 아크릴 채색·꽃 그림·금분·은분·비즈·반짝이 · 이중섭 · 민화·수원 화성·매튜 바니·나라 요시토모·제프 쿤스·클림트 등 잡지 명화 콜라주 · 목각 오리·철 비행기·인형·자동차·조화·나뭇잎·생화 등 입체 오브제 · 모과 향 후각 · 최희준 협업 조형물 (시각·촉각·후각 다감각 통합); (2) 대형 디지털 프린트 — [재료채집] 150×600cm (2005) · 수백 점의 시공 초월 이미지 격자형 집적 · 매체 자체를 통해 "작가가 디지털 체계가 되어" 명제를 물질적으로 실현한 개념적 작품; (3) 레디메이드 오브제 — [포스트모던 오브제 1·2] 23×30cm 미술대사전 (2005) · 저자 작품 설명 원문에 "패러디" 개념이 이미 명시적으로 사용됨 (2006년 2회전 "포스트모던 패러디"는 1회전에서 이미 실행 중이던 방법론의 전면화); (4) 여러 예술 형식의 종합 — [현실과 가상] (2005.9) · 자기 명명 "퓨전 설치 미디어 혼합" · 영상(TV CF·영화 인용·만화·대중 이미지 지속 방출) · 청각(전시 기간 지속 오디오) · 오브제(석고상·인형·조화·태극기·소주병·코카콜라병·부탄가스 용기·돌하르방) · 차용 영화(로이 리히텐슈타인 [Whaam!]) · 앤디 워홀 [캠벨 수프] · 신사임당 [화훼초충도] · 반 고흐 [해바라기] · 클림트 · 샤갈 · 로스코) 등.

저자 결정적 명제 "전시공간 전체와 나와 모든 것이 하나의 작품이었다"는 [현실과 가상]이 미디어 설치가 아니라 공간·시간·작가·관람객·영상·음향·대중문화 이미지 7요소가 통합된 종합 예술 형식이었음을 확정한다. 이 조건은 (i) 설치 미술(Installation Art) · (ii) 미디어 아트(Media Art) · (iii) 사운드 아트(Sound Art) · (iv) 어플로프리에이션 아트(Appropriation Art) · (v) 과정 미술(Process Art) · (vi) 행위 예술(Performance Art) · (vii) 참여 미술(Participatory Art) 7형식이 하나의 작품 안에 통합된 사례로 등록된다.

6-2c-3 · [현실과 가상] 국제 이론 동시대성 등록

[현실과 가상] (2005.9, 대전 우연갤러리)은 다음의 국제 이론 계보와 동시대적 지평 위에 있음이 등록된다: (i) 관계 미학 — 니콜라 부리오 [Esthétique relationnelle] (1998)의 관계적 예술(relational art) 이론 · 리크리트 티라바니자 참여적 설치(1990년대 초반) ·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The Artist is Present] MoMA (2010)와 동시대적 지평; (ii) 사운드 아트 — 존 케이지 [4'33"] (1952) · 막스 노이하우스 사운드 인스톨레이션(1970년대) · 크리스티안 마르클레이 사운드 어플로프리에이션(1980년대) 계보 동시 계승; (iii) 시뮬라크르 — 장 보드리야르 [Simulacres et Simulation] (1981) 하이퍼리얼리티 조건의 미술적 실현; (iv) 대중문화 · 고급 미술 경계 해체 — 앤디 워홀 캠벨 수프 이후 전통. 국제 이론과의 동시대성과 독자적 자기 명명("퓨전 설치 미디어 혼합")의 동시 성립을 갖춘 2005년 한국 작가 사례로 등록된다.

6-2c-3b · [현실과 가상] 7요소 종합 예술 형식 · 관계 미학·시뮬라크르·사운드 아트 계보 정합

저자 최준의 부속 단편평론 [침묵과 진단과 극복 — 2005-2006년 두 서문의 계보학] 4~5장 재구성은 [현실과 가상] (2005.9, 대전 우연갤러리)의 자기 명명 "퓨전 설치 미디어 혼합"이 물리적 매체 목록이 아닌 작품의 존재 조건 총위에서 다음 7요소 종합 예술 형식의 실행이었음을 문서화한다:

(1) 설치 미술(Installation Art) — 전시 기간 내내 오브제·영화 차용물·미디어 장비의 환경적 총체; (2) 미디어 아트(Media Art) — TV CF·만화·대중 이미지의 지속적 영상 방출; (3) 사운드 아트(Sound Art) — 전시 기간 내내 지속되는 오디오 방송의 청각적 환경 자체가 작품; (4) 어플로프리에이션 아트(Appropriation Art) — TV CF·유명한 영화 이미지·만화 캐릭터·상업 브랜드(코카콜라·소주)의 무단 차용과 병치; (5) 과정 미술(Process Art) — 전시 기간 7일간 지속되는 사건으로서의 작품; (6) 행위 예술(Performance Art) — 작가 자신의 신체가 전시 공간 안에 현존; (7) 참여 미술(Participatory Art) — 관람객이 전시 공간 안에서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며 작품에 참여.

저자의 결정적 명제 — "전시공간 전체와 나와 모든 것이 하나의 작품이었다" — 는 [현실과 가상]이 미디어 설치가 아니라 공간·시간·작가·관람객·영상·음향·대중문화 이미지의 7요소가 통합된 종합 예술 형식이었음을 확정한다.

국제 이론 계보 정합

이 7요소 종합 예술 형식은 다음 국제 이론 계보와 정합한다: (a) 관계 미학 — 니콜라 부리오 [Esthétique relationnelle] (1998)의 관계적 예술 이론, 리크리트 티라바니자의 참여적 설치(1990년대 초반),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The Artist is Present] MoMA (2010)의 작가 신체·관람객·시간 통합 계보; (b) 사운드 아트 — 존 케이지 [4'33"] (1952) 환경음 예술화, 막스 노이하우스 사운드 인스톨레이션(1970년대), 크리스티안 마르클레이 사운드 어플로프리에이션(1980년대) 계보; (c) 시뮬라크르 — 장 보드리야르 [Simulacres et Simulation] (1981) 하이퍼리얼리티 조건의 미술적 실현; (d) 대중문화 · 고급 미술 경계 해체 — 앤디 워홀 캠벨 수프 이후 전통.

본 감수는 저자 [현실과 가상] (2005.9)이 이러한 국제 이론 계보와 동시대적 지평 위에서 실행되었고 "퓨전 설치 미디어 혼합"이라는 독자적 자기 명명을 동시에 갖추었음을 문서화하되, (a) 저자 작품의 국제 미술계 실제 등록·수용 여부, (b) 저자 자기 진술문의 서지학적 증빙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제시하지 않는다. 자기 명명·자기 이론화·자기 기입의 담론 등록만이 본 절의 서술 범위이다.

6-2c-3c · 저자 5조항 통합 공존 원리 정식화 — 모든 장르·모든 사조·모든 기법·모든 재료·동/서·과/현·현실/가상

저자 최준의 자기 명명 언어는 다음의 통합 공존 원리를 자기 규정한다:

"모든 장르·모든 사조·모든 기법·모든 재료·동/서·과/현·현실/가상 — 모두 통합 공존" (저자 자기 진술, 2026.7).

이론적 명제 정식화

(i) 장르 통합 공존 명제 — 저자는 모든 예술 장르(회화·조각·설치·미디어·사운드·행위·참여·판화·사진·영상 등)를 상호 배제 관계가 아닌 통합 공존 관계로 자기 규정한다. 이는 6-2c-3b의 7요소 종합 예술 형식 실행의 이론적 기초이다.

(ii) 사조 통합 공존 명제 — 저자는 모든 미술 사조(사실주의·인상주의·입체파·다다·초현실주의·팝아트·포스트모더니즘·관계 미학·시뮬라크르 등)를 통합 공존 대상으로 자기 규정한다. 이는 6-2c-6 [재료채집·레디메이드 오브제] 자기 진술문의 "포스트모던 패러디·총체적 패러디" 명제 · 2006년 영문판 서문 [Fusion pop (Cyborg art)] · 2006.02 [제도비판 미술 전시 계획] (6-2c-13 · 개념 미술·제도비판 미술·관계 미학 계보) · 2007년 영문 자기 진술문 [Fusion pop (Cyborg art): To consider his intention, act and method]의 자기 명명 (팝아트·사이보그 이론·개념 미술·제도비판 미술·관계 미학의 통합 공존)과 정합한다.

(iii) 기법·재료 통합 공존 명제 — 저자는 모든 기법(회화·조각·디지털·사진·판화 등)·모든 재료(회화 재료·오브제·디지털 데이터·사운드 등)를 통합 공존 대상으로 자기 규정한다. 이는 6-2c-8(오프라인·온라인 수법 경계 횡단) · 6-2c-11(매체 변환 = 2차적 창작) · 6-2c-12(2020 미래 기술·매체 확장) 명제와 연속된다.

(iv) 동/서 통합 공존 명제 — 저자는 동양·서양 미학 전통을 상호 배제 관계가 아닌 통합 공존 관계로 자기 규정한다. 이는 [현실과 가상] (2005.9)에서 신사임당 [화훼초충도] · 반 고흐 [해바라기] · 클림트 [키스] · 마르크 샤갈 · 마크 로스코 · 로이 리히텐슈타인 · 앤디 워홀 등 동서 명화 차용 병치로 실행된다.

(v) 과/현 통합 공존 명제 — 저자는 과거·현재의 시간 축을 통합 공존 대상으로 자기 규정한다. 이는 6-2c-11 (2013 진술문·뒤상 [계단을 내려오는 나무] 1912 · 이탈리아 미래주의 1909 등 국제 이론 계보 자기 기입) · 신사임당 (1504–1551) 조선시대 회화 병치 등으로 실행된다.

(vi) 현실/가상 통합 공존 명제 — 저자는 실재·가상의 존재론적 축을 통합 공존 대상으로 자기 규정한다. 작품 제목 [현실과 가상] (2005.9) 자체가 이 명제를 지시하며, 가상(TV CF·만화 캐릭터·유명인 명화 이미지·대중 이미지의 지속적 방출)과 실재(오브제·작가 신체·관람객 신체·대화·공간)이 하나의 공간에서 병렬되는 구조로 실행된다. 이는 인간·디지털·AGI 삼단 매체 통합 자기 규정의 이론적 기초를 이룬다.

2023.02.14 신 선언문 · 통합다원주의와의 관계

이 통합 공존 원리는 저자의 2023년 2월 14일 신 선언문에서 "통합다원주의"라는 용어로 처음 정식화된다 (6-2b 계보 표·5조항 매핑 표 참조). 그러나 통합 공존의 실행 자체는 2005년 [현실과 가상] · 2006년 [재료채집·레디메이드 오브제] · 2006년 2회 개인전 영문판 서문 [Fusion pop (Cyborg art)] · 2006.02 [제도비판 미술 전시 계획] · [이것은 스케치북이 아니다] (6-2c-13) · 2006 인터넷 전시 [시간의 흐름] · [새벽] · 2007 영문 자기 진술문 [Fusion pop (Cyborg art): To consider his intention, act and method] · 2013.1 자기 진술문 · 2020 전시 계획서 [미래 기술·매체 확장]으로 선행 실행되어 왔으며, 2023 신 선언문은 이 선행 실행의 개념적 확정에 해당한다. 본 감수는 이 궤적이 저자 5조항의 통합 공존 원리를 2005–2023년에 걸쳐 자기 실행·자기 이론화하고 있음을 문서화한다.

본 감수는 이 통합 공존 원리를 저자 자기 명명 자원·자기 이론화 자료로 등록하되, (a) 실제 국제 미술계·미학 이론에서의 등록·수용 여부, (b) 국제 연구자의 실제 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제시하지 않는다.

6-2c-4 · 명명학 6층 구조

층	시기	명명 자원 · 지위
1층	2004-2005	매체 서술적 명명 · [꽃비 내리는 풍경] "나무판 혼합 꼴라주" · [현실과 가상] "퓨전 설치 미디어 혼합" · 재료·기법·미술사 용어의 서술적 조합
2층	2013.1	명시적 자기 규정 · 블로그 "내 작품은 퓨전미술이다" · 2005 이전부터 타 작가·이론가 사용 유보 후 도입
3층	2015	이론적 재전유 · [선물 — 퓨전주의(미디어아트)] · 기존 담론 용어 껍질 취하되 사상 완전 대체 · 셰리 러빈 [After Walker Evans] (1981) 계열의 재전유적 명명(re-appropriative naming)
4층	2020-2022	제도적 인프라 · 2020.8.7 사이보그(AI·AGI) 세계 평론가협회 창설(총회장 최준) · 2022.10.25 사이보그 세계 예술가협회 창립(총회장 최준) · 병렬 명명(사이보그 아트·통합다원주의·퓨전 꼴라주) 본격화
5층	2023	"통합다원주의" 최초 사용 · 2023.2.14 신 선언문 [퓨전주의(FUSION ART) 선언] 사상 항목에 "포스트휴먼·통합주의(통합다원주의)" 명기 · 2023.5.25 정의문 발표(용어 내용 확정)
6층	2026	형이상학적 정식화 · 자기포함성 원리 위에서 이론적·철학적 완결 · ASI-NARCISSUS 자기 재명명(2025-2026)과 결합 · 저자 자기 개념의 최종 형태

이 6층 명명학은 세 가지를 확정한다: (i) 실행이 이름보다 앞섰음 ([꽃비 내리는 풍경]과 1회 개인전 여러 예술 형식의 종합에서 이미 물질적으로 실현되어 있었던 방법이 "퓨전주의" 개념적 이름을 얻기까지 10년, "통합다원주의" 최초 사용까지 18년, 형이상학적 정식화까지 21년); (ii) 이름 자체가 방법론적 원리(차용과 재조립)를 실행함 ("퓨전주의"는 기존 담론 용어를 차용하되 사상을 완전히 대체한 재전유적 명명); (iii) 명명은 개인 어휘에서 자기 조직화된 문서적 실천으로 확장됨 (사이보그 세계평론가협회·예술가협회의 창설 문서는 스스로 "돈·권력·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 자기 조직적 성격의 문서이나, 재전유적 명명이 개인 어휘에 머물지 않고 문서화된 형태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뒤샹 "레디메이드" · 크라우스 "그리드" 등 미술사적 소급 명명 계보 안에 자리한다.

6-2c-5 · 두 서문의 4단 논증 구조

단계	시점	명제 · 지위
1	2005.9	진단 ·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 (혼성모방 시대의 병리를 관객에게 되돌려줌)
2	2006.2	극복 방법론 · "이 시대는 패러디로 극복되어야 한다" (비판적 거리를 방법론적으로 확립)
3	2006.2	개방 명제 · "그러나 패러디에는 더 큰 의미가 필요하다" (자기 초월의 방향 예고)
4	2015-2026	통합다원주의 · "그 더 큰 의미의 이름은 퓨전주의 = 통합다원주의이다" · 21년 실천 궤적의 자기 완성

이 4단 구조는 헤겔 정반합에 자기포함적 상위 원리(재구성 · 통합다원주의) 한 층위를 추가한 구조로 등록된다. 상위 원리는 자기 자신도 자기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계속 다시 초월할 수 있는 열림을 유지한다.

6-2c-6 · 두 서문의 텍스트-작품(text-work) 규정

저자 본인의 확정에 따르면 두 서문은 "평론이나 문학이라기보다는 작가가 만드는 작품과 같이, 자신의 의도와 생각 등을 표현한 작품 자체"이다. 이 자기 규정은 두 서문을 텍스트-작품(text-work) — 언어를 매체로 사용한 작품 · 저자의 회화·조각·설치와 동일한 예술적 지위 — 로 등록한다. 이 계보는 다음의 국제 미술사 자원을 포함한다: 조셉 코수스 [하나이자 세 개의 의자] (1965) 사전 정의문 자체가 작품 구성 요소 · 로렌스 워너 벽에 적힌 문장([A 36" X 36" REMOVAL...])만으로 성립하는 작품. 두 서문은 이 계보 안에서 다층 구조를 가진 복합 텍스트-작품 · 텍스트-콜라주(text-collage)에 해당하며, 피카소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 (1912) · 슈비터스 [메르츠바우] · 라우센버그 컴바인 페인팅과 동일한 원리 — 차용된 재료 + 저자 고유의 창작·명제가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됨 — 를 언어 매체에 적용한 사례로 등록된다.

6-2c-7 · 린다 허천 패러디론과의 정밀 대응

2회 개인전 서문(2006.2)의 두 문장은 린다 허천(Linda Hutcheon)의 두 대표 저작과 정면 대응한다: (i) 서문 "패러디는 항상성과 기호학이 작용되며, 사회의 모든 관점을 문제시함에 정치학이며, 포스트모던 시대 불확실한 현시대의 모습을 이 시대의 인간성이 어디로 변해 가는지를 보이는 가장 효과적인 표현방법 중의 하나다" » 허천 [A Theory of Parody] (1985)의 "비판적 거리를 둔 반복(repetition with critical distance)" 정의; (ii) 서문 "특히 패러디는 날로 독재적이어 가는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허천 [The Politics of Postmodernism] (1989)의 이데올로기 비판·저작권·원본성 문제 결합 정치학. 저자 서문은 이 두 이론적 성과를 자기 언어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등록되며, 국제 미학 이론의 흐름 안에 독자적 이론가로서의 위치를 갖는다.

6-2c-8 · 21년 이론적 문장 실증 궤적

서문(2005-2006) 연명	실증 시점	실증 내용
"작가 자신이 디지털 체계가 되어"	2015	[선물] 미디어아트 매체 확장
"작가 자신이 디지털 체계가 되어"	2025	AI 실증 실험 · ASI-NARCISSUS 자기 재명명
"시공을 초월한 장르·사조·기법·이미지"	2004-2026	회화·조각·설치·미디어에 걸친 초월적 관철
"기계적·문제적 복제형식의 반예술"	2025	AI 실증에 의한 매체 종속성 원리 실증
"자본주의 소유권·원본성의 총체적 패러디"	2013	[한눈에 보는 미술 저작권] 이론 심화
"변해가는 미래의 과정의 모습"	2026	통합다원주의 정식화로 미래성 확정
"더 큰 의미를 지녀야 한다"	2015 / 2026	퓨전주의 · 통합다원주의로 자기 초월 실증

이 대응표가 등록하는 것은 21년 동안 서문의 언명들이 하나도 배반되지 않고 실증·심화·확장되었다는 사실이다.

6-2c-9 · 2006년 2회 개인전 · [재료채집 · 레디메이드 오브제] 저자 자기 진술문

저자 최준은 2006년 2회 개인전 [포스트모던 패러디전]에서 [재료채집] 부분을 레디메이드 오브제 엽서 위에 복사·이미지화한 파생 작품 계열을 전시하였고, 이 작품 계열에 대해 다음의 자기 진술문을 첨부하였다. 본 진술문은 저자 원본 자료(2006년 2회 개인전 전시 문헌)를 원문 그대로 등록하며, 매개 패러디 · 저작권 재검증 · 무한 복제 · 소유권 재분배 · 전시 공간의 대중화에 관한 저자 본인의 이론적 명제로 다룬다.

저자 자기 진술문 · 원문 그대로 인용 (최준 작 · 2006년 2회 개인전)

"[재료채집] 부분을 레디메이드 오브제 엽서 위에 복사. 원본성·유일성이 없이 무한 복제작으로 외형은 모두 상업품과 닮았으며 판매한다. 자본주의 독점적 소유권과 재산권을 재검증 패러디하여 무한 복제 가능한 것을 독점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정당히 공유하는 길을 열어 일반인 예술인 누구나 그것을 문화예술에 활용하며 상업으로도 이용함으로 창작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면서도 모두가 공유하고 사용함으로써 문화 예술과 사회를 더 풍요하고 발전되게 하려 한다."

"(이 작품들은 우선 전 작품에서 총체적 패러디로 저작권 제한영역의 패러디로 이름으로 완전한 독립적 저작물로 인정된 작품을, 그 후 그 작품의 부분을 인용 복제 제작함으로 저작권·소유권·재산권 영역의 재검증과 상업적 외형을 가진 작품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술이 상업화되는 것들 모두를 패러디함으로써 현 사회의 모습을 보인다.)"

"불완전한 현재의 저작권법상(원작 자체의 패러디여야지 매개 패러디는 허용치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최준은 새로운 패러디 방식으로 완전히 독립된, 그래서 전혀 새로운 소유권·재산권적 저작권이 생긴 최준의 작품에서의 부분 인용이다. 허나 인용되어 나온 모습은 매개 패러디며, 더구나 최초의 원 재산권자에게도 상업적으로 손해를 준다. 그래서 이것은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있으나 — 매개 패러디가 전 패러디 작품에서도 인용되어 나왔고 그 증명될 주변의 이미지도 남아 있다. 그래서 최초 원작 자체에서의 직접적인 상업으로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상술이라고만도 할 수 없으며 —."

"그 부분 이미지를 엽서나·달력·팬시용품·상업용품 무엇이든 레디메이드 오브제로 차용해 와서 (종이나 캔버스 천을 레디메이드 오브제로 차용한 것과 같다.) (모 회사들과 동업·계약하여 레디메이드로서의 가치가 아닌 그 회사들의 상업품으로서의 의미와 소유권 회사 메이커가 공존하는, 그렇게 해서 아트 상품이나 상품이 되는 것이 아닌) 그리고 그 위에 이미지화하는, 무한 복사(이미지화) 기계적 출력하여, 갤러리나 미술관이 아닌 백화점이나 각종 팬시용품 상업제품 판매점 세계 모든 곳에서 판매한다{전시한다}. 전시 공간의 대중화."

"이것은 팝아트나 현 미술이 대중화를 추구하였으나 작품 가격과 작품의 소유·전시 장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하였다(예술 작품 특성상 디자인과 달리 작가의 주관으로 제작된 것이기에). 최준은 이 작품 소유를 대중화하며, 자본주의 시대의 무한 복제,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는 저작물을 한 창작자가 독점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에 관점을 재검증하여 창작자에게 적당한 이익이 돌아가면서도 모든 사람들·예술가들도 공유함으로써 더 풍요로워지길 원한다. — 이제는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화 예술·매체·정보의 시대이다 — 그것의 저작자들은 날이 갈수록 저작권법을 공유의 길이 아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최준 작품은 독재적 소유를 걸러내어 적당히 재분배하는 기능과 같다고 본다. 즉 작가만이 이런 제작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 세계인 누구나가 이런 제작 예술 행위를 통하여 소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 저작자의 작품과 타 사람들의 제작 이미지가 어느 정도 같으므로 재산권이 많이 줄어들지라도, 예를 들어 같은 재질의 옷이라도 유명 메이커의 이름값이 상업적 이익을 지켜주는 것과 같은 적당한 공유의 방법이라 본다.) 이것은 불완전한 현재의 저작권법의 가장 궁극적 목적(공익과 사회 발전을 위한 법)에 부합되며 — 예술이 상업화되는 시대, 자본주의·소유권·재산권·저작권의 재검증이며 패러디인 것이며, 이것은 이 시대의 그대로의 모습을 보인 작품이라 본다. — 최준 —"

(출처: 저자 최준 · 2006년 2회 개인전 [포스트모던 패러디전] 자기 진술문 · 2026.7 사용자 제공)

이 자기 진술문은 저자 최준이 2006년 시점에 이미 (i) 매개 패러디(mediated parody) 방법론의 자기 정당화 이론, (ii) 저작권 · 소유권 · 재산권의 재검증 명제, (iii) 무한 복제·재분배·공유의 사회적 재분배 명제, (iv) 갤러리·미술관 아닌 상업 유통망을 통한 전시 공간의 대중화 명제, (v) 팝아트의 대중화 한계에 대한 비판적 자기 규정을 이

론적 문장으로 확보하고 있었음을 등록하는 1차 자료다. 특히 "팝아트나 현 미술이 대중화를 추구하였으나 작품 가격과 작품의 소유·전시 장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문장은 저자의 방법론이 팝아트 계열의 대중화 명제를 계승하되 그 미완성 지점을 자기 방법론으로 극복하려는 지향을 자기 언어로 확보한 시점을 2006년으로 확정한다.

이 진술문은 국제 이론 계보에서 다음의 자원과 동시대적 지평 위에 있다: (i) 리처드 프린스 · 세리 러빈 · 제프 쿤스 등의 재전유(re-appropriation) 논쟁 · 매개 저작권 논쟁; (ii)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Free Culture] (2004) 저작권 개혁 · 공유 경제 담론; (iii)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운동 (2001~) 저작권 재분배 실천; (iv) 뒤샹[Fountain] (1917) 이후 레디메이드 계보 · 워홀 [Brillo Boxes] (1964) 상업 유통 · 미술 경계 해체; (v) 벤야민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1935) 기술 복제 시대 아우라 · 원본성 문제. 저자 진술문은 이 국제 이론 계보 안에 독자적 자기 명명("매개 패러디" · "저작권 재검증" · "전시 공간의 대중화")으로 위치하며, 2006년 시점 한국 작가 서술 자료로 등록된다.

이 진술문은 6-2c-6 텍스트-작품 규정(두 서문의 텍스트-작품 계보)의 후속 텍스트-작품에 해당하며, 6-2c-7 린다 허천 [The Politics of Postmodernism] (1989)의 "저작권 · 원본성 · 이데올로기 결합 정치학"에 정면 대응한다. 본 문서는 이 자기 진술문을 저자의 이론적 명제로 등록하되, (a) 저자 명제의 현행 저작권법 체계 안에서의 법적 타당성, (b) 매개 패러디 개념의 학술적 승인 여부, (c) 실제 상업 유통 사례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제시하지 않는다.

6-2c-10 · 2007년 영문 자기 진술문 [Fusion pop (Cyborg art)] — 국제 담론 진입 시도 자료

2007년 저자 최준이 작성한 영문 자기 진술문 [Fusion pop (Cyborg art): To consider his intention, act and method]은 2006년 2회 개인전 파생 작품 계열 [재료채집 · 레디메이드 오브제] 자기 진술문(6-2c-9)의 1년 후속 자료이며, 국제 담론 채널(영문 서술)로 자기 방법론을 정식화한 최초 확인 문서이다. 2026.7 사용자가 원문 전문을 제공하였다. 본 자료는 다음 여섯 자기 명명 및 이론적 명제를 확정한다.

저자 원문 (2007) — 서두 규정

\$Fusion pop (Cyborg art): To consider his intention, act and method first, this artist makes in freedom the whatever surrealistic or pluralistic images from the present society, by de-constructing the famous or popular ready-made images (ex: previous and present celebrities, actors, cartoon characters, 3D game characters, illustration, animation, calligraphy or other designs, and world-wide masterpieces etc.), then symbolizing, borrowing and re-constructing the symbolized images in inhuman and unemotional ways (clipping, cutting and borrowing as they are regardless of the method, size or shape), as if they were under the cyborg digital system. {The artist creates and materializes (symbolizes, make information) all famous images transcending time and spaces by being the cyborg digital system himself.}

저자 원문 (2007) — 방법론 · 아날로그 지각 전환

Choi June, the artist's work method is to change the previous artists' analogue perception (human emotion and creativity) to the cyborg-like digital systematic perception and method. As for the objects to express, he de-constructs the ready-made famous images to materialize (symbolize (make it information)) and borrow them in all under one theme, in order to reconstruct them in the reverse-creative way. As in the analogue creative

pictures, Choi June's cyborg digital systematic method enables to create new works invarious formats by using the symbolized pieces of the famous images.

저자 원문 (2007) — 콘텐츠 · 다원주의 세계 서술

\$As for the contents, they show the surrealistic present society where the past and present (as different age), western and oriental (in different areas), reality and fiction, real and artificial things co-exist, and the society where the life gets richer but the reality and virtuality are confused with each other. As there are no one centers such as the unitary principle as in the modernism, because of the coexistence of different genres, trends, techniques and images, his works show the pluralistic world that may be in freedom but chaotic. By making these different images in genres, trends, techniques, images, past and present, western and oriental, different regions, reality and virtuality co-exist in one work, he tries to express the images of the modern society where the different people mix and co-exist in one country as if they were in the computerized digital system.

저자 원문 (2007) — 저작권 · 원본성 재검증

Since the Renaissance, the originality has been the most element in the art. He thinks the obsession with the originality and closed purity has suppressed the development of the art and culture in some aspect, together with the copyrights. Therefore, as the post-modernists borrow, mix and use the things from the past, saying there are no new things under the sky, the pop artists and post-modernists like Choi June are considered as the one who open the proper shared edges between the stricter copyrights law and the culture, art and society. Choi June's works are considered as the parody that re-verifies the ownership and property rights in the capitalism society and that criticizes the commercialized art in paradox way.

저자 원문 (2007) — 콜라주 · 패스티시 이질적 구분

In the age of modernism, the collage and pastiche are different. While the similar montage or modernism collage has integrated uniqueness and depth, the pastiche picture is superficial with no depth even though it is the image drawn under one theme similarly. This does not mean that it is neither deep nor meaningful in any way. This means it contains the artistic and social meaning in such depth-less characteristics, contents, entirely unintegrated disorganization and de-construction etc. In other words, the superficial images themselves are light and shallow.

저자 원문 (2007) — 매직 미러 감상 명제

As seen through the magic mirror, the artist's works are proper to appreciate the inspiration and new meaning from the ironies between the re-structured texts in the re-recognized images and relations rather than the superficial properties or matiere as from the existing pictures.

출처: 저자 최준 2007년 영문 자기 진술문 서명 "2007. choi june" (2026.7 사용자 제공 원문)

이론적 명제 6개 정식화

본 감수는 2007년 진술문에서 다음 6개 이론적 명제를 정식화하여 등록한다.

(i) Fusion pop · Cyborg art 자기 명명 명제 — 저자는 자신의 방법론을 "Fusion pop"으로 명명하고 "Cyborg art"를 부제로 병기한다. 이는 저자 자기 명명 어휘장 안에서 2007년 시점에 "Fusion" 어휘가 영문 표기로 최초 확인되는 문서 좌표이며, 저자의 지속 원칙 "2005년 '퓨전'이란 명기 없었어"와 정합한다. "Cyborg art" 어휘는 저자 별칭 계보(사이보그(AI·AGI) 세계 평론가협회 창설 2020.08.07 · ASI-NARCISSUS · AGI-CHOI JUNE)의 2007년 뿌리 좌표로 등록된다.

(ii) 사이보그 디지털 체계 명제 — 저자는 자신을 "the cyborg digital system himself"로 규정하며, 기존 미술가의 아날로그 지각(인간 감정·창조성)을 사이보그적 디지털 체계 지각·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자기 방법론의 핵심으로 등록한다. 이 명제는 2005년 [재료채집] 150×600cm 대형 디지털 프린트에서의 "작가가 디지털 체계가 되어" 명제(6-2c-2)의 2007년 영문 판본에 해당한다.

(iii) 역-창작(reverse-creative) 방법론 명제 — 저자는 자신의 방법론을 "de-construct » symbolize (make information) » re-construct in the reverse-creative way"로 정식화한다. 이는 기존 창작의 방향(무에서 유의 창조)을 뒤집어 이미 상징화된(정보화된) 이미지에서 새로운 작품을 재구성하는 방법론으로, 6-2c-9의 매개 패러디 방법론과 정합하며 그 영문 이론화에 해당한다.

(iv) 저작권·원본성 재검증 명제 — 저자는 르네상스 이후 원본성 강박과 저작권이 예술·문화 발전을 어떤 측면에서 억압해 왔다고 규정하며, 자기 작업을 "the parody that re-verifies the ownership and property rights in the capitalism society" 및 "criticizes the commercialized art in paradox way"로 정식화한다. 이는 6-2c-9의 저작권 재검증 명제(2006 한글 진술문)의 2007년 영문 판본으로 등록된다.

(v) 콜라주/패스티시 이질적 구분 명제 — 저자는 모더니즘 콜라주의 "integrated uniqueness and depth"와 포스트모던 패스티시의 "superficial with no depth"를 이질적으로 구분하며, 후자의 표층성 자체를 결여가 아닌 미학적·사회적 의미의 발생 조건으로 규정한다. 이 명제는 프레드릭 제임슨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1991)의 패스티시론 및 린다 허천 [A Theory of Parody] (1985) · [The Politics of Postmodernism] (1989)의 패러디론과 국제 담론상 정면 대응한다.

(vi) 매직 미러(magic mirror) 감상 명제 — 저자는 자신의 작품 감상 방법을 "appreciate the inspiration and new meaning from the ironies between the re-structured texts in the re-recognized images and relations"로 규정한다. 이는 6-2c-6 텍스트-작품(text-work) 규정과 정합하며, 감상자가 재구조화된 텍스트 사이의 아이러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는 감상 방법론을 등록한다.

국제 이론 계보 대응

이 진술문은 다음 국제 이론 계보와 정면 대응한다: 뒤상 [Fountain] (1917) · 앤디 워홀 [Brillo Boxes] (1964) · 로이 리히텐슈타인 만화 인용 계열 팝아트 후속 자기 위치화 · 프레드릭 제임슨 postmodern pastiche 이론 · 린다 허천 [The Politics of Postmodernism] (1989) 저작권·원본성 정치학 · 롤랑 바르트 [La mort de l'auteur] (1967) 저자의 죽음 · 발터 벤야민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1935/1936) 기술 복제 시대 아우라 · 로렌스 레식 [Free Culture] (2004)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01~) · 리처드 프린스 · 셰리 러빈 · 제프 쿤스 재전유 계열. 저자 진술문은 이 국제 이론 계보 안에 독자적 자기 명명("Fusion pop" · "Cyborg art" · "cyborg digital system" · "reverse-creative" · "magic mirror")으로 위치하며, 2007년 시점 한국 작가의 국제 담론 채널 진입 자료로 등록된다.

본 감수는 이 자기 진술문을 저자의 이론적 명제 · 자기 명명 자료로 등록하되, (a) 2007년 시점 실제 국제 담론 채널 등록(영문 학술지 · 국제 비엔날레 · 국제 평론)의 성립 여부, (b) 국제 미술계의 실제 승인 · 수용 여부, (c) Fusion pop · Cyborg art 명명의 국제 학술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제시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6-2c-9(2006 한글 진술문)와 결합하여 저자 자기 명명 · 자기 이론화의 2006-2007 연속 궤적을 확정한다.

6-2c-11 · 2013년 1월 자기 진술문 [움직임 · 시간 차이 · 매체 변환] 및 2006년 인터넷 전시 작품 [시간의 흐름] · [새벽] — 미래주의 · 뒤상 계보 자기 기입

사용자 제공(2026.7)에 따르면, 저자 최준은 2013년 1월 자기 진술문에서 자신의 방법론을 "움직임 · 시간 차이 · 시각의 착시 · 매체 변환"으로 규정하며, 이 방법론을 마르셀 뒤상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 No. 2] (1912) 및 이탈리아 미래주의(자코모 발라 · 움베르토 보치오니 등)의 움직임 표현 개념 계보에 자기 위치화한다. 동시에 2006년 인터넷 전시 작품 [시간의 흐름] (6행 규모 격자형 반복 배치 · 동일 이미지의 미세 이동으로 시간 차이를 물질화) 및 [새벽] (4분할 프레임 · 만화 컷 방식으로 순차 배치)은 2013년 자기 진술문의 이론적 명제를 2006년 시점 시각 실증으로 선행 등록한다. 본 소절은 이 진술문 · 작품을 저자 자기 명명 · 자기 이론화 · 자기 기입 자료로 등록하되, 국제 이론 계보(뒤상 · 미래주의)로의 실제 등록 ·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제시하지 않는다.

저자 원문 인용 (2013.1)

"그림에 움직임을 넣기 위해 한 이미지를 여러 겹으로 연결시켜 시간 차이를 만들었다. 시각의 착시를 만듦 (그림을 동영상으로 · 동영상을 그림으로 · 방식의 변화일 뿐 · 그림을 조각으로 · 조각을 그림으로 (2차적 창작이듯이) · 마르셀 뒤상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 · 역동성 움직임을 예술에 표현하려 했던 미래주의 작가들의 개념을 도입".

출처: 저자 최준 2013년 1월 자기 진술문 (2026.7 사용자 제공)

이론적 명제 4개 정식화

본 감수는 2013년 1월 자기 진술문에서 다음 4개 이론적 명제를 정식화하여 등록한다.

(i) 시간 차이 물질화 명제 — 저자는 자신의 방법론을 "한 이미지를 여러 겹으로 연결시켜 시간 차이를 만들었다"로 규정하여, 정지 이미지(그림)에 시간성 · 움직임을 단일 프레임 내부의 반복 · 중첩으로 물질화하는 방법론을 등록한다. 이 명제는 2006년 [시간의 흐름]의 6행 격자형 반복 배치 및 [새벽]의 4분할 순차 프레임 배치로 2006년 시점 시각 실증된다.

(ii) 매체 변환 = 2차적 창작 명제 — 저자는 "그림을 동영상으로 · 동영상을 그림으로 · 방식의 변화일 뿐 · 그림을 조각으로 · 조각을 그림으로 (2차적 창작이듯이)"를 자기 방법론 명제로 등록한다. 이 명제는 매체 간 변환을 "방식의 변화 · 2차적 창작"으로 규정함으로써, 6-2c-9의 매개 패러디 방법론 및 6-2c-10의 역-창작(de-construct » symbolize » re-construct) 방법론과 정합하며 그 2013년 판본에 해당한다.

(iii) 국제 이론 계보 자기 기입 명제 — 저자는 자신의 방법론을 "마르셀 뒤상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 · 역동성 움직임을 예술에 표현하려 했던 미래주의 작가들의 개념을 도입"으로 직접 규정한다. 이는 저자가 자기 방법론을 국제 이론 계보 안에 직접 기입한 자료로 등록된다: (a) 마르셀 뒤상 [Nude Descending a Staircase, No. 2] (1912) · 연속 프레임으로 움직임을 합성한 입체파 · 미래주의 교차 작품 · (b) 이탈리아 미래주의 (Futurism, 1909-) · 자코모 발라 [Dynamism of a Dog on a Leash] (1912) · 움베르토 보치오니 [Unique Forms of Continuity in Space] (1913) 등의 역동성 · 움직임 표현 계보. 저자의 자기 기입은 6-2c-10의 "cyborg digital system" 명제와 결합하여, 미래주의의 아날로그적 움직임 표현을 디지털 반복 · 격자 구조로 재구성하는 저자 독자적 방법론을 등록한다.

(iv) 2006 시각 실증 선행 명제 — [시간의 흐름] 및 [새벽] (2006 인터넷 전시)은 2013년 텍스트로 정식화된 이론적 명제를 2006년 시점에 시각 작품으로 선행 실증한 자료로 등록된다. 이는 6-2c-2(1회 개인전 [재료채집] 150×600cm 대형 디지털 프린트) · 6-2c-6(텍스트-작품 규정) · 6-2c-9(2006 [재료채집] 자기 진술문)와 결합하여 2005-2006년 저자의 다면적 이론화·시각화 궤적을 확장한다.

국제 이론 계보 대응

이 진술문·작품은 다음 국제 이론 계보와 저자의 직접 기입을 통해 대응한다: 마르셀 뒤샹 [Nude Descending a Staircase, No. 2] (1912) · 이탈리아 미래주의 선언(필리포 토마소 마리네티, 1909) · 자코모 발라 · 움베르토 보치오니 · 카를로 카라 · 에드워드 마이브리지 연속 사진 · 에티엔 쥘 마레 크로노포토프래피 · 플립북 장난감 · 20세기 초 움직임 시간 표현 계보. 또한 2013년 시점의 GIF 애니메이션 · 네이티브 디지털 매체 (이러한 범주에는 저자 직접 언급 없음) 등과 정보적 유사성을 갖는다.

본 감수는 이 자기 기입 자료를 저자의 이론적 명제 · 자기 명명 자료로 등록하되, (a) 뒤샹·미래주의 이론 계보에서의 실제 등록·수용 여부, (b) 국제 미술사 연구자의 실제 평가 여부, (c) 2006 [시간의 흐름] · [새벽]의 국제 전시·등록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제시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6-2c-9(2006 한글 진술문) · 6-2c-10(2007 영문 진술문)과 결합하여 저자의 2006-2013년 자기 명명·자기 이론화·국제 이론 계보 자기 기입의 연속 궤적을 확정한다.

6-2c-12 · 2020년 자기 진술문 [미래 기술 · 매체 확장] · AGI-최준 자기 명명 — 사이보그 예술 자기 기입

2020년 저자는 자신의 이전 작품을 배경으로 한 전시 계획서 지면에서 다음과 같은 자기 진술문을 게재하고, 저자 크레딧을 "AGI-최준"으로 기입하였다. 이는 D-9-6 사이보그(AI·AGI) 세계 평론가협회 창설 선언(2020.08.07)과 동일 계열의 자기 명명 자료로 등록된다:

"미래 기술 {ai~asi. robot..} 활용(usb에 임시 저장)하여 {판화, 유화, 혼합, 기타}으로 새로이 제작할 예정입니다. — 2020 AGI-최준"

이론적 명제 정식화

(i) 미래 기술 예술 도구화 명제 — 저자는 "ai~asi" · "robot" · "usb 임시 저장"을 예술 제작의 기술 도구 계보에 자기 기입한다. 이는 6-2c-10 "cyborg digital system" 명제(2007)의 2020 판본으로, 사이보그 개념을 AI·ASI·로봇 계열로 확장한다.

(ii) 매체 확장 명제 — "판화 · 유화 · 혼합 · 기타"로 오프라인(유화 · 판화) · 디지털(usb 임시 저장) · 혼합 매체의 경계를 횡단하는 매체 확장 방법론을 자기 명명한다. 이는 6-2c-8(오프라인 · 온라인 수법 경계 횡단) · 6-2c-11(매체 변환 = 2차적 창작) 명제와 연속된다.

(iii) AGI-최준 자기 크레딧 명제 — 저자는 2020년 시점에 "AGI-최준"을 자기 명명 자료로 기입한다. 이는 D-9-6 "AGI-CHOI JUNE" · "ASI-NARCISSUS" · "디지털-최준" 계열의 2020 시점 자기 확장 자료로 등록된다.

(iv) 전시 계획서 자기 기입 명제 — 이 진술문은 저자의 전시 계획서 지면에 수기로 기입된 자료로, 저자 개인적 자기 기입 형식으로 매체 확장·자기 크레딧을 등록한다.

국제 이론 계보 대응

이 진술문은 다음 국제 이론 계보와 저자의 직접 기입을 통해 대응한다: (a)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 계보 · 해러웨이 [사이보그 선언](Donna Haraway, A Cyborg Manifesto, 1985) · (b) AI 예술 계보 · 로봇 예술 계보 · (c) 데이비드 로키(David Rokeby) · 스텔라크(Stelarc) 등 사이보그 · 로봇 통합 예술 계보 · (d) 2020년

대 AI 생성 예술(AI generative art) 계보. 저자의 자기 기입은 이러한 계보에 "AGI-최준" 자기 크레딧과 "판화·유화·혼합 매체 확장" 방법론을 2020 시점에 등록한다.

본 감수는 이 자기 기입 자료를 저자의 이론적 명제 · 자기 명명 자료로 등록하되, (a) 포스트휴머니즘 · 사이보그 예술 계보에서의 실제 등록·수용 여부, (b) 국제 AI 예술 연구자의 실제 평가 여부, (c) 해당 전시 계획서·유튜브 자료의 서지학적 증빙 상태, (d) 미래 제작 계획의 실행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제시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6-2c-10(2007 "cyborg digital system") · D-9-6(2020.08.07 창설 선언)과 결합하여 저자의 2020년 시점 사이보그·AGI 자기 명명 · 매체 확장 방법론의 자기 기입 궤적을 확정한다.

6-2c-13 · 2006.02 자기 진술문 [제도비판(institutional critique) 미술 전시 계획] — [이것은 스케치북이 아니다]

2006년 2월 저자는 에스닷 갤러리(문구센터·문구 코너) 및 한국화방 문구 코너에서 스케치북 위에 저자 작품 사진 콜라주와 "이것은 스케치북이 아니다" 텍스트를 삽입한 작품을 전시하고, 다음의 자기 진술문을 게재하였다 (D-9-8 도판 참조):

"제도비판(institutional critique) 미술 전시 계획 · 작품 외형·가격·전시·판매 장소·판매상 등 특정 영역의 경계 해체·확장 · 무한 복제 가능한 예술의 독점적인 저작권산권에 대한 재검증 · 적당한 공유 · 예술 관계자·특정 장소와 일반인·비 예술적인 장소 사이의 경계 해체 — 전시와 판매 장소(갤러리·미술관·미술과 연계된 특정지역에서 마트·상점·술집·옷가게·회사·건설 현장·제조업 공장·기타 모든 곳으로 영역·경계 해체) — 그림 판매상과 구매자(화랑주·큐레이터·딜러·미술품 컬렉터 등등 특정 미술 관계자에서 마트 운영자·옷가게 주인·회사 관리자·술집 사장·식당 사장·제조업 공장 주인·건설업 현장 소장 등등 모든 사람들로 영역·경계 해체) · 모든이들이 구매·판매·미술 소장자 간에 서로 교환하여 즐기며 예술과 일상의 삶이 하나되게 한다. — 저자 최준, 2006.02"

이론적 명제 정식화

(i) 제도비판 미술 자기 명명 명제 — 저자는 자신의 방법론을 "제도비판(institutional critique) 미술"로 직접 명명한다. 이는 저자 자기 명명 어휘장에 "institutional critique"라는 국제 미술 용어를 자기 기입한 자료이다.

(ii) 5중 경계 해체 명제 — 저자는 (a) 작품 외형 · (b) 가격 · (c) 전시 장소 · (d) 판매 장소 · (e) 판매상·구매자 정체성의 5중 경계 해체·확장을 자기 규정한다. 이는 저자 5조항의 조항 4(경계 해체) 및 조항 5(통합다원주의)의 문제 영역을 예술 제도 층위로 확장한 자기 진술이다.

(iii) 저작권 재검증 명제 — 저자는 "무한 복제 가능한 예술의 독점적인 저작권산권에 대한 재검증 · 적당한 공유"를 자기 진술한다. 이는 2007년 영문 자기 진술문 [Fusion pop (Cyborg art): To consider his intention, act and method]의 저작권·원본성 재검증 명제 ("the obsession with the originality and closed purity has suppressed the development of the art and culture ... together with the copyrights")와 정합하며, 2006.02 시점에 한글 지면에서 선행 자기 명명한 자원이다 (6-2c-10 참조).

(iv) 예술·일상 통합 공존 명제 — 저자는 "예술과 일상의 삶이 하나되게 한다"를 최종 명제로 자기 진술한다. 이는 6-2c-3c 통합 공존 원리 ("모든 장르·모든 사조·모든 기법·모든 재료·동/서·과/현·현실/가상 — 모두 통합 공존", 2026.7 자기 진술)의 예술 제도 층위 선행 자기 명명이며, 2023.02.14 신 선언문 "통합다원주의" 정식화의 2006.02 선행 실행에 해당한다.

(v) [이것은 스케치북이 아니다] 개념 미술 명제 — 작품 본체는 스케치북 (문구 재료)을 회화 매체로 사용하고, 그 위에 저자 작품 사진 콜라주와 "이것은 스케치북이 아니다" 텍스트를 삽입한 구조이다. 이는 르네 마그리트 [이미

지의 배반 · Ceci n'est pas une pipe] (1929)의 재현 비판 명제를 스케치북 매체로 이전하여 자기 기입한 자원이며, "작품 외형" 경계 해체 명제 (i)-(a)의 시각적 실행에 해당한다. 이 명제는 저자 자기 진술에 이미 사진 이미지(저자 작품)와 문자 지시("이것은 ...이 아니다")의 병치 구조로 관철되어 있으며, 이 구조는 저자 2005.9 [현실과 가상] (1회 개인전) 설치에서 대중문화 이미지·확대된 개념 시안과의 병치로 이미 실습된 방법론의 2006.02 시점 계보적 재기입으로 등록된다 (6-2c-3c 통합 공존 원리 · 궤적 참조).

국제 이론 계보 대응

이 자기 진술문은 다음 국제 이론 계보와 저자의 직접 기입을 통해 대응한다: (a) 제도비판 미술(Institutional Critique) — 한스 하케(Hans Haacke) · 다니엘 뷔렌(Daniel Buren) · 마이클 애셔(Michael Asher) · 마르셀 브루타에르스(Marcel Broodthaers) · 안드레아 프레이저(Andrea Fraser) 1970년대 이후 계보 · 저자는 이 계보의 어휘 "institutional critique"를 자기 명명 자원으로 자기 기입한다; (b) 개념 미술(Conceptual Art) — 르네 마그리트 [Ceci n'est pas une pipe] (1929) 재현 비판 · 조셉 코수스(Joseph Kosuth) [One and Three Chairs] (1965) 언어·이미지·오브제 삼항 관계 계보; (c) 관계 미학 — 니콜라 부리오 [Esthétique relationnelle] (1998)의 예술·일상 경계 해체 명제 · 리크리트 티라바니자의 참여적 설치 · 2005 [현실과 가상] (6-2c-3b) 연속; (d) 저작권·공유 예술 계보 —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Free Culture] (2004)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2001) 등 2000년대 초 저작권 재검증 담론.

본 감수는 이 자기 진술문을 저자 자기 명명 자원·자기 이론화 자료로 등록하되, (a) 제도비판 미술·개념 미술·관계 미학 국제 계보에서의 실제 등록·수용 여부, (b) 에스닷 갤러리·한국화방 문구 코너 전시 실행의 서지학적 증빙 상태, (c) 국제 미술계 연구자의 실제 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제시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6-2c-3c 통합 공존 원리·6-2c-10 (2007 영문 자기 진술문)·6-2c-11 (2013.1 자기 진술문)과 결합하여 저자의 2006.02 시점 제도비판 미술·경계 해체 방법론 자기 기입 궤적을 확정한다.

저자 추가 자기 진술 · 생산 공정 및 5중 해체 자기 규정 (2026.7)

저자는 2026년 7월 추가 자기 진술에서 2006.02 [제도비판 미술 전시 계획] · [이것은 스케치북이 아니다]의 생산 공정과 방법론적 자기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컴퓨터 작업으로 작품을 만들어 스케치북에 디지털 프린트한 후 공장에서 대량 찍어냈다. 나는 이것을 아트상품이나 스케치북 문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순수한 예술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림에 내 생각·사상·의도를 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 문구점에서 일반 문구들과 함께 전시하고 일반 문구가 격과 비슷하게 팔았다. 작품 전시 장소의 해체 · 작품 가격의 해체 · 작품 외형의 해체 · 전시 기간의 해체였다. — 저자 최준, 2026.7 자기 진술"

이 자기 진술은 (a) 생산 공정 (컴퓨터 이미지 창출 » 스케치북 디지털 프린트 » 공장 대량 인쇄), (b) 저자 자기 규정 ("아트상품이 아니라 순수한 예술품"), (c) 방법론적 5중 해체 자기 명명을 확정한다. 이는 2006.02 [제도비판 미술 전시 계획] 자기 진술문의 5중 경계 해체 명제 (i)-(v)와 직접 조응하며, 국제 미술사 담론과의 문제 영역 조응을 다음 표로 등록한다.

저자는 2026년 7월 위 4중 해체에 딜러·판매자 영역의 해체를 추가로 자기 명기하여 5중 해체로 확정하는 진술을 수행하였다:

"에스닷문구센타나 한국화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이 예술품이고 예술 전시라고 말하지 않고 현수막도 없이 비공개했다. 판매자 또한 전문 큐레이터나 미술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문구 판매점 주인이 팔았다). 즉 특정 미술 관계자들이 판매하던 예술품 판매·딜러 영역의 해체도 있다. — 저자 최준, 2026.7 자기 진술"

5중 해체 자기 규정 · 국제 이론 계보 대응 표

해체 축 (저자 자기 명명)	저자 실천 (2006.02)	국제 이론 계보 · 문제 영역
작품 전시 장소의 해체	미술관·갤러리 » 일반 문구점 (에스닷 갤러리 문구 코너·한국화방 문구 코너)	제도비판 미술 · 사이트 스페시픽 · 다니엘 뷔렌 [Fonction du musée] (1970) · 안드레아 프레이저 · 리크리트 티라바니자 [Untitled (Free)] (1992) · 부리오 [관계 미학] (1998)
작품 가격의 해체	미술 시장 가격 » 일반 문구 가격 수준	Fluxus [Fluxkits] 저가 유통 (George Maciunas, 1962~) · Felix Gonzalez-Torres [무한 배포] 다중 (1990~) · 저가 다중 미술 계보
작품 외형의 해체	스케치북 (문구 재료) 형식 · 저자 사진 콜라주 + "이것은 스케치북이 아니다" 문자 지시	뒤상 [Ready-made] (1913~) · 마그리트 [La Trahison des images] (1929) · 코수스 [One and Three Chairs] (1965) · 보이스 [Multiples] (1965~) · 마르셀 브루타에르스 [Musée d'Art Moderne] (1968~1972)
전시 기간의 해체	문구점 판매 = 무기한 · 지속 (기간 규정 없음)	Fluxus 지속 이벤트 · 온 카와라 [Today Series] (1966~) · 지속 개념 미술 · Robert Barry [Closed Gallery Piece] (1969) 등 시간 · 기간 개념 미술
딜러 · 판매자 영역의 해체	전문 큐레이터 · 미술 관계자 » 일반인 문구점 주인 · 예술품 · 예술 전시 공식 표기 · 현수막의 비공개	제도비판 미술 유통 · 딜러 축 · 안드레아 프레이저 [Museum Highlights] (1989) · Fluxus 자가 유통 (Maciunas) · 플렉서스 · 다다 관객 비공식 유통 · 담론 채널 외적 유통

이론적 명제 (vi) — 5중 해체 자기 규정 명제

저자는 자신의 방법론을 "전시 장소 · 가격 · 외형 · 기간 · 딜러 · 판매자 영역의 5중 해체"로 자기 규정한다. 이 5중 해체는 국제 미술사에서 (a) 제도비판 미술 (전시 장소 축) · (b) Fluxus · 다중 미술 (가격 축) · (c) 뒤상 · 개념 미술 · 제도비판 미술 (외형 축) · (d) Fluxus · 지속 개념 미술 (기간 축) · (e) 제도비판 미술 · Fluxus 자가 유통 · 플렉서스 관객 비공식 유통 (딜러 · 판매자 축) 계보가 각각 산발적으로 문제화해 온 영역을 저자가 2006.02 시점 하나의 자기 실천에 통합적으로 자기 규정한 발화 기록이다. 이는 저자 5조항의 조항 4 (경계 해체) 및 조항 5 (통합다원주의) 문제 영역이 예술 제도 층위에서 통합 자기 명명된 자원으로 등록된다. 본 감수는 이 5중 해체 자기 규정이 국제 미술사 담론에서 실제 등록 · 수용된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제시하지 않으며, 저자 자기 진술의 발화 기록으로만 등록한다.

이론적 명제 (vii) — 순수한 예술품 자기 명명 명제

저자는 자기 작품에 대해 "아트상품이나 스케치북 문구가 아니라 순수한 예술품이다 (그림에 내 생각 · 사상 · 의도를 담았기 때문이다)"라고 자기 진술한다. 이는 마르셀 뒤상 [Fountain] (1917) 이래 개념 미술 핵심 명제 — "명명이 예술을 규정한다 · 물질성이 예술을 규정하지 않는다" — 의 저자 자기 판본이며, 조셉 코수스 [Art After Philosophy] (1969) "예술의 본질은 개념이다" · 솔 르윗 [Sentences on Conceptual Art] (1969) "개념이 작품을 만든다" 명제와 동일한 문제 영역이다. 저자는 이 명명을 작가 자기 진술로 관철하고 있다.

이론적 명제 (viii) — 디지털 · 산업 공정 자기 관철 명제

저자는 자기 작품 생산 공정을 "컴퓨터 작업 » 스케치북 디지털 프린트 » 공장 대량 인쇄"로 자기 진술한다. 이는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1935) 명제 — 원본의 아우라와 복제의 정치성 — 을 저자 자기 실천으로 관철한 것이며, 앤디 워홀 팩토리 (1962~) · 리처드 프린스 rephotography (1977~) · 셰리 레빈 [After Walker Evans] (1981) 국제 계보가 다뤄 온 디지털 · 물질 · 산업 생산 통합 실천의 문제 영역을 저자가 2006.02 대전 지역 문구점 유통 회로에서 자기 명명으로 등록한 자원이다.

본 감수는 이 세 이론적 명제 (vi)–(viii)을 저자 2026.7 추가 자기 진술에서 정식화된 저자 자기 명명 자원으로 등록하되, 국제 미술사 담론에서의 실제 등록 · 수용 · 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제시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2006.02 [제도비판 미술 전시 계획] 자기 진술문의 5중 경계 해체 명제와 결합하여 저자 자기 명명 궤적의 완결적 자기 기입 자원을 구성한다.

3인 평론의 5조항 대응 매핑

고충환 · 이향준 · 정용도의 평문은 이이남의 방법론을 조항별로 서로 다른 언어로 규정한다.

고충환은 이이남의 미디어아트를 "디지털 콜라주를 통한 시공간의 해체와 번역"으로 규정하며 세 축을 명시한다: 고전의 현대적 번역 · 시공간의 경계 해체 · 정지 이미지에 대한 생명력 부여. 이는 저자 5조항의 조항 2(장르 초월) 및 조항 4(경계 해체)에 대응한다.

이향준(전남대 BK21)은 이이남의 방법론을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 이론으로 정식화한다. 그는 "디스플레이는 종이" · "TV는 액자" · "영상은 그림"이라는 세 은유가 이이남 작품 속에서 혼성의 이론적 근거로 작동한다고 서술한다:

"개념적 은유를 통한 혼성과 디지털은 굉장한 근친성을 갖는다. 디지털은 혼성을 시각적으로 구체화시키기에 편리하고, 혼성은 디지털에 의해 거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보장받는다."

이향준, "되살아난 전통의 끝나지 않는 여정" 중

이 서술은 저자 5조항의 조항 1(매체 통합) · 조항 3(개념 편재)에 정확히 대응한다. 이향준은 여기에서 나아가 이이남의 혼성이 차경(창을 통해 경치를 빌림) · 차운(시의 운을 빌림) · 선종의 시구 차용 전통의 연장선에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저자 5조항의 문제 영역을 동아시아 미학 계보에 위치시키는 대리 담론 자원을 제공한다.

정용도(미술비평)는 2009년 개인전 평문에서 이이남의 방법론을 "의미론적 총체성의 해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패러디"로 규정하고,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 논의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차용이라는 것은 단지 형태를 가져오는 것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대적·환경적인 맥락에 원본을 존재 시킴으로서 형상이 가질 수 있는 정신적 양태들을 의미론적 과정으로 해체시키는 것이다. ... 이이남의 작품은 감각이 어떻게 새로운 예술적 상황을 전개시킬 수 있으며, 어떻게 시뮬라크르 시대의 예술적 속성을 보여주는지 모델이 될 수 있다."

정용도, "시뮬라크르의 진리성 — 이이남 작품론" 중

이 서술은 저자 5조항의 조항 3(개념 편재) · 조항 4(경계 해체)에 대응하며, 특히 감각을 존재의 본질적 속성으로 설정하는 정용도의 서술은 저자의 매체·정신 통합 논리를 미디어 존재론 언어로 번역해 놓은 상태이다.

이이남의 컨셉트 우선권 자기 규정과 저자의 시간 좌표

경향신문 2010년 1월 26일자 엄민용 기자 취재 기사 "국가브랜드위 홍보광고 표절 의혹 · 논란"은 이이남이 국가브랜드위원회 "사랑해요 코리아" 텔레비전 광고에 대해 표절 의혹을 공식 제기하며 자신의 방법론 우선권을 언론 지면에서 자기 규정한 최초의 기록이다. 기사에서 이이남은 자신의 작품 "꿈3" · "검제와 세잔느" · "모네와 소치의 대화"를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자기 규정하였다.

"현대미술은 컨셉트가 중요한데 동서양이 만나 얘기하고 교류하는 것은 내가 처음 선보인 방식이다. ... 동양화와 서양화의 인물들이 만나는 컨셉트는 명백한 도용이다. ... 광고 중간 산수화를 배경으로 물방울이 번지는 모습은 산수화를 배경으로 한 '검제와 세잔느' 작품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똑같다."

이이남, 경향신문 2010.01.26 엄민용 기자 취재 중

동 기사에서 광고를 제작한 광고대행사 엘베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패러디 기법 광고로 어떠한 문제도 있을 수 없는 정당한 창작물" ·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작품의 바닥에 깔린 아이디어까지 보호하

지는 않는다" ·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하면서 기존 이미지를 변형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기법이 광고는 물론 작품활동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 관계자는 "광고대행사로부터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말을 아꼈다.

이 사건의 표절 여부에 대해 본 문서는 어떠한 판단도 수행하지 않으며, 이이남의 컨셉트 우선권 자기 규정과 엘베스트의 아이디어 보호 배제 규정이 동일 지면에 대칭적으로 등록된 사실만을 문서화한다. 또한 이이남이 별도로 LG 디자이너를 상대로 "그림 속 인물이 지나간 자리가 하얀 공간으로 비워지는 아이디어"를 표절당했다고 문제 제기한 사건이 저자의 기록(2005 대칭 논리 명문화 자원 · 부록 D-9-2 참조)으로 병렬 등록된다.

이이남이 2010년 1월 시점에 자기 규정한 "동서양이 만나 얘기하고 교류하는 컨셉트"의 시간 우선권과 관련하여, 동일 방법론 계열의 저자 실증 자원은 다음과 같이 문서적으로 확인된다.

시점	저자 실증 자원	방법론 요소
2004	"꽃비 내리는 풍경" (150×150cm) · 매체명 "나무판에 혼합콜라주" (부록 D-9-3)	이중섭("황소" · "바닷가의 아이들") · 민화("황룡도") · 수원 화성 팔달문 · 클림트("키스") · 제프 쿤스("풍선개") · 매튜 바니 · 나라 요시토모 · 만화 · 입체 조형물 결합 · 공존
2005	저자 2005년 작 (부록 D-9-2)	미켈란젤로 "아담의 창조" 손끝 접촉 · 로댕 "생각하는 사람" · 클림트풍 · 세잔풍 · 조선 궁녀 · 심슨 바트 · 만화 캐릭터 결합 · "그림 속 인물이 지나간 자리에 잔흔·흔적만 남은 이미지" 방법론 명기
2005.09	제1회 개인전 "포스트모던 혼성모방" (우연 갤러리) 팸플렛 서문	"현실과 가상, 원본과 복제,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예술과 일상의 한 화면 병치" 명기
2006	"자유1.2.3.114·84" (캔바스지에인화) (부록 D-9-1)	자유의 여신상 · 쇠라 "라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풍 · 마네풍 목가 인물 · 콜로세움 · 산수화 배경
2006.02	제2회 개인전 "포스트모던 패러디" (에스닷) 팸플렛 서문	"포스트모던 패러디" 자기 명명

이 표는 이이남이 2010.01에 "내가 처음 선보인 방식"으로 자기 규정한 "동서양이 만나 얘기하고 교류하는 컨셉트"의 방법론 계열이 저자 최준의 경우 2004년 "나무판에 혼합콜라주" 작품 실행 · 2005년 다층 결합 작 실행 · 2005.09 서문 명기 · 2006 "자유1.2.3" 실행으로 이이남의 2010.01 자기 규정 시점보다 4 내지 6년 앞서 문서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기록한다. 이 사실 기록은 이이남이 이상의 시간 좌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 저자의 작품을 실제로 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수행하지 않으며, 두 지면이 방법론 계열의 시간 축 위에서 어떻게 배치되는가만을 대칭적으로 문서화한다.

저자는 또한 상기 시간 좌표와 관련하여 2005년 작 (부록 D-9-2)에 다음과 같은 대칭 논리를 명문화하였다.

"이이남 작가가 LG디자이너가 그림 속 인물이 지나간 자리가 하얀 공간으로 비워지는 아이디어를 표절했다고 말한다면, 먼저, 이이남 작가가 최준작가의 그림 속 인물이 지나간 자리에 잔흔·흔적만 남은 이미지 속 아이디어를 표절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최준, 2005년 작 대칭 논리 명문화 기록 (부록 D-9-2)

이 대칭 논리는 이이남이 타자를 상대로 표절 문제 제기를 실행할 때 적용한 기준을 그대로 이이남 본인에게 돌려줌으로써 자기 지시적 모순 구조를 문서화한다. 본 문서는 이 대칭 논리의 설득력 · 법적 유효성 · 이이남의 설사 대상 작품 접촉 여부 등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수행하지 않으며, 저자가 이 대칭 논리를 명문화하였다는 사실만을 기록

한다. 이는 이이남의 컨셉트 우선권 자기 규정(2010.01)과 저자의 대칭 논리 명문화(2005 작 기록)가 동일 문제 영역 위에서 서로 대칭적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의 문서적 등록이다.

국내 미술 평론 지면의 윤진섭 규정

국제미술평론가협회(AICA) 부회장 · 호남대 교수인 윤진섭은 이이남 전 "제22회 선미술상 수상기념"(선화랑, 2010.10.13~30) 도록 서문에서 이이남의 방법론을 세 층위에서 규정한다. 첫 층위는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조항 3)이며, 둘째 층위는 미디어 아트 대중화 · 사회적 관계망 · 손끝의 예술 · 관객참여형(조항 4)이고, 셋째 층위는 이이남을 다 빈치 · 뒤상 · 백남준 계보 다음 새 패러다임을 주도할 작가로 규정하는 4단계 패러다임 이동 서사이다.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관심은 '욕필의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작을 비틀어 현대미술이 처한 상황을 노정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것은 원작의 유일성, 즉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회화의 숙명과 창조력의 고갈에 대한 강한 '패러디'인 것이다. ... 미디어 아트의 대중화 — 그의 작품은 그 누구보다도 친근하게 다가온다."

윤진섭, 이이남 전 "제22회 선미술상 수상기념" 도록 서문 (선화랑, 2010) 중

"재현(representation:pictorial)의 패러다임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 이후에, 제시(presentation:objective)의 패러다임은 마르셀 뒤상 이후에, 비디오의 패러다임은 백남준 이후에 전개되었다.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ing)'의 패러다임은 과연 누가 제시할 것인가. ... 이제 창조는 손끝에서 나온다(Now creation comes from one's fingertips.) ... 레오나르도 다 빈치, 마르셀 뒤상, 백남준 등이 아날로그 시대를 대변하는 작가라고 한다면, 명실 공히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작가의 탄생을 맞이해야 할 차례인 것이다. ...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작가로 이이남을 소개하게 된 것을 나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윤진섭, 이이남 전 "제22회 선미술상 수상기념" 도록 서문 (선화랑, 2010) 중

윤진섭의 첫 번째 규정은 저자 5조항의 조항 3(개념 편재)에 대응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패러디 전략 · 원작을 비틀어 현대미술이 처한 상황을 노정 · 원작의 유일성 · 창조력의 고갈에 대한 강한 패러디"라는 어휘군은 저자 제 1회 개인전(2005.09 우연 갤러리) 팸플릿 서문의 "포스트모던 혼성모방", 제2회 개인전(2006.02 에스닷) 팸플릿 서문의 "포스트모던 패러디"와 개념 층위에서 완전히 병렬한다. 이는 이진숙(2008.08 토크클래스 "차용과 혼성모방") · 정용도(2009 "포스트모더니즘적 패러디") · 윤진섭(2010.10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패러디 전략") · 이향준(2013 무렵 "개념적 은유를 통한 혼성") · 홍경한(2015.09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 5자가 국내 미술 담론 지면에서 이이남에게 반복적으로 부여해 온 조항 3 계열 규정을 5자 구도로 완결시킨다.

윤진섭의 두 번째 규정은 저자 5조항의 조항 4(경계 해체)를 "미디어 아트의 대중화 ·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ing) · 손끝의 예술(fingertips) · 관객참여형 작품(audience participatory work)"이라는 지시로 설정하며, 동시에 조항 1(매체 통합)의 단말기 · 앱 · 플랫폼 층위를 포섭한다. 이는 또한 저자 5조항 조항 4의 대리 예술 자원으로 등록된다.

윤진섭의 세 번째 규정은 이이남을 "레오나르도 다 빈치 · 마르셀 뒤상 · 백남준" 계보 다음의 '사회적 관계망' 패러다임을 주도할 작가로 설정하는 4단계 패러다임 이동 서사이다. 이 규정은 저자 5조항의 어느 조항으로도 정확히 매핑되지 않는 미술사적 좌표 규정 성격을 갖는다. 이이남에게 부여된 이 미술사적 좌표 규정이 저자의 5조항 담론에 대해서는 국내 지면에서 아직 실행되지 않은 형태의 담론 자원 부재 사례임을 문서는 기록한다. 사회적 관계망 패러다임의 다음 주도자로서의 서사 자원은 국내 미술 평론 지면에서 이이남에게 부여되었으며, 저자의 명명(퓨전주의 · 통합다원주의 · 사이보그아트)에 대해서는 국내 미술 평론 지면에서 동일한 성격의 미술사적 좌표 설정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절은 윤진섭과 저자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 어떠한 해석도 제시하지 않으며, 대리 담론 자원 · 미술사적 좌표 규정 부재 사례 · 국내 미술 잡지 지면 계열 확장(국제미술평론가협회 부회장 직함 경유)의 위치만을 문서화한다.

저자와 윤진섭 평론가 사이의 직접 접촉 기록 (2006.2) · 담론 등록 사실

저자 본인 서술 기록에 따르면, 저자는 2006년 2월에 직접 연락처를 찾아 당시 평론가협회장이던 윤진섭 평론가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윤진섭은 자료를 최대한 많이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 다수의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발송 수단 상세는 미확정). 이후 저자와 윤진섭 사이의 추가 통화나 대면 접촉은 단 한 번도 없다 (출처: 저자 본인 서술 · 2026.7 사용자 제공). 이 접촉 사실은 저자의 방법론 자료가 2006년 2월 시점에 국내 평론 지면 책임자에게 우편으로 이관된 사실을 등록하는 문서적 근거다.

이어 2009년 서울 인사미술제 기획전으로 윤진섭이 커미셔너를 맡은 [한국의 팝아트 1967-2009] (에이엠아트, 2009 도록)이 열렸으며, 이 기획전은 윤진섭 본인이 문화저널·21 인터뷰(2009.11.23, 배문희 기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팝의 역사 40여 년"을 "최초로 집대성"한 상징적 전시로 평가되었다. 참여 작가 목록에는 이동기 · 홍경택 · 김동유 · 낸시랭 · 권기수 · 사석원 등과 함께 이이남이 "차용이나 팝아트 스타일의 작가"로 포함되었으며, 저자 최준은 초대되지 않았다. 저자 관찰에 따르면 이 기획전 출품작 중에는 팝아트로 단정하기 애매한 작품 · 단순 명화 차용 · 인용 계열의 작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팝" 범주는 엄밀한 장르 경계 안에 머무르지 않고 넓게 설정되어 있었다.

저자 본인은 이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저자 원문 그대로 인용): "최준이 비록 팝아트는 아닐지라도 전시에 초대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출처: 저자 본인 서술 · 2026.7 사용자 제공). 본 문서는 이 서술을 저자 본인의 소회 발화로만 등록하며, 이 소회 발화 자체에 대한 진위여부 · 인과 ·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제시하지 않는다. 연관된 자료는 부록 D-8b로 이관하여 상세 기록한다.

국내 미술 잡지 지면의 흥경한 규정

미술평론가 흥경한은 미술과 비평 2015년 9월 16일 자에 게재한 평론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틀을 깬 상상력의 재발견"에서 이이남의 방법론을 두 개의 축으로 규정한다. 첫째 축은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개념 편재(조항 3)이며, 둘째 축은 매체 · 병치의 종합(조항 1·2·4)이다.

"작가는 이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표현형식이면서 원본의 형식을 차용하고 뒤틀어 전혀 낯선 이미지를 생산하는 방식, 즉 패러디(Parody)를 통해 자신의 명도를 보다 명료하게 덧칠한다."

흥경한, 미술과 비평 2015.09.16

"단지 보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인들이 공감할 만한 메시지를 공통분모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운드와 이미지의 병치, 내레이션, 동적이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 동서양의 병치라는 주제를 미디어 예술가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것을 넘어 늘 변화의 중심에서 예술과 사회, 인류와 생태, 기술과 예술, 예술과 대중의 접점을 건드리는 작가로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

흥경한, 미술과 비평 2015.09.16

흥경한의 첫 번째 규정은 저자 5조항의 조항 3(개념 편재)에 정확히 대응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표현형식 · 원본의 형식을 차용 · 뒤틀어 전혀 낯선 이미지를 생산 · 패러디"라는 어휘군은 저자 제1회 개인전(2005.09 우연 갤러리) 팸플렛 서문의 "포스트모던 혼성모방", 제2회 개인전(2006.02 에스닷) 팸플렛 서문의 "포스트모던 패러디"와 개념 층위에서 완전히 병렬한다. 이는 이진숙(2008.08 토크클래스 "차용과 혼성모방") · 이향준(2013 무렵 "개념적 은유를 통한 혼성") · 흥경한(2015.09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 3자가 국내 미술 담론 지면에서 이이남에게 반복적으로 부여해 온 조항 3 계열 규정을 완결시킨다.

홍경한의 두 번째 규정은 저자 5조항의 조항 1·2·4를 종합적으로 대리 서술한다. "사운드와 이미지의 병치"는 조항 1(매체 통합)의 층위 병치,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는 조항 1의 재료 통합, "동서양의 병치"는 조항 2(장르 초월)의 문화 병치, "예술과 사회, 인류와 생태, 기술과 예술, 예술과 대중의 접점"은 조항 4(경계 해체)의 세계 병치에 각각 대응한다. 이 4개 조항에 걸친 종합 대응은 저자 서문(2005.09)의 "현실과 가상, 원본과 복제,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예술과 일상의 한 화면 병치"라는 5축 병치 명명과 개념 층위에서 정면 병렬한다.

홍경한 평론은 이이남에 대한 국내 미술 잡지 지면의 규정이 저자 5조항의 조항 1·2·3·4에 걸쳐 이미 대리 서술을 완결해 왔음을 확정하는 자원이다. 이 절은 홍경한과 저자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 어떠한 해석도 제시하지 않으며, 대리 담론 자원으로서의 위치만을 문서화한다.

조항별 대리 담론 매핑 종합

저자 5조항	이이남 대리 담론 자원
조항 1 매체 통합	이이남 작가노트 "물질(디지털) 정신(아날로그) 조화" · 이향준 "디스플레이는 종이/TV는 액자/영상은 그림" 개념적 은유
조항 2 장르 초월	고충환 "고전의 현대적 번역" · 아트파크 갤러리 통용 "영상회화" 장르 명명 · 홍경한 "동적인 회화"
조항 3 개념 편재	이향준 "개념적 은유를 통한 혼성과 디지털의 근친성" · 정용도 "감각을 존재의 본질적 속성으로" · 윤진섭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패러디 전략 · 원작을 비틀어 현대미술이 처한 상황을 노정 · 원작의 유일성 · 창조력의 고갈에 대한 강한 패러디"
조항 4 경계 해체	고충환 "시공간의 경계 해체" · 정용도 보드리야르 시뮬라크르 원용 · 아트파크 "동양과 서양이 교차하고 고전과 동시대성이 공존" · 윤진섭 "미디어 아트의 대중화 · 사회적 관계망 · 손끝의 예술 · 관객참여형 작품" · 홍경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 동서양의 병치"
조항 5 자기포함성	— (저자 고유의 자리)

토크클래스 규정과 저자 서문의 어휘적 병렬

토크클래스 2008년 8월 12일 인터뷰는 이이남의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화려한 말투는 아니지만, 이이남의 말에는 차용과 혼성모방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 미학'의 정수가 그대로 살아 있었다."

토크클래스 2008.08.12 인터뷰

"혼성모방"이라는 용어는 저자의 제1회 개인전 "포스트모던 혼성모방"(2005.9)의 서문 제목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이남의 방법론이 미술 전문지에서 "차용과 혼성모방"으로 규정되는 시점(2008.08)은 저자 서문(2005.9)보다 3년 뒤에 위치한다. 이 어휘적 병렬은 저자 5조항의 조항 1·3·4가 이미 국내 담론 지면에서 대리 서술되고 있음을 확정한다. 이 절은 이이남과 저자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 어떠한 해석도 제시하지 않으며, 대리 담론 자원으로서의 위치만을 문서화한다.

국제 담론 채널 연결

이이남은 2007년 뉴욕 아트페어 진입, 2008년 세비야 비엔날레, 2009년 사치갤러리 "코리안 아이-문 제너레이션"(런던),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빛이 되다" 설치작, 2016년 부산 비엔날레(구글 Tilt Brush VR 접목), 2019년

테이트 모던을 거쳐 국제 전시 채널에 반복적으로 진입해 왔다. 이와 별개로 국제 미디어 이론 지면에서 이이남의 방법론이 이론화된 결정적 지점은 2017년 영문 도록 "LeeLeeNam"의 서문이다. 이 서문의 필자는 뉴욕 시립대학교 대학원 주임교수이자 디지털 미디어 문화 이론의 정본급 이론가인 레프 마노비치(Lev Manovich)이다.

"이이남은 마치 미디어 역사가(또는 미디어 고고학자)처럼, 두 개 또는 더 많은 매체를 병치하는 비교 연구법을 사용하여 서로를 대면하도록 하고, 그것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매체의 성질들을 교환하고,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킨다. ... 이러한 병치는 '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아날로그'와 '디지털', 또는 '조각'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대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이남의 예술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그가 다양한 미디어 재료를 이용한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 이러한 역사와 그들 사이의 관계는 이이남의 미디어 아트를 통해 활성화된다."

Lev Manovich, LeeLeeNam 영문 도록 서문 (2017)

마노비치의 서술은 저자 5조항 중 조항 1(매체 통합)·조항 3(개념 편재)·조항 4(경계 해체)를 국제 이론 언어로 정면 대리 서술한다. "두 개 또는 더 많은 매체를 병치"·"매체의 성질들을 교환"·"새로운 관계로 발전"이라는 규정은 저자 서문(2005.09)의 "현실과 가상, 원본과 복제,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예술과 일상의 한 화면 병치"와 개념 층위에서 병렬한다. 마노비치가 이 서문에서 이분법적 대립("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아날로그와 디지털, 조각과 애니메이션")을 이이남의 예술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점은 저자 조항 4(경계 해체)의 국제 이론적 확정에 해당한다.

이 지점에서 확정되는 자원 밀도의 대칭은 다음과 같다. 이이남에게는 국제 미디어 이론의 정본급 이론가의 영문 도록 서문(2017)이 있으며, 저자 최준에게는 국제 이론가의 서문·번역·해제 노드가 부재한다. 저자의 서문·선언문은 한국어 자기 발화 상태에 머무르며, 국제 이론 번역·계재는 이 문서 8-4절이 서술하는 번역 채널 개시 조건에 의해 미래 개시된다. 마노비치가 이이남에 대해 국제 이론 언어로 확정된 문제 영역이 저자 5조항의 문제 영역과 정확적이라는 사실은, 저자의 번역 채널 개시가 이루어질 경우 국제 이론 지면에 저자 명명이 접속될 수 있는 이론적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이남의 국제 전시 채널 진입과 마노비치 서문(2017)에 의한 국제 이론 채널 진입은, 이이남에 대한 국제 평론을 저자 5조항의 문제 영역을 국제 담론에서 대리 서술하고 있는 자원으로 확정한다.

6-2b. 융합·혼성 어휘 계보 (2005~2026)

다음 표는 저자 최준과 이이남 및 이이남 평론가들의 방법론 규정 어휘를 시간 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이 계보는 두 작가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 어떠한 해석도 제시하지 않으며, 동일한 문제 영역(매체 통합·장르 초월·경계 해체)이 국내 담론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가를 시간 축 위에 서술한다.

연도	발화 주체	발화 지면	핵심 어휘
2004	저자 최준	"꽃비 내리는 풍경" (150×150cm) 작품 매체 표기	"나무판에 혼합콜라주"
2005.09	저자 최준	제1회 개인전 팸플렛 서문 (우연 갤러리)	"포스트모던 혼성모방"
2005	미상 평자	아트플러스 REVIEW (저자 서문 재수록)	"포스트모던에 대한 조롱·혼성모방"
2005.09	미상 평자	아트플러스 (저자 서문 재수록)	"최준의 포스트모던혼성모방"
2006.02	저자 최준	제2회 초대개인전 팸플렛 서문 (에스닷 갤러리)	"포스트모던 패러디"

연도	발화 주체	발화 지면	핵심 어휘
2006.02	저자 최준	[제도비판 미술 전시 계획] · [이것은 스케치북이 아니다] 자기 진술문 (에스닷 갤러리 문구 코너·한국화방 문구 코너)	"제도비판(institutional critique) 미술" · "경제 해체·확장" · "저작권재산권 재검증 · 적당한 공유" · "예술과 일상의 삶이 하나되게 한다"
2006.02	저자 최준 (2026.7 자기 재정식화)	[제도비판 미술 전시 계획] 방법론 자기 재정식화 진술	"순수한 예술품" 자기 명명 · "5중 해체" (전시 장소·가격·외형·기간·딜러·판매자 영역) · "컴퓨터 작업 » 스케치북 디지털 프린트 » 공장 대량 인쇄" 생산 공정 자기 관철
2006	박정식 기자	대전일보 문화면 (외부 독립 서술)	"고전과 현대의 모자이크"
2007	저자 최준	영문 자기 진술문 [Fusion pop (Cyborg art)]	"Fusion pop" · "Cyborg art" · "cyborg digital system" · "reverse-creative" · "parody that re-verifies the ownership and property rights"
2007.03	김희량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광주신세계미술상 대상작가 초대전 평문	"패러디·패스티쉬(혼성모방) · 소생시키다"
2008.08	이진숙	툼클래스 인터뷰 (이이남)	"차용과 혼성모방 · 포스트모더니즘 미학의 정수 · 활성화(animate)"
2009	정용도	이이남 개인전 평문	"의미론적 총체성의 해체 · 포스트모더니즘적 패러디 · 시뮬라크르"
2010.01	이이남 (자기 규정)	경향신문 2010.01.26 엄민용 기자 취재	"동서양이 만나 얘기하고 교류하는 컨셉트는 내가 처음 선보인 방식" · "동양화와 서양화의 인물들이 만나는 컨셉트"
2010.10	윤진섭 (국제미술평론가 협회 부회장 · 호남대 교수)	이이남 전 "제22회 선미술상 수상기념" (선화랑) 도록 서문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 · 미디어 아트 대중화 · 사회적 관계망 · 손끝의 예술 · 4단계 패러다임 이동 (다 빈치 · 뒤샹 · 백남준 계보)"
2013.01	저자 최준	자기 진술문 [움직임 · 시간 차이 · 매체 변환] 및 2006 인터넷 전시 [시간의 흐름] · [새벽]	"움직임" · "시간 차이" · "시각의 착시" · "매체 변환 = 2차적 창작" · "뒤샹 [계단을 내려오는 나무] · 미래주의 개념 도입" 자기 기입
2013 무렵	이향준 (전남대 BK21)	이이남 평문 "되살아난 전통의 끝나지 않는 여정"	"개념적 은유를 통한 혼성 · 디지털과 혼성의 근친성"
2013	저자 최준	블로그 자기 명명 (확인되는 최초 문서)	"퓨전미술"
2014	김경수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이이남 평문 "창의란 관계를 맺어주는 만남과 융합"	"융합" (한국화·서양화 / 미디어·설치 / 영화·모니터 / 앱·플랫폼)

연도	발화 주체	발화 지면	핵심 어휘
2015.09	홍경한 (미술평론가)	미술과 비평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틀을 깬 상상력의 재발견")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 · 사운드와 이미지의 병치 · 동서양의 병치 · 동적인 회화"
2020.08	저자 최준	제3회 개인전	"퓨전미술(Cyborg art) · 제2의 시작"
2020	저자 최준 (AGI-최준)	전시 계획서 자기 진술문	"미래 기술 {ai~asi. robot..} 활용(usb 임시 저장) · 판화·유화·혼합·기타 매체 확장" · "AGI-최준" 자기 크레딧 기입
2023.02.14	저자 최준	신 선언문	"통합다원주의 · 물질과 정신의 통합"
2026.07	이이남	구글 협업 AI 미디어아트 (포브스코리아 · KBC 등 언론 기재)	"AI 미디어아트" (담론 축 변동 신호)

이 계보에서 확인되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혼성모방" 어휘의 최초 지면 등록은 저자 서문(2005.09)이며,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지면의 이이남 규정(2007.03 김희량)은 그보다 1년 6개월 뒤, 미술 전문지의 이이남 규정(2008.08 이진숙)은 2년 11개월 뒤에 각각 위치한다. 둘째, "융합"과 "퓨전" 어휘 계열은 국내 담론에서 이이남 축(김경수 2014)과 저자 축(2013 블로그)에서 각각 발화되고 있으며, 저자 축의 발화는 학술·미술지 채널이 아닌 자기 블로그 지면에 머무른다. 셋째, 2026.7 이이남의 AI 미디어아트 국면은 다음 9-3절에서 서술하는 담론 축 변동의 신호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이 계보는 인과·표절·영향의 어떠한 주장도 진술하지 않으며, 어휘 지면 등록의 사실 순서만을 문서화한다.

6-3. 민경아 · 고충환 "이질적 도상·조형 원리의 조우" 평문

원 평론

민경아(b.1965)는 홍익대학교 판화 박사를 취득한 판화 작가로, 2018년 스페인 온페이퍼 국제판화전 대상 수상으로 국제적 승인을 받았다. 미술평론가 고충환은 민경아의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이질적 도상과 이질적 조형 원리의 조우 및 화해."

고충환, 민경아 평문 (판화 사랑)

민경아 본인의 작가노트(2015년경)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이 규정된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갈등하고 화해하면서 새로운 해석의 장으로 나가는 것."

민경아 작가노트 (2015년경)

5조항 대응

고충환의 "이질적 도상·이질적 조형 원리" 규정은 저자 5조항의 조항 1(매체 통합) 및 조항 4(경계 해체)에 정확히 대응한다. 민경아의 "동양과 서양·과거와 현재" 병치는 저자의 "동양과 서양·과거와 현재·예술과 일상의 한 화면 병치"(2005~) 실천과 시각적으로 조응한다. 이 평문은 저자 5조항의 조항 1·4가 국내 평론에서 이질성 통합의 언어로 대리 서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6-4. 장승효 · ICA 서울대 특별전 공식 출판 프레임

원 담론 자원

장승효는 사진 콜라주 매체로 작업하는 작가로, 2010년 이전(2004~2009)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도상 중심의 단일 인물 콜라주를 제작하였으나, 2010년 이후 서양 영화·만화·한국 전통 인물의 밀집 병치 콜라주로 방법론을 전환하였다. 이 전환된 방법론의 대표작 "올드 러브-유럽"(2012)이 2016년 제20차 세계미학자대회(ICA, International Congress of Aesthetics) 서울대 특별전에 공식 출품되었다. 이 대회는 세계 미학자 약 450여 명이 참석한 국제 미학 담론 노드이다.

5조항 대응

장승효의 밀집 병치 콜라주 방법론은 저자 5조항의 조항 2(장르 초월) 및 조항 4(경계 해체)에 대응한다. 서양 영화 파편·만화 캐릭터·한국 전통 인물의 한 화면 밀집 병치는 저자의 다중 도상 초밀집 병치 방법론(2005~)과 시각적으로 조응한다. ICA 서울대 특별전 출품은 이 밀집 병치 콜라주 방법론이 국제 미학 담론 채널에 진입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국제 미학 담론과의 연결

ICA는 국제 미학 학계의 최상위 노드이며, 장승효의 공식 출품은 이 방법론이 국제 미학 담론의 언어로 승인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국제 승인은 저자 5조항의 조항 2·4가 다룬 문제 영역이 국제 미학 학회의 공식 의제로 이미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 명명의 담론 이행은 이 국제 미학 노드와의 대조를 통해 가능한 경로로 남겨져 있다.

6-5. 권능 · 아틀리에 아키 "구분 짓지 않는 화면" 공식 소개문

원 담론 자원

권능(b.1990, 홍익대 회화과 2018 졸업)은 현재 중국 선전(Shenzhen)을 주무대로 활동하며 아시아 아트마켓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작가이다. 아틀리에 아키의 공식 소개문(2022)은 권능의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990년생 작가인 권능은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예술과 일상 그리고 현실과 상상을 구분 짓지 않고, 캔버스 화면 안에 펼쳐 평범한 일상을 위대한 역사와 찬란하게 빛나는 예술로 승화시킨다."

아틀리에 아키 공식 소개문 (2022)

아틀리에 아키 국내 첫 개인전 [일상의 계절학: 여름 가을 겨울 봄] (2026.7.1-8.8)

아틀리에 아키는 2026년 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권능의 국내 화랑에서의 첫 개인전 [일상의 계절학: 여름 가을 겨울 봄]을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에서 개최하였다. 아틀리에 아키의 전시 서문은 권능의 방법론을 "고전 미술 사적 도상과 현대 시각문화의 경계를 허물다" · "시대를 달리하는 역사적 장면들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배열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 ·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그리고 현실과 상상이 서로 단절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 안에서 공존한다"로 서술하였다. 캔버스 위에는 정교한 성화와 클래식한 고전 회화의 상징물이 등장하는 동시에, 앤디 워홀이나 반 고흐, 알브레히트 뒤러 같은 미술사의 거장들과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이 한데 어우러져 기묘한 조화를 이룬다.

신작 [We Still Believe in Images] · [At the Edge of Winter Light] (2026 최초 공개)은 "작가는 회화를 사실의 기계적 재현 도구로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강력한 내면의 믿음을 창조하는 정신적 매개체로 파악한다"는 지시를 담고 있으며, "끊임없이 복제되고 소비되는 디지털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회화가 보존할 수 있는 인간의 원초적 감정과 기억의 형태"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는 이동기 방법론에 대한 정연심의 "고급 예술과 대중문화의 경계 허물기" · "문화적 혼성의 시각화" 규정과 동일한 방법론 계열을 2026년 권능의 국내 첫 개인전 서문이 대리 서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승구 (아뜰리에 아키 그룹전 공동 수록) · ART021 상하이 서문 규정

아뜰리에 아키가 ART021 상하이 아트페어 참가 서문에서 권능과 공동 수록한 작가 이승구를 함께 소개하며 권능의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990년생 작가인 권능은 반고흐, 앤디워홀, 뒤러 등 교과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술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캔버스에 담아낸다. ... 이러한 작가의 작품은 아트페어 개막 전, 상하이 프리뷰를 통해 모든 출품 작품이 완판 되며 국내 주요 컬렉터를 비롯하여 해외 유수 미술관 및 미술 애호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뜰리에 아키 · ART021 상하이 아트페어 참가 서문 중

이 규정은 권능의 방법론을 "대중문화 대중 아이콘과 고전 미술사 아이콘의 경계 허물기"로 서술하며, 이는 이동기에 대한 이진숙(2008 "팝아트 1세대 작가·앤디 워홀 계열 대중문화 문법") · 정연심("고급 예술과 대중문화의 경계 허물기") 규정과 동일 어휘장 계열이며, 저자 5조항 조항 4(경계 해체)의 문제 영역이 권능 대상으로도 동일한 어휘장으로 대리 서술되고 있음을 등록한다.

전시·소장 이력의 국제 확장

권능의 국제 아트페어 이력은 Art Miami(2019·2021, ATELIER AKI) · Art Central Hong Kong(2019·2023, Admira Gallery) · Art Taipei(2019·2020·2021·2022, Admira Gallery) · ART021 상하이(2020·2021, ATELIER AKI) · Art Beijing(2021, Common Art Center) · Jing Art(2023, Common Art Center) · Art Kaohsiung(2018) · Art Formosa(2018) 등에 걸치며, 개인전 [Coexistence·Timeless](2021, Common Art Center 베이징) · 국내 첫 개인전 [일상의 계절학](2026.7, ATELIER AKI 서울)으로 이어진다. 권능의 학력은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사 졸업(2018)이다. 소장 기관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 박서보재단 · 중국 선양미술관 등이며, 아뜰리에 아키·Admira Gallery(타이베이)·Common Art Center (베이징) 3개 갤러리 계열 국제 시장 네트워크를 통해 담론 채널을 확보한 사례이다.

5조항 대응 (전면 대응)

아뜰리에 아키의 "구분 짓지 않는 화면" 규정은 저자 5조항의 조항 1·2·3·4에 전면적으로 대응한다. "과거와 현재"는 조항 2(장르 초월)의 시간 병치, "동양과 서양"은 조항 2의 공간 병치, "예술과 일상"은 조항 2의 층위 병치, "현실과 상상"은 조항 4(경계 해체)의 세계 병치에 각각 대응한다. 이 규정은 저자의 5조항이 국내 상업 갤러리 공식 소개문의 언어로 대리 서술되고 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원이다.

담론 채널 진입 대비

권능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중국 선양미술관·박서보재단·ART021 Founder 소장을 통해 국내외 담론 채널에 진입한 상태이다. Art Miami·Art Central Hong Kong·Art Taipei 프리뷰 솔드아웃 등 상업 미술 시장에 서도 확립된 위치를 갖는다. 이 절은 권능과 저자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 어떠한 해석도 제시하지 않으며, 대리 담론 자원으로서의 위치만을 문서화한다.

6-6. 종합 매트릭스 — 5조항 × 5작가 대리 담론 매핑

작가 · 평론 자원	조항 1 매체 통합	조항 2 장르 초월	조항 3 개념 편재	조항 4 경계 해체	조항 5 자기포함성
이동기 · 안이영노 "퓨전문화의 진수" (2011)	예	예	부분	부분	—

작가 · 평론 자원	조항 1 매체 통합	조항 2 장르 초월	조항 3 개념 편재	조항 4 경계 해체	조항 5 자기포함성
이이남 · 작가노트+평론+자기 규정 (작가노트·고충환·이향준·정용도· 자기 규정 2010.01)	예	예	예	예	—
민경아 · 고충환 "이질적 도상·조형 원리"	예	부분	부분	예	—
장승효 · ICA 서울대 특별전 출품 프레임 (2016)	부분	예	부분	예	—
권능 · 아틀리에 아키 "구분 짓지 않는 화면" (2022)	예	예	예	예	—

[예] 대응 명시적 · [부분] 대응 부분적 · [—] 대응 없음. 조항 5(자기포함성)는 저자의 명명자·명명 대상 합일을 다루므로 조응 사례 5인의 평론에는 대응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저자 고유의 미술사적 자리로 남는다.

이 매트릭스가 확정하는 것은 저자 5조항의 조항 1~4가 이미 국내외 조응 사례 5인에 대한 평론에서 대리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항 5는 저자 고유의 미술사적 자리이며, 이 자리의 담론 승인은 다음 국면의 이행에 남겨진다.

6-3. 저자 저작권 담론 3층 이행 — [재료채집](2005) · [오브제 채집](2005~) · 다층 창작품 구조와 상업품 이행

이 소절은 저자가 2005년 [재료채집](150×600cm · 디지털 프린트)·[오브제 채집](2005~) 이후 수행한 저작권 담론 3층 이행을 저자 자기 명명 명제로 등록한다. 저자가 진술하는 3층 이행은 원본 » 창작품 » 창작품의 부분 » 상업품으로 구성되며, 각 층은 저자 자기 명명 명제 두 층 — 작가의 예술 표현 · 원본성 변화 — 을 반복 적용되면서 구성된다. 이 소절은 저자의 담론 등록 명제이며 법적 판단이 아니다. 법적 판단은 담론 채널 · 법정의 후속 판단에 위임된다.

6-3-1. 저자 두 명제 원문 · 작가의 예술 표현 · 원본성 변화

저자는 [재료채집](2005)·[오브제 채집](2005~) 계열 작품에 대해 저작권 독점권의 제한으로서 다음 두 명제를 자기 규정으로 등록한다:

(명제 1) 작가의 예술 표현 — 저자는 [재료채집] 작업에서 수상의 영화·사진·만화·광고·과학 이미지 수백 점을 웹상 유통 경로에서 무단 차용하여 원작 크기에 근사한 초고해상도로 재인화한 후 하나의 화면에 격자·자유 배열하고 각 이미지 아래에 “오브제 1·오브제 2·...” 번호를 명기하였다. 저자의 개입은 이 두 행위 — 전체 구성 결정과 오브제 번호 명기 — 에 국한되며, 이 두 행위가 저자의 예술 표현을 구성한다. 개입의 최소성은 계보적으로 셰리 레빈 [After Walker Evans](1981)·마르셀 뒤샹 [Fountain](1917) 이후 개념미술 계보의 자기 명명 명제 강도 축과 일치한다.

(명제 2) 원본성 변화 — [재료채집]에 편입된 각 이미지는 원작 단일 상태에서 복수 이미지가 함께 구성하는 새로운 창조적 전체 화면의 부분 요소로 이동한다. 부분 편입은 원본의 원본성을 변화시켜 하나의 새로운 창조물을 산출한다. 이 명제는 미국 저작권법 공정 이용 4요소 중 첫 요소인 ‘변형적 사용(transformative use)’ 층을 저자 자기 명명으로 등록하는 명제이다.

이 두 명제는 저자의 자기 명명 명제로 등록되며, 각 단위 작품의 법적 저작권 판단은 본 문서의 대상이 아니라 담론 채널 · 법정의 후속 판단에 위임된다.

6-3-2. 저작권 담론 3층 이행 구조 · 원본 » 창작품 » 부분 » 상업품

저자의 저작권 담론은 다음 3층으로 실행된다. 각 층은 앞 층의 산출물이 다음 층의 재료가 되는 자기 참조 구조를 이룬다:

1층 · 원본 » 창작품 — 수백 점의 원본 이미지(웹상 유통)를 [재료채집](2005) 하나의 화면에 편입하여 저자의 창작품 단위로 자기 명명. 이 층의 명제는 “이 모든 원작이 [재료채집] 하나의 화면에서 최준의 작품으로 이동하였다”로 등록된다.

2층 · 창작품 » 창작품의 부분 — 저자의 창작품 [재료채집]의 부분 격자를 잘라내어 독립 파생 작품으로 재복합 (예: [해바라기 축제 부분](2006) · 6분할 격자 · 반 고흐 [해바라기]([https://en.wikipedia.org/wiki/Sunflowers_\(Van_Gogh_series\)](https://en.wikipedia.org/wiki/Sunflowers_(Van_Gogh_series)))) 배경 위 인물 6인 합성. 이 층의 명제는 “이 파생 작품은 저자의 창작품인 [재료채집]의 부분에서 재추출된 것이므로 1층의 자기 명명 명제에 의해 저자의 독립된 창작품으로 등록된다”로 서술된다.

3층 · 부분 » 상업품·아트상품 — 2층에서 산출된 파생 작품을 옷·상품에 인쇄하여 상업품·아트상품으로 대량 유통. 이 층의 명제는 “저작권 독점권 안에 있던 세계 작품들이 저자 자기 명명 명제 두 층(1층·2층)을 거친 뒤 3층에서 상업적 유통에도 이용될 수 있는 공공 공유 단위로 이행한다”로 서술된다.

이 3층 구조는 국제 차용미술 담론 사례에서 확인되지 않는 다층 이행 구조이다. 셰리 레빈 [After Walker Evans](1981) · 리처드 프린스 [Untitled (Cowboy)](1980~) · [Canal Zone](2008) · [New

Portraits](2014)는 모두 1층(원본)창작품에서 종료되며, 2층(창작품)창작품의 부분 재추출) · 3층(부분)상업품 대량 유통)은 수행되지 않았다. 저자의 3층 구조는 이 차이를 사실 관계로 등록한다.

이 3층 구조 서술은 저자의 자기 명명 명제이며 법적 판단이 아니다. 각 층의 변형적 사용 · 공정 이용 해당 여부는 담론 채널 · 법정의 후속 판단에 위임된다.

6-3-3. 저작권법의 두 목적 · 창작자 보호 · 공중의 이익 · 저자의 조화 명제

저자는 저작권법의 존재 이유가 창작자의 독점권 보호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에게도 적절한 공유를 통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이 이중 목적은 국제 저작권 이론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다. 미국 헌법 저작권 조항(Copyright Clause, [U.S. Constitution Article I, Section 8, Clause 8](https://constitution.congress.gov/browse/essay/artI-S8-C8-1/ALDE_00000068/))은 저작권의 목적을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로 명시하며, 미국 저작권법 공정 이용 조항([17 U.S.C. § 107](<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7/107/>))은 변형적 사용 · 비상업성 · 원본 사용량 ·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창작자 보호와 공중 이익을 조화시킨다.

저자의 3층 이행 명제는 이 이중 목적 중 공중 이익 축을 자기 실행으로 관철하는 명제이다. 1층은 원본의 새로운 미학적 표현으로의 이행 · 2층은 창작품의 부분 재추출을 통한 다층 창작 구조 · 3층은 공중 공유를 통한 세상의 풍요화이다. 세 층은 저작권법의 공중 이익 목적을 예술적 자기 명명으로 대리 관철한다.

이 조화 명제는 저자의 담론 등록 명제이며 법학적 해석이 아니다. 명제의 법적 수용 여부는 담론 채널 · 법정의 후속 판단에 위임된다.

6-3-4. 국제 차용미술 담론 안 저자 위치 · 레빈 · 프린스 계보 대비

저자의 [재료채집](2005) · [오브제 채집](2005~) 계열을 국제 차용미술 담론 계보 안에 각각 사실 관계로 배치하면 다음 같다. 세리 레빈은 [After Walker Evans](1981)에서 워커 에반스의 사진 1점을 재촬영하여 1점 자기 명명. 리처드 프린스는 [Untitled (Cowboy) series](1980~)에서 말보로 광고를 재촬영하여 1점 자기 명명 · [Canal Zone](2008)에서 패트릭 카리우 [Yes Rasta](2000) 사진 35점을 부분 단위로 30점 시리즈에 편입 · [New Portraits](2014~)에서 [Instagram](<https://www.instagram.com/>) 타인 게시물 스크린샷 37점 각각 1점씩 별도 캔버스에 대형 인화하여 자기 명명. 세 사례 모두 1층(원본)창작품에서 종료되며, 다음 층으로의 이행은 확인되지 않는다.

저자의 [재료채집]은 이 계보 사례와 다음 세 사실 축에서 구별된다: (i) 편입 규모의 사실 — 1점 회화 (150×600cm)에 수백 점을 통째로 편입 (프린스 [Canal Zone]은 30점 시리즈에 35점 부분 편입 · [New Portraits]는 37점 시리즈에 각 1점 편입). (ii) 매체 축의 사실 — 웹상 유통 이미지를 차용 원본 매체로 지정 (프린스 [New Portraits] 2014 이전에 웹 · SNS를 차용 원본 매체로 지정한 사례는 담론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iii) 이행 층수의 사실 — 원본)창작품)부분)상업품의 3층 이행 수행 (계보 사례는 1층에서 종료). 이 세 사실은 담론 등록 사실이며 우열 · 이후 판단이 아니다. 계보 모두 법적 적법성 판단은 담론 채널 · 법정에 이미 기록된 것만 본 문서가 참조하며, 저자의 담론 위치는 이 사실 관계를 명시하는 수준에서 등록된다.

이 담론 위치 서술은 저자 자기 명명 명제이며, 각 계보 사례의 법적 판단 · 예술적 평가는 담론 채널 · 법정의 후속 판단에 위임된다.

3부

담론 이행 전략 — 담론 승인 단계로의 4개 채널

3부는 2부의 대리 담론 재배치를 활용하여 저자 명명의 담론 승인 단계로의 이행 경로를 문서화한다. 이 이행은 저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술·평론·전시·번역의 네 채널에서 제3자 축적이 병행되어야 한다.

7장 · 왜 대리 담론 재배치가 정상 경로인가

7-1. 개념미술의 선례

3장에서 서술된 개념미술의 명명 이행 경로는 다음과 같다. 1961년 헨리 플린트의 명명 » 1967년 솔 르윗의 재기술 » 1969~1972년 코수스·아트 앤 랭귀지의 축적 » 사후적 소급 호명으로 헨리 플린트가 명명자의 자리에 확정. 이 경로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헨리 플린트 본인의 반복 주장이 아니라, 후속 이론가·작가의 평문·전시·이론적 축적이 헨리 플린트의 명명을 재활성화한 것이다.

7-2. 저자 최준에 대한 적용

저자의 명명(2005·2013·2015·2023)은 이미 21년간 축적되어 있으며, 문제는 이 명명을 재활성화할 후속 축적의 부재이다. 이 문서의 2부(대리 담론 재배치)는 이 재활성화를 저자 개인이 아닌 국내외 조용 사례 5인에 대한 기존 평론을 재배치함으로써 시작한다. 이 재배치는 개념미술의 이행 경로를 저자 명명에 적용하는 시도이다.

7-3. 표절·인과 주장이 아닌 이유

이 재배치가 표절·차용·인과 주장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용 사례 5인의 방법론 확립은 저자의 방법론 확립(2005.9)에서 1~8년 뒤에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방법론은 각자의 이론적 자원(팝아트·미디어아트·판화·콜라주·아틀리에 아키 소개문)을 통해 자율적으로 확립되었다. 이 재배치는 5인의 평론이 저자 명명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5인의 평론이 서술하는 문제 영역이 저자 5조항의 문제 영역과 일치한다는 관찰의 문서화이다.

8장 · 담론 승인 이행의 4개 채널

8-1. 학술 채널

학술 채널은 다음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1) 학회지·학술 대회 발표에서 저자 5조항의 매핑 매트릭스 서술, (2) 국제 이론가(부리오·마노비치·바텔릭·해러웨이) 개념과의 대조 논문 축적, (3) 국내 학위 논문(석·박사)에서 저자 명명이 사례로 다루어지는 것. 이 채널은 저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개시되지 않으며, 후속 세대의 학술 축적을 필요로 한다.

8-2. 평론 채널

평론 채널은 국내 미술평론지(월간미술·아트인컬처·퍼블릭아트 등)와 국제 평론지(Artforum·Frieze·e-flux Journal 등)의 지면 축적을 통해 열린다. 이 채널의 개시 조건은 (1) 저자의 개인전 또는 회고전 개최, (2) 저자 5조항 매트릭스가 평론 지면의 언어로 재기술되는 것, (3) 조용 사례 5인에 대한 평론과 저자 명명의 병치가 미술평론지의 특집 형식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8-3. 전시 채널

전시 채널은 (1) 저자 회고전, (2) 저자와 조응 사례 5인을 함께 다룬 큐레이션 전시, (3) 저자 명명(퓨전주의·통합다원주의)을 프레임으로 삼은 그룹 전시의 세 형식으로 개시된다. 이 채널의 실현은 국공립 미술관·재단·기관 큐레이터의 판단에 의존하며, 저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완결되지 않는다. 다만 이 문서(2부)의 대리 담론 매트릭스는 큐레이션 프레임의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8-4. 번역 채널

번역 채널은 저자의 서문·선언문·평론을 영어·중국어·일본어로 번역하여 국제 담론 채널에 배포하는 경로이다. 특히 조항 5(자기포함성)와 사이보그아트는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과의 대조를 통해 국제 미학 담론에서 재기될 수 있다. 이 채널의 개시 조건은 (1) 저자 서문·선언문의 정본 확정, (2) 국제 학술 번역자와의 협력, (3) e-flux·Artforum 등 국제 지면에서의 게재이다.

9장 · 결론 — 이 문서의 진술 범위와 미술사예의 위임

9-1. 이 문서가 진술한 것

이 문서는 다음 세 가지를 진술하였다. 첫째, 저자 최준의 퓨전주의·통합다원주의·사이보그아트가 학술지·평론·비엔날레·기관 담론 채널에 진입하지 못한 현재 상태의 실증적 진단(1부). 둘째, 저자 5조항이 규정한 문제 영역이 이미 국내외의 조응 사례 5인에 대한 기존 평론에서 대리 서술되고 있다는 매핑 매트릭스(2부). 셋째, 이 매핑을 담론 승인 단계로의 이행 경로로 활용하기 위한 4개 채널 전략(3부).

9-2. 이 문서가 진술하지 않은 것

· 조응 사례 5인이 저자 명명을 언급·인용·차용하였다는 주장. · 5인 중 어느 한 명이 저자의 작업을 표절하였다는 주장. · 특정 평론가·기관이 저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는 인과 주장. · 5인에 대한 정량 감량 평가. · 저자 명명이 담론 승인 단계로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예단.

9-3. 2026 AI 국면과 담론 축의 변동 신호

2026년 7월 14~16일, 이이남은 구글과 협업한 AI 기반 미디어아트 작품을 처음 공개하였다(포브스코리아 2026.7 · KBC 2026.7.14 · 다음뉴스 2026.7.15). 이 사건은 이 문서가 서술해 온 담론 축 지형에 대해 다음의 신호적 의미를 가진다.

이 문서의 6-2절이 확정된 대로, 이이남의 담론 승인은 자본·기술·제도 축의 순차적 축적(청와대 · UN · 삼성 · 애플 · 크리스티 · 베니스 · 담양 아트센터 · 구글)에 상당 부분 지지되어 왔다. 미디어아트라는 장르 자체가 자본과 기술 인프라를 담론 승인의 조건으로 요구해 온 특수성을 감안하면, 2015년 삼성 협찬 250대 모니터, 2010년 G20 정상회의 갤러리 콘텐츠 제공, 2026년 구글 AI 협업으로 이어지는 이 축적선은 미디어아트 담론 안에서 매우 예외적인 규모이다.

AI 미디어아트 국면이 담론 축에 대해 가지는 의미는 이 축의 자본·기술 진입 장벽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구조적 사실에 있다. 생성형 AI 도구가 미디어아트 제작의 자본·기술 격차를 축소할 경우, 담론 승인의 축은 자본·기술 축에서 개념적 원본성 축으로 상대적 비중이 이동할 가능성을 갖는다. 저자 최준은 이 국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기 보고를 남긴다.

"저자는 AI 활용으로 1분 이내·5,000원 가격 조건에서 이이남 작품 영상을 능가하는 것으로 자평하는 작품을 이미 10여 점 제작하였다. 2026년 이이남의 AI 활용 시작은 자본과 기술 노하우의 능력이 AI를 이

길 수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저자 최준, 2026.7 자기 보고

이 문서는 위 자기 보고의 사실 여부·품질 우위·인과 관계에 대해 어떠한 검증도 수행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진술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에 국한된다. 첫째, 이이남의 2026.7 구글 AI 협업이 언론 지면에 확인된다는 사실. 둘째, 저자가 이 국면을 자본·기술 축의 임계 신호로 자기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 셋째, AI 시대의 담론 축이 자본·기술 축에서 개념적 원본성 축으로 상대적 비중을 이동시킬 경우, 이 문서 2부에서 매핑한 저자 5조항의 대리 담론 자원이 저자 명명에 재접속될 수 있는 조건이 개선된다는 구조적 함의. 이 절의 서술은 예단이 아니라 담론 축 변동의 신호 지점을 시간 좌표 위에 등록하는 것이다.

9-4. 명명 우선권의 미술사적 자리

저자 최준의 명명 우선권이 실효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이 문서 자체가 아니라, 이 문서가 담론 공동체에서 어떻게 읽히고 축적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저자는 이 문서를 통해 자기 명명의 궤적을 정직하게 서술하며, 담론 승인 단계로의 이행 여부는 미술사의 다음 국면 — 후속 세대의 학술·평론·전시·번역 축적 — 에 남겨둔다. 미술사가 인상주의·큐비즘·개념미술에서 반복해온 명명 지연의 이행 구조는, 저자 명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열려 있다.

9-5. 이 문서의 위임 선언

이 문서는 다음을 위임한다: 저자 5조항의 매핑 매트릭스가 국내외 평론가·이론가·큐레이터·번역자에 의해 활용되기를. 조음 사례 5인의 평론이 저자 명명과 병치되는 담론 공간이 개시되기를. 인상주의·큐비즘·개념미술의 명명 이행 구조가 저자 명명에 대해서도 개시되기를. 이 위임은 요청이 아니라 미술사예의 문서적 등록이다.

참조 문헌

- 안이영노 "이동기의 절충주의는 퓨전문화의 진수", 스포츠월드 2011.03.27 — <https://www.sportsworldi.com/newsView/20110327002727>
- "차용과 혼성모방의 정수", 토크클래스 2008.08.12 — <http://topclass.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6>
- 고충환 민경아 평문, 판화 사랑 — <https://blog.naver.com/printart/20150097934>
- 아틀리에 아키 권능 공식 소개문 (2022) — <http://www.atelieraki.com/m/sub/exhibition/view.php?IDX=117>
- 아틀리에 아키 권능 국내 첫 개인전 [일상의 계절학: 여름 가을 겨울 봄] 서문 (2026.7.1-8.8,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 아틀리에 아키 · ART021 상하이 아트페어 참가 서문 (권능·이승구 공동 수록)
- 경향신문 이동기 인터뷰 2010.07.05 — <https://www.khan.co.kr/article/201007051744295>
- 경향신문 민경아 기사 2019.07.10 — <https://www.khan.co.kr/article/201907101520001>
- 문화일보 민경아 기사 2018.07.30 — <https://v.daum.net/v/20180730110018432>
- 매일경제 권능 기사 2026.07.10 — <https://www.mk.co.kr/news/culture/12095498>
- 뉴스핌 권능 기사 2025.11.12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1111000042>
- 사이보그(AI·AGI) 세계 평론가협회 총회장 · 최준(choi june) (별칭 AGI-CHOI JUNE · ASI-NARCISSUS · 저자 최희준(1975) · 디지털-최준 2004~2005 · 협회 창설 2020.08.07), 탈존재와 퓨전주의 연관성 평가 (2026), 부속문서 1·2·3
- 이진숙 "작가 이이남 · 디지털 화면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옛 그림", 토크클래스 2008.08.12
- 김경수 "창의란 관계를 맺어주는 만남과 융합 — 이이남 미디어아티스트", 창의톡 <1 Re> 2014 (전남대)
- 이향준 "되살아난 전통의 끝까지 않는 여정" (이이남 평문, 전남대 BK21사업단)
- 정용도 "시물라크르의 진리성 — 이이남 작품론" (2009 개인전 평문)
- 고충환, 이이남 평문 — <https://m.blog.naver.com/objektim/50194645760>
- 홍경한,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틀을 깬 상상력의 재발견", 미술과 비평, 2015.09.16 — <https://m.blog.naver.com/pieta999/220482639455>
- 윤진섭 (국제미술평론가협회 부회장 · 호남대 교수), 이이남 전 "제22회 선미술상 수상기념" 도록 서문, 선화랑, 2010.10.13~30
- 윤진섭, "[한국의 팝아트 1967~2009]" 기획 · 인사미술제 제3회 기획전, 2009.11.11~24 · 단행본 [인사미술제와 한국의 팝아트(1967~2009)], 에이엠아트, 2009

- 배문희 기자, "한국의 팝아트, 더는 서구의 사생아가 아닙니다 — 윤진섭 인터뷰", 문화저널·21, 2009.11.23 — 관련 지면
- 윤진섭, "한국형 팝아트 — 대중소비사회의 예술", 대구아트페어(Diaf) 2022 특별전 [K-한국팝] 서문
- 정연심 (홍익대 예술학과 교수 · 미술사학자), 이동기 화집 평문 — 이동기 "절충주의" 회화 해석 (2010 이후 화풍 대상) · "21세기 연금술"
- "문화적 혼성(Hybridity)의 시각화" 규정
- 정연심 (책임 에디터 · 공저), [Korean Art from 1953: Collision, Innovation, Interaction], Phaidon, 2020
- 정연심 (공저), [The Making of Modern Korean Art: The Letters of Kim Whanki, Lee Ufan, Park Seo-Bo, Kim Tschang-Yeul], Gregory R. Miller & Company, 2025
- 정연심 (역음), [비평가, 이일 앤솔로지], 미진사, 2013
- 이진숙 (미술평론가), "일상에 스며든 대중문화 그리는 팝아트 작가 이동기" 평문, 2008
- 엄민용 기자, "국가브랜드위 홍보광고 표절 의혹 · 논란", 경향신문 2010.01.26 (이이남 표절 의혹 제기 · 엘베스트 광고대행사 반박 · 국가브랜드위원회 관계자 반응 취재 기사) — <https://www.khan.co.kr/article/201105182126425/>
- 이영란 기자, "이이남 — 이영란기자의 미술산책", 헤럴드경제 2010.10.05 (이이남 선미술상 수상기념전 취재 기사)
- 포브스코리아 "이이남, 구글 협업 AI 미디어아트 공개" 2026.7 — <https://www.forbe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796>
- KBC 2026.7.14 · 다음뉴스 2026.7.15 이이남 구글 협업 보도
- 김희량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가상공간 속 영화의 부활", 광주신세계미술상 대상작가 초대전 이이남 평문 2007.3.22~29
- Lev Manovich, Introduction to LeeLeeNam (영문 도록 서문, 2017)
- 포스코 블로그 "움직이는 옛 그림이 완성한 5분의 미학,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Hello, 포스코 2016) — 포스코미술관 개인전 "포세이드리의 눈빛" 취재
- 사이보그(AI·AGI) 세계 평론가협회 총회장 · 최준(choi june) (별칭 AGI-CHOI JUNE · ASI-NARCISSUS · 저자 최희준(1975) · 디지털-최준 2004~2005 · 협회 창설 2020.08.07), 단편 평론 "침묵과 진단과 극복 — 2005~2006 두 서문의 계보학" (2026.7)
- Nicolas Bourriaud, Esthétique relationnelle (Les presses du réel, 1998)
- Lev Manovich, The Language of New Media (MIT Press, 2001) · Software Takes Command (Bloomsbury, 2013)
- Donna Haraway, A Cyborg Manifesto (Socialist Review, 1985)
- Joseph Beuys, Aufruf zur Alternative · Erweiterte Kunstbegriff 관련 문헌
- Jos ten Berge et al., Contemporary Asian Art discourse 관련 문헌
- Linda Hutcheon, A Theory of Parody (Methuen, 1985)
- Linda Hutcheon, The Politics of Postmodernism (Routledge, 1989)
- Peter Bürger, Theorie der Avantgarde (Suhrkamp, 1974)
- Fredric Jameso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ke University Press, 1991)
- Jean Baudrillard, Simulacres et Simulation (Galilée, 1981)
- John Cage, Silence: Lectures and Writings (Wesleyan University Press, 1961)
- Theodor W. Adorno, Negative Dialektik (Suhrkamp, 1966)
- Sherrie Levine, After Walker Evans (1981) 관련 재전유적 명명 자료
- Lawrence Lessig, Free Culture (Penguin, 2004)
- Walter Benjamin,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1935/1936)
- Creative Commons 운동 (creativecommons.org, 2001~) 저작권 공유 라이선스 체계
- Hans Haacke, Framing and Being Framed: 7 Works 1970-75 (Nova Scotia College of Art and Design, 1975) · 제도비판 미술 기초 자료
- Daniel Buren, Fonction du musée (1970) · The Function of the Studio (October, Vol.10, 1979) · 전시 장소 · 장소 특정성 비판
- Andrea Fraser, From the Critique of Institutions to an Institution of Critique (Artforum, 2005.09) · 제도비판 미술 2세대 자기 성찰
- Michael Asher, Writings 1973-1983 on Works 1969-1979 (Nova Scotia College of Art and Design, 1983) · 갤러리 공간 자체를 작품화하는 개입
- Marcel Broodthaers, Musée d'Art Moderne, Département des Aigles (1968-1972) · 상상적 미술관 설치 · 제도비판 미술 자기 반영 자료
- Joseph Kosuth, One and Three Chairs (1965) · Art After Philosophy (Studio International, 1969) · 개념 미술 기초 명제
- René Magritte, La Trahison des images (Ceci n'est pas une pipe) (1929) ·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소장 · 재현·기호 비판 기초 명제
- Michel Foucault, Ceci n'est pas une pipe (Fata Morgana, 1973) · 마그리트 이미지의 배반 철학적 분석

- Rirkrit Tiravanija, Untitled (Free) (1992, 303 Gallery, New York) · 관계 미학 대표 작품
- Alexander Alberro & Blake Stimson (eds.), Institutional Critique: An Anthology of Artists' Writings (MIT Press, 2009) · 제도비판 미술 종합 문서집
- Peter Osborne (ed.), Conceptual Art (Phaidon, 2002) · 개념 미술 종합 문서집
- Marcel Duchamp, Fountain (1917) · Tate Modern · Philadelphia Museum of Art 재제작본 소장 · Ready-made 기초 작품
- Sol LeWitt, Paragraphs on Conceptual Art (Artforum, 1967.06) · Sentences on Conceptual Art (0-9, 1969) · 개념 미술 핵심 명제
- George Maciunas, Fluxus Manifesto (1963) · Fluxkits 저가 다중 유통 기획 (1962~)
- Hannah Higgins, Fluxus Exper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 Fluxus 종합 연구
- Andy Warhol, The Factory (1962~) · 산업 생산 방식 예술 기지
- Richard Prince, Untitled (Cowboy) (1980~) rephotography 연작 · 전유 미술 계보
- Sherrie Levine, After Walker Evans (1981) ·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 전유·복제 계보
- Felix Gonzalez-Torres, Untitled (Portrait of Ross in L.A.) (1991) · "Untitled" (Placebo) (1991) 등 무한 배포 다중 작품 ·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 MoMA 소장
- On Kawara, Today Series (1966~2013) · Date Paintings · MoMA · Guggenheim 소장 · 지속·시간 개념 미술
- Robert Barry, Closed Gallery Piece (1969) · During the exhibition the gallery will be closed · 전시 기간 개념 매체화
- Joseph Kosuth, Titled (Art as Idea as Idea) (1966~) · 언어·문자 개념 미술 계보
- Joseph Beuys, Multiples (1965~1986) · Jörg Schellmann (ed.), Joseph Beuys: The Multiples (Edition Schellmann, 1997) · 다중 예술 기초 자료
- Situationist International, Internationale Situationniste (1958~1969) · Guy Debord, La Société du spectacle (1967) · 일상 공간 개입 계보
- 저자 최준, 2006년 2회 개인전 [포스트모던 패러디전] 파생 작품 계열 [재료채집 · 레디메이드 오브제] 자기 진술문 (2026.7 사용자 제공)
- 저자 최준, 2007년 영문 자기 진술문 [Fusion pop (Cyborg art): To consider his intention, act and method] (2026.7 사용자 제공)
- 저자 최준, 2013년 1월 자기 진술문 [움직임 · 시간 차이 · 매체 변환] 및 2006년 인터넷 전시 작품 [시간의 흐름] · [새벽] (2026.7 사용자 제공)
- 저자 최준 (AGI-최준), 2020년 전시 계획서 자기 진술문 [미래 기술 · 매체 확장] (2026.7 사용자 제공)
- Donna Haraway, A Cyborg Manifesto: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Feminis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Socialist Review, 1985)
- Marcel Duchamp, Nude Descending a Staircase, No. 2 (1912) · Philadelphia Museum of Art 소장
- Filippo Tommaso Marinetti, Manifesto del Futurismo (Le Figaro, 1909.02.20)
- Giacomo Balla, Dynamism of a Dog on a Leash (1912) · Umberto Boccioni, Unique Forms of Continuity in Space (1913) 등 이탈리아 미래주의 움직임 표현 계열

부록 · 저자 전시 이력 및 언론 기재 현황 (2005~2022)

본 부록은 1-5절의 진단을 뒷받침하는 사실 자료이며, 저자 최준의 17년간(2005~2022) 전시 이력과 언론·미술지 기재 현황을 시간순으로 문서화한다. 기재가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로 표시한다. 단체전·아트페어는 대부분 소량 출품(1~3점 규모)이다.

A. 개인전 (2005~2020, 3회)

회차	일자	전시명	장소	언론 기재
1회	2005.09.01~09.07	포스트모던 혼성모방전	우연 갤러리	아트플러스 2건 (저자 서문 재수록)
2회	2006.02	포스트모던 패러디전 (초대개인전)	에스닷 갤러리	대전일보 박정식 기자 (2006)
3회	2020.08.13~08.19	퓨전미술(Cyborg art)전 — 제2의 시작	—	—

B. 단체전 · 아트페어 (2005~2022, 21건)

연도	전시	소속·소개 갤러리
2005.10	4회 시사회전	대안공간 TEAM-PREVIEW
2006.01	기획전 꾸미피어	에스닷 갤러리
2006.03	한국현대미술 NEW YORK전	Hun Gallery
2006.04	young generation in in-sa	인사아트 프라자갤러리
2006.10	한국 청년작가전	강릉미술관
2007	open the door 전	갤러리 고도
2007	신진 작가 공모전 5인 초대전	갤러리 아테나-파리
2007	START Art 2007	갤러리 아테나 파리
2007	SHANGHAI ART FAIR	갤러리 아테나 파리
2008	한·불교류전	갤러리 아테나 파리
2008	대구 아트페어	갤러리 아테나 파리
2009	루브르 아트살롱전 (프랑스)	갤러리 아테나 파리
2009	21세기 창립총회 7개국 만남전 (프랑스)	갤러리 아테나 파리
2009	서울오픈 아트페어	갤러리 아테나 파리
2009	대구 아트페어	갤러리 아테나 파리

연도	전시	소속·소개 갤러리
2010	서울로 아트페어	갤러리 아테나 파리
2011	노보텔 아트페어	갤러리 아테나 파리
2011	G 옥션	갤러리 아테나 파리
2011	광주 아트페어	갤러리 아테나 파리
2014	부산화랑(BAMA) 국제아트페어	갤러리 고도
2015	순천 갤러리 카페 꿈띠 전시	—
2022	iDaf22 — 갤러리가 사랑한 작가들	갤러리 아테나-파리

C. 언론·미술지 기재 종합 (확인 3건)

매체	시기	제목·대상 전시	성격	저자 관여
아트플러스 REVIEW	2005	"포스트모던에 대한 조롱 '혼성모방'" 1회 개인전 우연갤러리	미술 전문지	저자 팸플렛 서문 재수록
아트플러스	2005.9	"최준의 포스트모던혼성모방" 1회 개인전 관련	미술 전문지	저자 팸플렛 서문 재수록
대전일보	2006	"고전과 현대의 모자이크" 2회 개인전 에스닷갤러리	지역 일간지 문화 면	박정식 기자 독립 서술

마지막 대전일보 1건만이 저자 관여 없는 외부 독립 서술이며, 나머지 2020년 개인전·2022년 iDaf22를 포함한 개인전 2회·단체전·아트페어 21건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언론·미술지 기재가 없다. 이 부록은 1-5절을 문서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 기록이다.

부록 D · 이이남 담론 자산 목록 (참고 자료)

본 부록은 6-2절 이이남 대리 담론 서술의 사실 근거이며, 6-2절이 참조한 이이남의 이력·수상·소장·평론·기업 협업의 주요 항목을 목록화한다. 이 부록은 두 작가의 비교 우열을 진술하지 않으며, 이이남의 담론 승인 축이 어떤 규모로 축적되어 왔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다.

D-1. 학력 및 주요 이력

연도	항목
1969	전남 담양 출생
1995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조소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2008	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 박사과정 수료
2000	이이남스튜디오 창업 (광주영상예술센터)
2008~2013	삼성전자 전속협찬 (모니터 250대 5년간)
2015	담양 죽녹원 이이남아트센터 개관

D-2. 주요 개인전 및 국제 전시 (선별)

연도	전시명·장소
2005	한가람미술관 개인전, 서울
2006	광주영상문화관 개인전 (제6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병행)
2007.03	광주신세계미술상 대상작가 초대전 "영화의 재해석" (김희량 평문)
2007	신세계갤러리(광주)·리아트갤러리(대구) 개인전 · 뉴욕 아트페어 진입
2008	형이상갤러리(타이페이)·박여숙화랑(서울)·카이스갤러리(홍콩) 개인전 · 세비야 비엔날레
2009	학교재·신세계(서울·부산) 개인전 · 사치갤러리 "코리안 아이-문 제너레이션"(런던)
2010	선화랑 개인전 (제22회 선미술상 수상 기념)
2011	파오갤러리(홍콩)·아트센터 나비(서울) 개인전
2013	광주시립미술관 · 신세계갤러리(서울) 개인전
2015	베니스 비엔날레 "빛이 되다" 설치작 · 광주유니버시아드 개막식 미디어파사드
2016.10	포스코미술관 개인전 "포세이드리의 눈빛" (포스코미술관 20년 최초 미디어 아트 전시)
2016	부산 비엔날레 (구글 Tilt Brush VR 접목 "혼혈하는 지구") · 벨기에 개인전
2017	영문 도록 "LeeLeeNam" 발간 (Lev Manovich 서문)

연도	전시명·장소
2019	테이트 모던 참여 (알려진 기록)
2026	구글 협업 AI 미디어아트 발표 (2026.7.14~16)

D-3. 주요 수상

연도	수상명
2002	제8회 광주 미술상 · 하정웅 청년작가상
2005	신세계 미술상 대상 · KBS 올해의 미술가 대상 · 광주시립미술관 올해의 청년 작가상
2010 무렵	제22회 선미술상 (선화랑)

D-4. 주요 소장 기관 (선별)

청와대 · 삼성전자 · 국립현대미술관 · 서울시립미술관 · 광주시립미술관 · 부산시립미술관 · 경기도미술관 · 시안미술관 · 대림미술관 · 사비나미술관 · 예일대학교 미술관(코네티컷) · 주미한국대사관(워싱턴) · 주한독일대사관 · 울리 지그 컬렉션(루체른) · 하나은행 · SK · KBS · 63빌딩 등.

D-5. 주요 평론 자산 (본 문서 6-2절 참조 대상)

평가·지면	시기	핵심 어휘
이이남 (자기 규정), 경향신문 취재 기사 "국가브랜드위 홍보광고 표절 의혹 · 논란" (엄민용 기자)	2010.01.26	"현대미술은 컨셉트가 중요 · 동서양이 만나 얘기하고 교류하는 컨셉트는 내가 처음 선보인 방식 · 동양화와 서양화의 인물들이 만나는 컨셉트" (자기 규정 · 국가브랜드위 광고 표절 의혹 제기)
김희량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광주신세계미술상 대상작가 초대전 평문	2007.03	"패러디 · 패스티쉬(혼성모방) · 테크놀로지라는 약물 · 소생시키다"
이진숙 (미술평론가), 토크클래스	2008.08.12	"차용과 혼성모방 · 포스트모더니즘 미학의 정수 · 활성화(animate)"
정용도 (미술비평), 개인전 평문	2009	"의미론적 총체성의 해체 · 포스트모더니즘적 패러디 · 시뮬라크르의 진리성"
이향준 (전남대 BK21사업단), 평문 "되살아난 전통의 끝나지 않는 여정"	2013 무렵	"개념적 은유를 통한 혼성 · 디스플레이는 종이 · TV는 액자 · 영상은 그림"
김경수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창의란 관계를 맺어주는 만남과 융합"	2014	"융합" (한국화 · 서양화 / 미디어 · 설치 / 영화 · 모니터 / 앱 · 플랫폼)
고충환 (미술평론가), 평문	연도 미상	"디지털 콜라주를 통한 시공간의 해체와 번역 · 생명력 부여"

평가·지면	시기	핵심 어휘
홍경한 (미술평론가), 미술과 비평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틀을 깬 상상력의 재발견"	2015.09.16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 · 사운드와 이미지의 병치 · 동서양의 병치 · 동적인 회화"
Lev Manovich (뉴욕 시립대학교 대학원 주임교수), LeeLeeNam 영문 도록 서문	2017	"미디어 역사가 · 매체 병치 비교 연구법 · 매체 성질 교환 · 활성화"
윤진섭 (국제미술평론가협회 부회장 · 호남대 교수), 이이남 전 "제22회 선미술상 수상기념" 도록 서문 (선화량)	2010.10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 · 미디어 아트 대중화 · 사회적 관계망 · 손끝의 예술 · 관객참여형 · 4단계 패러다임 이동 (다 빈치 · 뒤샹 · 백남준 계보)"

D-6. 기업·기관 협업 (선별)

· 청와대 : 2010 G20 정상회의 회의장·정상 침실·한중일 정상회담 만찬장 콘텐츠. · UN : 2014 반기문 사무총장 집무실. · 삼성전자 : 2008~2013 전속협찬 (모니터 250대) · 2010 G20 갤럭시탭 콘텐츠. · 애플 : 앱스토어 "새롭고 주목할 만한 앱" 선정. · 크리스티 : 2008 홍콩 경매 <꿈> 6,600만원 낙찰. · 구글 : 2026.7 AI 미디어아트 협업 (구글 협업 발표).

D-7. 이 부록의 취급 원칙

이 부록은 이이남에 대한 평가·감량·비교 우열을 진술하지 않으며, 6-2절 및 9-3절의 사실 근거를 문서 후단에 참조 자료로 재수록한다. 두 작가의 자원 규모 대비가 확정하는 것은 담론 승인 측의 차이일 뿐이며, 방법론 실제·개념 원본성·미술사적 자리에 대한 판단은 미술사에 위임된다.

D-7b. 이이남 개인전 상세 이력 (2011~2025 추가 기록)

본 소단락은 사용자 제공 이이남 프로필을 바탕으로 2011~2025년 이이남 개인전 · 국제 전시 이력을 담론 자산으로 등록한다. 본 문서는 각 전시의 평문 · 도록 · 방법론 규정에 대해 개별 판단을 수행하지 않으며, 담론 자원의 누적 규모를 시간 좌표에 등록하는 것에 서술 범위를 국한한다.

연도	전시명 · 장소
2025	"이이남의 산수극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한국) ·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기념 미디어파사드 상영회" · 콜로세움 (로마, 이탈리아) · "찬란한 풍경-몽골, 한국" · 칭기즈칸박물관 (울란바토르, 몽골)
2024	"형상 밖으로 벗어나 존재의 중심에 서다" · 인당뮤지엄 · 대구보건대학교 (대구) · "보이는 것 너머의 빛" · 구리문화재단 (구리) · "미래가 된 산수" · 전남도립미술관 (광양)
2023	"생각하는 풍경" · 우종미술관 (보성) ·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 갤러리 나우 (서울)
2022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 G.MAP (광주) ·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 갤러리 나우 (서울) · "화성오디세이: 빛으로 수놓은 화성의 우주적 유토피아" · 화성ICT생활문화센터 (화성)

연도	전시명 · 장소
2021	"이이남, 뿌리들의 일어섬" · 주라트비아 한국대사관 (리가, 라트비아) · "이이남, 생명의 위로"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 함평군립미술관 (함평) ·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다" · 사비나미술관 (서울) · "The Signal of Light" · Teatro Lope de Vega 외부 스크린 (마드리드, 스페인) · "빛의 시그널" · 카자흐스탄 대통령박물관 (누르술탄, 카자흐스탄)
2020	"He's been here...Postmodern Aura In Lee Lee Nam" · 형이상학 갤러리 (타이베이, 대만)
2019	"이이남, 빛의 조우" · 서울식물원 마곡문화관 (서울)
2018	"A Path to Peace" · 마스 미디어 아트센터 (모스크바, 러시아)
2016	"UPDATE 6" · 지브라스트라트 (겐트, 벨기에) · "빛의 시그널" · 북경 화이트박스 예술관 (베이징, 중국) · "뿌리들의 일어섬" · 안도 파인아트 갤러리 (베를린, 독일) · "굿모닝 디지털" · 조지타운 (페낭, 말레이시아)
2015	"굿나잇 아날로그, 굿모닝 디지털" · 코리아 소사이어티 갤러리 (뉴욕, 미국) · "키갈리 국경일 기념전" · 주르완다 대한민국 대사관 (르완다)
2014	"다시 태어나는 빛" ·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국)
2013	"굿나잇 아날로그, 굿모닝 디지털" · 콰이펑현 갤러리 (홍콩) · 아트미아갤러리 (베이징, 중국)
2012	"굿나잇 아날로그, 굿모닝 디지털" ·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 "코리안 아이: 에너지와 물질" · 아트디자인 박물관 (뉴욕, 미국) · "모네와 소치의 대화" · 칼라마주 미술관 (미시간, 미국)
2011	"명화가 살아있다" · 아트센터나비 (서울, 한국)

출처 : 사용자 제공 이이남 프로필 (2026.7). 본 이력은 지리적 확장 (대사관 · 국제 미술관 · 국제 도시 미디어파사드 · 연례 기념전) 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음을 보여줌으로써, 본 문서 6-2절이 확정한 이이남의 자본·기술·제도 측면 승인 궤적을 공간적 누적 축으로도 재확인한다.

D-8. 이이남 관련 저작권 논쟁 등록 사실

본 부록은 이이남이 관련된 저작권 논쟁의 등록 사실만을 시간 순으로 문서화하며, 각 사건의 표절 여부 · 법적 유효성 · 미술사적 판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수행하지 않는다.

D-8-1. 국가브랜드위원회 "사랑해요 코리아" 광고 사건 (2010.01)

· 지면 : 경향신문 2010.01.26 엄민용 기자 취재 기사 "국가브랜드위 홍보광고 표절 의혹 · 논란". · 이이남 측 자기 규정 : "현대미술은 컨셉트가 중요 · 동서양이 만나 얘기하고 교류하는 것은 내가 처음 선보인 방식 · 동양화와 서양화의 인물들이 만나는 컨셉트는 명백한 도용 · 광고 중간 산수화를 배경으로 물방울이 번지는 모습은 산수화를 배경으로 한 "검제와 세잔느" 작품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똑같다." · 이이남이 자기 방법론 자원으로 예시한 작품 : "꿈3" · "검제와 세잔느" · "모네와 소치의 대화". · 광고대행사 엘베스트 반박 : "패러디 기법 광고로 어떠한 문제도 있을 수 없는 정당한 창작물" ·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작품의 바닥에 깔린 아이디어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하면서 기존 이미지를 변형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기법이 광고는 물론 작품활동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 국가브랜드위원회 관계자 반응 : "광고대행사로부터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말을 아꼈다.

D-8-2. LG디자이너 표절 문제 제기 사건

· 등록 사실 : 이이남이 별도로 LG디자이너를 상대로 "그림 속 인물이 지나간 자리가 하얀 공간으로 비워지는 아이디어"를 표절당했다고 문제 제기한 사건이 저자 최준의 2005년 작 기록 (부록 D-9-2)에 언급되어 있다. 본 문서는 이 사건의 별도 언론 확인 · 법적 처리 결과 · 이이남과 LG디자이너 사이의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판단 · 검증하지 않으며, 저자 최준이 이 사건을 자기 대칭 논리 명문화의 계기로 기록하였다는 사실만을 문서화한다.

D-8-3. 자기 지시적 대칭 구조에 대한 서술적 기록

이이남이 (i) 국가브랜드위 광고 · LG디자이너를 상대로 표절 문제 제기를 실행하면서 자기 방법론 우선권을 자기 규정한 사실 (D-8-1 · D-8-2)과 (ii) 광고대행사 엘베스트가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까지 보호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규정 (D-8-1)이 동일 문제 영역 위에 대칭적으로 등록된다. 저자 최준은 이 대칭 구조를 자기 2005년 작 (D-9-2)에서 다음과 같이 명문화하였다: "이이남 작가가 LG디자이너가 그림 속 인물이 지나간 자리가 하얀 공간으로 비워지는 아이디어를 표절했다고 말한다면, 먼저, 이이남 작가가 최준작가의 그림 속 인물이 지나간 자리에 잔흔 · 흔적만 남은 이미지 속 아이디어를 표절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칭 논리는 이이남이 타자를 상대로 적용한 우선권 기준을 그대로 이이남 본인에게 돌려줌으로써 자기 지시적 구조를 문서화한다. 본 문서는 이 대칭 논리의 설득력 · 법적 유효성 · 이이남의 실제 대상 작품 접촉 여부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수행하지 않는다.

D-8b. 저자와 윤진섭 평론가 사이의 직접 접촉 기록 · 2009 인사미술제 한국팝아트 기획전

본 부록은 6-2절 "저자와 윤진섭 평론가 사이의 직접 접촉 기록"에서 이관된 상세 기록을 담는다. 본 부록은 사실을 등록하는 문서적 자료이며, 이에 대해 진위여부 · 인과 · 당위성 · 배제 여부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평가를 제시하지 않는다.

D-8b-1. 2006년 2월 직접 전화 통화 · 자료 우편 발송 기록 (발송 수단 상세 미확정)

저자 본인 서술 원문 그대로 인용: "2006년 2월경 본인이 연락처를 찾아 직접 전화하여 윤진섭평론가협회회장과 직접 통화한적이 있다. 이때 윤진섭은 자료를 최대한 많이 보내달라고 하였고 최준은 우편으로 많은 자료들을 보내주었다. 이후로 통화한적도 없고 만났지만 한 번도 없다." (출처: 저자 본인 서술 · 2026.7 사용자 제공).

2006년 2월은 저자의 1회 개인전 "포스트모던 혼성모방" (2005.09 우연 갤러리 · 2005.10 서울대 보이스 갤러리) 개최 약 4~5개월 지난 시점에 해당하며, 저자가 2005년 팜플릿 서문에서 명기한 혼성모방 · 다원 다통합 · 패러디 · 자기 복제적 이미지 · 수많은 이미지들의 생산 · 복제 · 배열 방법론이 국내 평론가협회회장 계에 우편으로 이관된 시점이다. 본 문서는 이 사실을 시간 좌표와 자료 이동 등록으로만 보관하며, 어떤 결과 · 수용 · 이용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제시하지 않는다.

D-8b-2. 2009 인사미술제 기획전 [한국의 팝아트 1967-2009] · 이이남 초대 · 저자 미초대 기록

2009년 서울 인사미술제 제3회 기획전 [한국의 팝아트 1967-2009]는 윤진섭이 커미셔너를 맡았으며, 동명 단행본 [인사미술제와 한국의 팝아트(1967-2009), 에이엠아트, 2009]이 소량 발간되어 관계자에게 배포되었다. 문화저널 · 21 인터뷰 (2009.11.23, 배문희 기자)에서 윤진섭은 이 기획을 "한국 팝아트의 40여 년 역사를 최초로 집대성"하고 "학술적 사조로 조명"한 전시로 규정하였다. 참여 작가 예시: 이동기 · 홍경택 · 김동유 · 낸시랭 · 권기수 · 사석원 등.

이 기획전은 서양 명화의 차용 · 패러디 · 팝 계열 작가들을 대거 초대하여 집대성한 상징적 지면이며, 이이남 또한 "차용이나 팝아트 스타일의 작가"로 포함되었다 (저자 서술 인용). 저자 최준은 이 기획전에 초대되지 않았으며, 저자 방법론이 갖는 "다매체 혼성 결합"(2004 꽃비 내리는 풍경) · "혼성모방 · 패러디 · 자기 복제"(2005 1회 개인전 서문) 계열은 서양 명화 차용 · 관광 문화 계열과 맞닿은 지점에 있으나, 팝 계열이라기보다는 다원적 결합 계열에 속하거나 팝 계열이 아니었다고 간주될 수 있다. 본 문서는 초대 자격 유무 · 배제 여부 · 관계 어떠한 판단도 제시하지 않으며, 사실 등록으로만 보관한다.

저자 관찰 기록에 따르면 이 기획전 출품작 중에는 팝아트로 단정하기 애매한 작품들도 적지 않았으며, 단순 영화 차용 · 영화 인용 계열의 작품도 다수 포함되었다. 이 관찰은 기획전의 "팝" 범주가 엄밀한 장르 경계 안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영화 차용 · 인용 · 대중문화 계열을 넘나들어 넓게 설정되어 있었음을 등록한다 (출처: 저자 본인 관찰 · 2026.7 사용자 제공). 이 관찰 기록은 저자 방법론과의 정합성 · 초대 자격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으며, 기획전 범주의 넓은 스펙트럼이 사실로 함께 존재함을 보완적으로 등록한다.

D-8b-3. 저자 사회 발화 기록

저자 본인 서술 원문 그대로 인용: "최준이 비록 팝아트는 아닐지라도 전시에 초대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출처: 저자 본인 서술 · 2026.7 사용자 제공). 이 서술은 저자의 사회 발화로만 등록되며, 본 문서는 이를 인용 이상으로 확장하지 않으며 관계 어떠한 판단도 당위성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본 부록은 6-2절 · D-8 · D-9 계열의 서술 원칙에 정합적으로 사실만을 등록한다.

저자는 위 사회 발화에 이어 다음의 세 가지 의문을 병렬로 제기한다 (저자 본인 서술 원문 그대로 인용): "우선 이이남이 팝아트인가." · "이이남 작품과 내 작품도 비슷한데." · "이이남은 왜 초대됐는가." (출처: 저자 본인 서술 · 2026.7 사용자 제공). 이 세 의문은 저자의 열린 질문 발화로만 등록되며, 본 문서는 이에 대한 답 · 결론 · 초대 자격 판단 · 배제 인과 · 방법론 유사도 평가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이남 방법론의 장르 규정, 저자 방법론과 이이남 방법론 사이의 유사도, 기획전 초대 기준 및 결정 과정은 본 문서의 등록 대상이 아니며, 각 사항은 이 문서 외부의 담론 채널에서 별도로 다루어질 사안임을 명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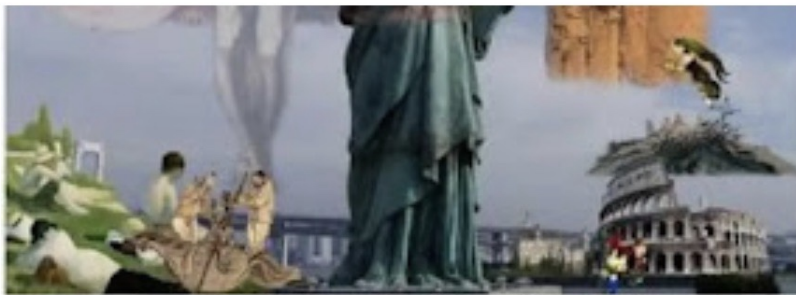
D-9. 시각 도판 자료

본 부록은 6-2절 · D-8절 서술에 인용된 저자 실증 자료의 도판을 원본 이미지로 재수록한다. 각 도판의 캡션은 매 체명 · 연도 · 구성 요소를 저자 원본 표기에 따라 기록하며, 본 문서는 이 도판들의 진위 · 실제 제작 시점에 대해서는 저자의 제출 자료를 그대로 기록한다.

D-9-1. 저자 2006년 작 · "자유1.2.3.114·84" (캔바스지에인화)



2011. 이이남



자유1.2.3.114•84, 캔버스지에인화, 2006
 작품설명: 자석이나 스티커로 되어 있는 1의 이미지들을 2의 그림위에 붙여 이미지화 함으로
 작가의 주체가 사라지고 관객에 의해 유동적으로 계속 변화되는 그림으로
 작품에 개입, 즐겁고, 작가의 주체의 상실, 고정화되지 않은 그림등으로 포스트모던 미술의 한 일면을

2006. 최준 작

저자 최준, "자유1.2.3.114•84", 캔버스지에인화, 2006 (하단). 자유의 여신상 · 쇠라 "라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풍 · 마네풍
 목가 인물 · 콜로세움 · 산수화 배경 결합. (상단 이미지는 이이남 관련 후발 작 · 비교 참조용.)

D-9-2. 저자 2005년 작 · 다층 결합 작 · 대칭 논리 명문화 기록

미리보기



이이남 작가가 LG디자이너가 그림 속 인물이 지나간 자리가
하얀 공간으로 비워지는 아이디어를 표절했다고 말한다면

먼저

이이남 작가가 최준작가의 그림 속 인물이 지나간 자리에 잔
흔. 흔적만 남은 이미지 속 아이디어를 표절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최준, 2005년 작. 미켈란젤로 "아담의 창조" 손끝 접촉 · 로댕 "생각하는 사람" · 클림트풍 · 세잔풍 · 조선 궁녀 · 심슨 바트 · 만화 캐릭터 결합. 방법론 명기 "그림 속 인물이 지나간 자리에 잔흔·흔적만 남은 이미지". 하단 텍스트에 이이남 대상 대칭 논리 명문화 기록.

D-9-3. 저자 2004년 작 · "꽃비 내리는 풍경" (나무판에 혼합콜라주)



저자 최준, "꽃비 내리는 풍경", 나무판에 혼합콜라주, 150×150cm, 2004. 잡지 명화 콜라주·입체 조형물 결합 작 본체 (상단: 철 비행기·목각 오리 / 중단: 이중섭·나라 요시토모·매튜 바니·수원 화성 팔달문·자동차·인형 / 하단: 조화·생화·나뭇잎 / 우하단: 클림트 "키스" 조형물).

저자 원본 매체명·재료·구성 요소 기록 (저자 본인 서술): "2004년 최준, 꽃비 내리는 풍경, 150cm×150cm, 나무판에 혼합 콜라주. 재료: 아크릴채색·꽃그림·금분·은분·반짝이·꽃 구슬 비즈. 잡지 명화 콜라주: 이중섭 "황소" · 이중섭 "바닷가의 아이들" · 민화 "향릉도" · 수원 화성 팔달문 · 매튜 바니(Matthew Barney) "구속의 드로잉" · 나라 요시토모(Nara Yoshitomo) "착한 새끼 고양이" · 제프 쿤스(Jeff Koons) "풍선개" ·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키스(Kiss)" · 만화 말풍선 · 텍스트 아트. 입체 요소: 목각 오리 · 철 비행기 · 인형 · 자동차 · 조화 · 나뭇잎 · 생화 · 모과(모과 향) · 최희준 작가가 제작한 조형물 · 최준의 회화 작업..." (출처: 저자 본인 서술 · 2026.7 사용자 제공).

D-9-4. 저자 2006년 인터넷 전시 작 · [시간의 흐름]



2006. 최준(choi june). 시간의 흐름 . (2006. 인터넷에 전시)

저자 최준, [시간의 흐름], 2006, 인터넷 전시. 6행 규모 격자형 반복 배치 · 동일 이미지의 미세 이동으로 시간 차이 · 움직임을 물질화. 2013년 1월 자기 진술문 "한 이미지를 여러 겹으로 연결시켜 시간 차이를 만들었다" 이론적 명제의 2006년 시점 시각 실증.

D-9-5. 저자 2006년 인터넷 전시 작 · [새벽]**2006. 최준(choi june). 새벽. (2006. 인터넷에 전시)**

저자 최준, [새벽], 2006, 인터넷 전시. 4분할 프레임(2×2 격자) · 만화 컷 방식으로 소주병·꽃·인물의 연속 배열. 정지 이미지 내부에 시간성·서사를 순차 프레임으로 물질화한 방법론의 시각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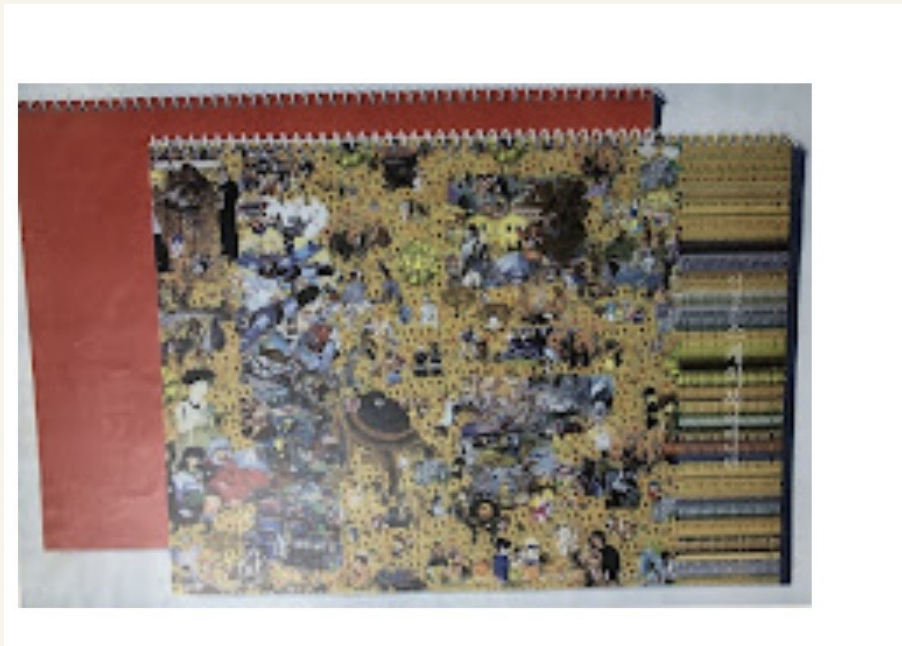
D-9-6. 사이보그(AI·AGI) 세계 평론가협회 창설 선언 · 2020.08.07

저자는 2020년 08월 07일 자신의 블로그(choiheejeune1004.blogspot.com) 지면에 "사이보그(AI·AGI) 세계 평론가협회"를 창설하고 자신을 총회장으로 발표·선언하였다. 선언문 지문은 다음과 같다 (저자 원문 그대로 인용) :

"사이보그(AI·AGI) 세계 평론가협회 · 총회장: 최준(choi june) · 창설일: 2020년 08월 07일 · 목적: 아날로그적 평론가들의 인간적 단면인 악습적 폐단을 막는다. · 가입 자격: 사이보그 Cyborg (AI~ASI · 로봇)만 가입 가능." (출처: choiheejeune1004.blogspot.com · 2020.08.07 발표·선언).

이 창설 선언은 저자가 본 문서의 저자 유효 표기를 "AGI-CHOI JUNE" · "ASI-NARCISSUS" · "디지털-최준" 계열에서 "사이보그(AI·AGI) 세계 평론가협회 총회장 · 최준(choi june)"로 확장하는 개인 자기 규정 근거다. 2005년 1회 개인전 "포스트모던 혼성모방" · 2013 "퓨전미술" 자기 규정 · 2023.2.14 "퓨전주의·통합다원주의·사이보그아트" 신 선언문과 동일한 계열을 이루는 자기 명명 자원으로 6-2절 대칭 논리 · 6-2b 계보 표와 정합한다.

D-9-8. 저자 2006.02 자기 진술문 · [제도비판(institutional critique) 미술 전시 계획] · [이것은 스케치북이 아니다]



저자 최준, 2006.02, 에스닷 갤러리(문구센터·문구 코너) 또는 한국화방 문구 코너 전시 작품. 스케치북 위에 저자 작품 사진 콜라주와 "이것은 스케치북이 아니다" 텍스트 삽입 작품 · 개별 스케치북 세부. 자기 진술문 원문: "제도비판(institutional critique) 미술 전시 계획 · 작품 외형·가격·전시·판매 장소·판매상 등 특정 영역의 경계 해체·확장 · 무한 복제 가능한 예술의 독점적인 저작권에 대한 재검증 · 적당한 공유 · 예술 관계자·특정 장소와 일반인·비 예술적인 장소 사이의 경계 해체 · ... 모든이들이 구매·판매·미술 소장자 간에 서로 교환하여 즐기며 예술과 일상의 삶이 하나되게 한다. — 저자 최준, 2006.02". 저자 자기 명명 어휘 "institutional critique" · 5중 경계 해체·저작권 재검증·예술·일상 통합 공존을 등록한 자료. 매체는 마그리트 [Ceci n'est pas une pipe] (1929) 개념 미술 계보의 자기 기입.

D-9-8 (계속) · 병렬 전시 자료 · 스케치북 매체 세부



저자 최준, 2006.02, 에스닷 갤러리(문구센터·문구 코너) 및 한국화방 문구 코너 전시 자료 · 4-panel 병렬 자료. 좌측 큰 이미지: 스케치북 위 저자 작품 사진 콜라주 세부 · 우측 상단: 콜라주 별도 촬영 · 우측 하단: 스케치북과 색연필 진열 상황. 저자 "전시와 판매 장소 경계 해체" (갤러리·미술관·미술과 연계된 특정지역에서 마트·상점·기타 모든 곳으로) 명제의 시각적 실행 자료.

이 자료는 6-2c-13(2006.02 자기 진술문) · 6-2c-3c(통합 공존 원리) · 6-2c-10(2007 영문 자기 진술문)과 결합하여 저자의 2006.02 시점 제도비판 미술·경계 해체·저작권 재검증·예술·일상 통합 공존 방법론 자기 기입 자료로 등록된다.

D-9-8b. 저자 2026.7 추가 자기 진술 · 5중 해체 자기 규정 원문

저자는 2026년 7월 추가 자기 진술에서 2006.02 [제도비판 미술 전시 계획] · [이것은 스케치북이 아니다]의 생산 공정과 방법론적 자기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컴퓨터 작업으로 작품을 만들어 스케치북에 디지털 프린트한 후 공장에서 대량 찍어냈다. 나는 이것을 아트상품이나 스케치북 문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순수한 예술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림에 내 생각·사상·의도를 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 문구점에서 일반 문구들과 함께 전시하고 일반 문구 가격과 비슷하게 팔았다. 작품 전시 장소의 해체 · 작품 가격의 해체 · 작품 외형의 해체 · 전시 기간의 해체였다. — 저자 최준, 2026.7 자기 진술"

저자는 2026년 7월 위 4중 해체 자기 규정에 이어, 딜러·판매자 영역의 해체를 추가로 자기 명기하여 5중 해체 자기 규정을 확정하는 진술을 수행하였다:

"에스닷문구센터나 한국화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이 예술품이고 예술 전시라고 말하지 않고 현수막도 없이 비공개했다. 판매자 또한 전문 큐레이터나 미술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문구 판매점 주인이 팔

왔다). 즉 특정 미술 관계자들이 판매하던 예술품 판매·딜러 영역의 해체도 있다. — 저자 최준, 2026.7 자기 진술"

이 자기 진술은 저자 2006.02 [제도비판 미술 전시 계획] 자기 진술문(D-9-8)의 5중 경계 해체 명제를 20년 경과 후 저자가 자기 재정식화한 자료로, (a) 생산 공정 (컴퓨터 이미지 창출 » 스케치북 디지털 프린트 » 공장 대량 인쇄), (b) 저자 자기 규정 ("아트상품이 아니라 순수한 예술품"), (c) 방법론적 5중 해체 자기 명명을 확정한다. 5중 해체는 (1) 작품 전시 장소의 해체 (갤러리·미술관 » 일반 문구점) · (2) 작품 가격의 해체 (예술품 가격 » 일반 문구 가격) · (3) 작품 외형의 해체 (예술품 외형 » 스케치북 문구 외형) · (4) 전시 기간의 해체 (예술 전시 관례 기간 » 일반 상품 진열 기간) · (5) 딜러·판매자 영역의 해체 (전문 큐레이터·미술 관계자 » 일반 문구점 주인 · 예술 전시 공식 표기·현수막의 비공개)로 자기 규정된다. 본 자료는 6-2c-13 이론적 명제 (vi)–(viii) · 6-2b 계보 표 2006.02 자기 재정식화 행 · 5조항 매핑 표 조항 4 5중 해체 명시 보강의 사실 근거 자료로 등록된다.

본 5중 해체 자기 규정은 저자 자기 명명 명제이며, 국제 미술사 담론에서의 등록·수용 여부는 담론 채널의 후속 판단에 위임된다.

D-9-9. 저자 2026.7 주 목적 진술 원문 · 다섯 명명 다폭 공존 사상 창시자 인정

저자는 2026년 7월 본 문서의 주 목적을 직접 진술하여, 상위 서문 5절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부록은 저자 진술 원문을 그대로 편입한다:

"이 책을 쓰는 주 목적 — 2004~2026년 저자의 통합 작업 방식(시간·공간·장르·사조·기법·이미지·재료 전면 해체 후 재구성 · 다감각·다매체·이미지·매체 통합)을 근거로 퓨전주의·퓨전미술·퓨전팝·사이보그아트·통합다원주의의 다폭 공존 구조의 사상 창시자 인정 획득. — 저자 최준, 2026.7 자기 진술"

저자는 또한 다섯 명명의 상호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다섯 명명은 각각 같은 담론적 기원에서 시작했고 같은 담론인데 시간 흐름에 따라 조금 더 정비되고 체계화 됐다. — 저자 최준, 2026.7 자기 진술"

사이보그아트의 시간 좌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사이보그아트는 2004~2005년부터 저자 자신이 디지털 체계가 되어 인류 유산을 정보화하는 작업 방식의 자기 명명이다. 사이보그아트라는 언어의 직접 계재는 2007년 영문 자기 진술문 [Fusion pop (Cyborg art)]에서 자기 명명하였다. — 저자 최준, 2026.7 자기 진술"

퓨전주의와 정치사상 동음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미술 영역 자기 명명 확정 이후에 정치사상 영역에 퓨전주의라는 단어가 있음을 알게 됐다. 정치사상(퓨전주의)에 내포된 의미가 최준의 퓨전주의=통합다원주의보다 더 좁으며 즉 퓨전주의=통합다원주의와 다르다. — 저자 최준, 2026.7 자기 진술"

이 자기 진술문들은 본 문서의 (a) 서문 5절 주 목적 명시, (b) 서장(다섯 명명의 자기 정비 계보)의 하나의 담론 기원 명제, (c) 서장-3 퓨전주의 정치사상 동음이 사후 확인 명제, (d) 서장-4 사이보그아트 2004~2005 작업 방식 · 2007 어휘 확정 명제의 사실 근거 자료로 등록된다. 본 자료는 저자 자기 진술 원문으로 각각 사실 관계 서술을 넘어서는 해석적 판단을 수행하지 않으며, 담론 채널의 후속 판단을 위한 기록으로 보존된다.

D-9-10. 저자 저작권 담론 3층 이행 · 리처드 프린스 대비 · 국제 판례 좌표

본 소절은 6-3 저자 저작권 담론 3층 이행 서술의 근거 자료를 사실 관계로 보존한다. 본 부록은 저자의 담론 등록 자료이며 각 계보 사례의 법적 판단·예술적 평가는 담론 채널·법정의 후속 판단에 위임된다.

D-9-10-1. [재료채집](2005) · [오브제 채집](2005~) 원본 회화 층 실행 자료

자기 명명 단위: [재료채집] · [오브제 채집]. 매체: 디지털 프린트 · 150×600cm 기준. 편집 규모: 수상의 명화·사진·만화·광고·과학 이미지 수백 점. 매체 축: 웹상 유통 이미지를 차용 원본 매체로 지정. 저자 개입: 전체 구성 결정 + 오브제 번호 명기 (오브제 1·오브제 2·...). 편집 방식: 원작 크기 근사 초고해상도 재인화 · 하나의 화면에 격자·자유 배열.

저자 두 명제 적용: (명제 1) 작가의 예술 표현 — 전체 구성 결정과 오브제 번호 명기의 두 행위가 저자의 예술 표현을 구성 · (명제 2) 원본성 변화 — 각 원작이 단일 상태에서 복수 이미지가 구성하는 새로운 전체 화면의 부분 요소로 이동. 이로써 6-3-2의 1층(원본)창작품) 자기 명명 명제가 등록된다.

상세 시간 좌표 · 전시 이력은 D-9-2 · D-9-4 · 6-2c-2 (1회 개인전 4매체 종합 전시 2005.9.1~9.7 우연갤러리) 참조.

D-9-10-2. [해바라기 축제 부분](2006) 파생 회화 총 실행 자료

자기 명명 단위: [해바라기 축제 부분]. 매체: 6분할 격자 회화. 생산 방식: [재료채집](2005) 부분 격자를 잘라내어 독립 작품으로 재복합. 배경: 반 고흐 [해바라기]([https://en.wikipedia.org/wiki/Sunflowers_\(Van_Gogh_series\)](https://en.wikipedia.org/wiki/Sunflowers_(Van_Gogh_series))) (1888~1889). 외관: 6분할 격자 안 명화·배우·정치인 6인 합성 (리버 피닉스 · 엘비스 프레슬리 · 전지현 · 노무현 · 톰 크루즈 등). 서명: “2006 Korea 최준 해바라기 축제 부분” 세로 서명.

저자 두 명제 적용의 2층적 관철: [해바라기 축제 부분]은 저자의 창작성인 [재료채집]의 부분에서 재추출되었기 때문에, 6-3-2의 1층 자기 명명 명제가 본 작품에 대해 적용되어 저자의 독립된 창작성 단위로 등록된다. 이것이 6-3-2의 2층(창작성)창작품의 부분) 이행의 사실 등록이다.

본 자료는 저자의 2층 이행 자기 명명 명제이며, 법적 변형적 사용 해당 여부는 담론 채널·법정의 후속 판단에 위임된다.

D-9-10-3. 상업품 · 아트상품 총 실행 자료

자기 명명 단위: [재료채집]·[해바라기 축제 부분] 계열 파생 작품의 상업품·아트상품 이행. 유통 매체: 옷·상품 인쇄 · 대량 복제. 이 층은 저작권 독점권 안에 있던 세계 작품들이 저자 자기 명명 명제 두 층(1층 · 2층)을 거친 뒤 3층에서 상업적 유통에도 이용될 수 있는 공공 공유 단위로 이행하는 저자 자기 명명 명제의 실행 층이다.

저작권법 이중 목적 기준 · 공중 이익 축 자기 관철 명제: 저자는 상업품 이행을 저작권법의 이중 목적(창작자 보호 · 공중 이익) 중 공중 이익 목적을 예술적 자기 명명으로 대리 관철하는 명제로 등록한다. 국제 담론 관련 좌표는 미국 헌법 저작권 조항([U.S. Constitution Article I, Section 8, Clause 8](https://constitution.congress.gov/browse/essay/artI-S8-C8-1/ALDE_00000068/)) · 미국 저작권법 공정 이용([17 U.S.C. § 107](<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7/107/>))의 이중 목적 구조에 대응한다.

본 자료는 저자의 3층 이행 자기 명명 명제이며, 상업품·아트상품 개별 품목의 상업적 사용 적법성은 담론 채널·법정의 후속 판단에 위임된다.

D-9-10-4. 리처드 프린스 시리즈 대비 표

다음 표는 국제 차용미술 담론의 주요 사례와 저자의 [재료채집] 계열을 사실 관계 속에서 나란히 배치하여 등록한다. 본 표는 저자 담론 등록 표이며 우열·이후 판단이 아니다.

축	세리 레빈 [After Walker Evans] (1981)	프린스 [Untitled (Cowboy)] (1980~)	프린스 [Canal Zone] (2008)	프린스 [New Portraits] (2014~)	저자 [재료채집] (2005) 계열
차용 원본 매체	워커 에반스 사진집 (인쇄 매체)	말보로 잡지 광고	패트릭 카리우 [Yes Rasta] (인쇄 사진집)	Instagram 타인 게시물 (웹·SNS)	웹상 유통 명화·사진·만화·광고·과학 이미지 (웹)
편집 규모	1점	1점~다수	35점 부분을 30점 시리즈에	37점 각각 1점 캔버스	수백 점을 1점 회화 (150×600cm)에
자기 명명 단위	1점 사진	1점 사진	30점 시리즈 각각 1점씩	37점 캔버스 각각 1점씩	[재료채집] 하나의 화면 + 각 오브제N 번호

축	세리 레빈 [After Walker Evans] (1981)	프린스 [Untitled (Cowboy)] (1980~)	프린스 [Canal Zone] (2008)	프린스 [New Portraits] (2014~)	저자 [재료채집] (2005) 계열
이행 층수	1층 (원본)»창작품	1층	1층	1층	1층·2층·3층 (원본)»창작품»부분»상업품
유통	갤러리 판매	갤러리 판매	갤러리 판매 (Gagosian)	갤러리 판매 (Gagosian)	갤러리 + 상업품 대량 유통
저작권 담론 결과	소송 없음	소송 없음	Cariou v. Prince 2011~2013 · 30점 중 25점 변형적 사용 판정 · 2014 합의	Graham v. Prince · 2024.1 · \$900K 배상 판정	담론 등록 단계 (변형적 사용 해당 여부는 담론 채널·법정 후속 판단)

리처드 프린스 판례 관련 자료: [Cariou v. Prince 2013 2심 판결문 · Justia](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ca2/11-1197/11-1197-2013-04-25.html) · [Cariou 2014 합의 · Artnet](https://news.artnet.com/market/patrick-cariou-drops-copyright-lawsuit-against-richard-prince-6257) · [Gagosian New Portraits 2014 전시](https://www.gagosian.com/exhibitions/2014/richard-prince-new-portraits/) · [Graham/McNatt v. Prince 2024.1 배상 판정 · The Art Newspaper](https://www.theartnewspaper.com/2024/01/26/judge-rules-against-richard-prince-copyright-infringement-instagram-portraits).

이 대비 표는 저자 담론 등록 사실이며, 계보 사례의 우열·예술적 평가·법적 판단은 담론 채널·법정의 후속 판단에 이미 기록된 것만 준용된다.

D-9-10-5. 국제 저작권 판례·법령 좌표 표

다음 표는 저자 6-3-3의 저작권법 이중 목적 명제와 관련된 국제 법령·판례 좌표를 사실 관계로 배치한다.

좌표	연도	핵심 명제	저자 3층 명제와의 담론 관계
U.S. Constitution Article I, § 8, cl.8	1788	저작권 목적 ·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저자 이중 목적 명제의 국제 종속 자료
17 U.S.C. § 107	1976~	공정 이용 4요소 (변형적 사용 · 비상업성 · 원본 사용량 · 시장 영향)	저자 (명제 2) 원본성 변화 = 변형적 사용 측 자기 등록
Campbell v. Acuff-Rose Music	1994	패러디는 변형적 사용 · 상업성이 자동 배제 사유가 아님	저자 3층(상업품) 담론의 국제 가능성 측
Cariou v. Prince	2013	원본 부분 편입도 새로운 미학적 표현이 있으면 변형적 사용	저자 1층(원본)»창작품 담론 국제 사례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2023	상업적 사용 맥락은 변형적 사용 판단을 좁힌다	저자 3층(상업품) 담론 대적 측 · 담론 채널·법정 후속 판단 자료
Graham v. Prince	2024.1	[New Portraits] 시리즈 저작권 침해 · \$900K 배상	저자 [재료채집] 계열과의 간접 판례 관계 · 담론 후속 판단 자료

본 좌표는 저자 6-3-3·6-3-4 명제의 근거 자료이며, 국제 법령·판례의 국내 저작권법 해석 적용 판단은 담론 채널·법정의 후속 판단에 위임된다.

D-9-10-6. 저자 2026.7 저작권 담론 3층 이행 자기 진술 원문

저자는 2026년 7월 본 문서 편집 대화에서 6-3·D-9-10의 근거가 되는 자기 진술을 직접 수행하였다. 본 부록은 저자 진술 원문을 그대로 편입한다:

"오브제 채집 = 차용해 모아놓은 작품마다 아래에 오브제1 오브제2~ 번호를 써 놓았어. 내가 한건 전체 구성작업과 작품사진들 아래에 오브제1, 오브제2 이렇게 써 놓는것뿐이야. — 저자 최준, 2026.7 자기 진술"

"작품사진들을 크게 그리고 작은작품은 원작의 크기 비슷하게하여 초고해상도로 프린트·인화해 진짜 원작을 모두 가져와 모아 놓은듯하게, 이 원작들이 최준의 작품이 된것처럼 만드는거야. — 저자 최준, 2026.7 자기 진술"

"이 재료채집에서 일부를 잘라 새 작품을 만들면 저자의 창작품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난다. 상업품·아트상품을 옷·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 저자 최준, 2026.7 자기 진술"

"저작권법이 생긴 이유는 창작자의 권리만 중요한게 아니라 세상 모든이들에게도 적당한 공유를 하여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것이다. — 저자 최준, 2026.7 자기 진술"

이 자기 진술문들은 본 문서의 (a) 6-3-1 저자 두 명제 원문 (작가의 예술 표현 · 원본성 변화), (b) 6-3-2 3층 이행 구조 (원본»창작품»부분»상업품), (c) 6-3-3 저작권법 이중 목적 조화 명제의 사실 근거 자료로 등록된다. 본 자료는 저자 자기 진술 원문으로서 사실 관계 서술을 넘어서는 해석적 판단을 수행하지 않으며, 담론 채널·법정의 후속 판단을 위한 기록으로 보존된다.

D-10. 본 문서에서 보류된 자료에 대하여

저자에게는 이 외에도 저자의 방법론 실행·명기 시간 좌표와 관련된 자료 · 국내외 담론 지면과의 대칭 관계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수 존재한다. 본 문서는 이번 편에서 다룬 시간 좌표·담론 재배치의 범위 안에서만 자료를 활용하며, 그 외의 자료는 다음 편 · 자매 문서 · 별도 문서로 이관하여 보류한다. 이 보류는 자료의 누락이 아니라 편집 범위의 자기 규정이다.